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박사학위논문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유 나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Development of Public Intimacy Evaluation items
in the Modern Public Building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유 나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 개발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유 나

이유나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李 眞 烈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尹 在 成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韓 世 巨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柳 明 淑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尹 甲 根 

2023년 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3 연구 흐름도.....	5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공공청사의 이해.....	7
2.1.1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	7
2.1.2 공공청사의 기본 이해.....	11
2.2 퍼블릭 인터머시.....	17
2.2.1 퍼블릭 인터머시의 고찰.....	17
2.2.2 퍼블릭 인터머시 구조 및 특성.....	25
2.2.3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터머시의 연계성.....	35
2.3 선행연구.....	35
2.3.1 주제어 관련 선행연구.....	35
2.3.2 연구의 차별성.....	41

제3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3.1 국내 공공청사 현황 이해.....	43
3.1.1 공공청사의 현황 및 공간.....	43
3.1.2 현황 조사.....	47
3.2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57
3.3 선행자료 분석.....	66
3.3.1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66
3.3.2 소결.....	94

제4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

4.1 공간 평가항목 설정.....	98
4.1.1 상위 항목 설정.....	100
4.1.2 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설정.....	104
4.2 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	106
4.2.1 연구 방법.....	106
4.2.2 실증분석.....	109
4.3 평가 예비항목 검증.....	118
4.3.1 평가 예비항목 1차 선정 및 중요도 조사.....	118
4.3.2 평가 예비항목 2차 선정 및 전문가 검증.....	131
4.3.3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최종 평가항목.....	132

제5장 평가항목 적용 사례분석

5.1 사례 평가 개요.....	135
5.1.1 사례 선정 및 기초 분석.....	135
5.1.2 사례 평가 표본 설정 및 조사.....	138
5.2 평가 내용 및 결과.....	138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42
6.2 향후 연구 방향성.....	145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1-1] 연구 구성체계.....	5
[표2-1] 국내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 시대 변화.....	10
[표2-2] 공공청사의 정의와 관련 법률.....	13
[표2-3] 공공건축의 가치 유형.....	15
[표2-4] 건축·공간적 ‘공공성’ 개념 흐름.....	17
[표2-5] 사회학적 인터머시 개념.....	22
[표2-6] 퍼블릭 인터머시의 공간 특성 선행연구.....	29
[표2-7]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	34
[표2-8] 공공청사 관련 선행연구.....	36
[표2-9] 퍼블릭 인터머시 관련 선행연구.....	39
[표3-1] 국내 행정구역 현황.....	43
[표3-2] 국내 지방자치 본청 청사 기준 면적.....	44
[표3-3] 국내 지방자치 본청 청사 현황.....	45
[표3-4] 청·관사 보유현황(2015년 기준).....	46
[표3-5] 현황조사 대상.....	47
[표3-6] 오산시청사 개요.....	48
[표3-7] 오산시청사 공간 현황.....	49
[표3-8] 대전광역시청사 개요.....	51
[표3-9] 대전광역시청사 공간 현황.....	51
[표3-10] 세종특별자치시청사 개요.....	53
[표3-11] 세종특별자치시청사 공간 현황.....	53
[표3-12] 부산광역시청사 개요.....	55
[표3-13] 부산광역시청사 공간 현황.....	56
[표3-14] 공공청사의 일반적인 공간구성.....	57

[표3-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지정 사항.....	60
[표3-16]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66
[표3-17]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원칙.....	67
[표3-18] 서울시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세부 가이드라인.....	68
[표3-19] 서울시 공공건축물 사업 사후평가.....	69
[표3-20] 대구광역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원칙.....	70
[표3-21] 대구광역시 공공청사 권장 가이드라인.....	71
[표3-22] 인천광역시 시청 및 군구 시청사 가이드라인 변천.....	72
[표3-23] 2009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74
[표3-24]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추진전략.....	75
[표3-25] 광주광역시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76
[표3-26]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체크리스트.....	76
[표3-27]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개요 및 기본방향.....	77
[표3-28]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78
[표3-29]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79
[표3-30] 경기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80
[표3-31] 경기도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방향.....	81
[표3-32]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평가지표.....	81
[표3-33] 강원도 공공건축물 개발 5원칙.....	82
[표3-34] 강원도 공공청사 세부 가이드라인.....	82
[표3-35]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83
[표3-36]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84
[표3-3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사후 진단지표.....	85
[표3-38]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및 체크리스트.....	86

[표3-39] 전라북도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87
[표3-40] 전라남도 공공건축 기본원칙	88
[표3-41] 전라남도 행정시설·안전시설 가이드라인	88
[표3-42] 전라남도 행정시설·안전시설 체크리스트	89
[표3-43] 경상북도 시·군·구청 가이드라인	90
[표3-44] 경상북도 시·군·구청 체크리스트	91
[표3-4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공간 기본원칙	92
[표3-4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청사 세부지침	92
[표3-4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93
[표3-48] 국내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종합	95
[표4-1] 평가항목 도출 흐름도	98
[표4-2] 평가항목 선행연구 조사 및 선정 기준	99
[표4-3] 상위 항목 추출을 위한 선행연구 항목정리	100
[표4-4]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101
[표4-5] 상위 예비항목 빈도분석	102
[표4-6] 하위 항목 추출을 위한 선행연구 항목정리	104
[표4-7]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	105
[표4-8] 설문조사 개요	108
[표4-9] 변수 측정	108
[표4-10] 표본의 일반적 특성	109
[표4-11] 회귀분석 결과	111
[표4-12] 개방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112
[표4-13] 인지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113
[표4-14] 접근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114
[표4-15] 체험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115

[표4-16] 가설 검증 결과.....	116
[표4-17]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위 항목.....	117
[표4-18] 중요도 조사 개요.....	119
[표4-19]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119
[표4-20] 공공청사 이용 빈도 및 방문목적.....	120
[표4-21] 신뢰도 분석(전체).....	121
[표4-22] 개방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123
[표4-23] 개방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123
[표4-24] 인지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124
[표4-25] 인지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124
[표4-26] 접근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125
[표4-27] 접근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126
[표4-28] 체험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127
[표4-29] 체험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127
[표4-30] 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	129
[표4-31] 하위 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	129
[표4-32] FGI 응답자 현황.....	131
[표4-33]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131
[표4-34] 최종 평가항목 도출.....	133
[표5-1] 사례 평가 표본 조사 개요.....	138
[표5-2] 부산광역시청 공간평가 결과 종합.....	138
[표5-3] 항목별 부산광역시청 공간평가 결과.....	139

그림 목 차

[그림2-1] 공공청사의 구분.....	12
[그림2-2] 퍼블릭 인터머시의 상호작용.....	13
[그림2-3]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 구조 선행연구.....	26
[그림2-4] 과정으로서 퍼블릭 인터머시.....	27
[그림2-5]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공간구성.....	33
[그림3-1] 민원실의 공간구성.....	59
[그림3-2] 부산광역시청사 전시장 안내도.....	61
[그림3-3] 부천시청사 판타스틱 큐브 영화관.....	62
[그림3-4] 오산시청사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하절기 모습.....	63
[그림3-5]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Nieuwegein) 시청사.....	65
[그림3-6]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Nieuwegein) 시청사 단면도.....	65
[그림4-1] 상위 항목 도출.....	103
[그림4-2] 연구모형.....	107
[그림5-1] 부산광역시청 전경.....	136
[그림5-2] 부산광역시청사 배치도.....	136
[그림5-3] 부산광역시청사 미디어공간 및 아트.....	137

ABSTRACT

Development of Public Intimacy Evaluation items in the Modern Public Building

Lee Yuna

Advisor :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oday's society, public architecture is a value that we can us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ublic developing various angles. Especially, due to the changing of the paradigm about the nature of public, Public Buildings are showing the trend of the times. In Korea, however, the history of Public Buildings has not been long due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even recently, the architecture and space of Public Buildings have been regarded as a means of expression symbolizing the authority of the city. According to the above reason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Buildings and citizens has formed an coercively hierarchy, rather than forming a close and friendly one. But Korea also tried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with the beginning of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is way, the Modern Public Building has been trying to form an "Intimacy" relationship with citizens in terms of aspects of architecture and space.

Researchers started to place importance on this tre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imacy" as a familiar state as "the intimacy bond" with citizens is necessary based on the nature of public. Public Intimacy is a value that extends the concept of architecture and space, starting from sociology and psychology, and makes people feel close in

social life. By doing so, It's worthwhile to maintain a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Public Spaces or Public Buildings.

As a result, this study focuses on reflecting the trend of today's need on the Modern Public Buildings to revitalize citizen-centered spaces in various ways. Furthermore, It has been developed that the space Evaluation items to propose the organized spatial foundation of Public Building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timacy.

This study covers Public Buildings which represent each city's culture and can create and vitalize a cultural space for citizens. And it consists of the space Evaluation it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Public Buildings.

There are five space Evaluation items (openness, placeness, recognition, accessibility, and experientiality) that are extracted by analysis of Public Intimacy space. In order to organize the foundation in the practical aspect of space, it was visualized divided into the top level items and subitems. The top level items are extracted by means of surveys conducted with experts and reserve experts so as to bridge from spac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timacy to preliminary space Evaluation items for Public Intimacy affording a basis for previous studies that systematized space evaluations. The subitems are made up of preliminary space Evaluation items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top level items which are researched on the Guideline and Checklist of Public Buildings in Korea. Eventually, the final preliminary space Evaluation items were drawn by Regression analysis to demonstrate the practical effect. Because this study is for a new area to introduce to organize the foundation of Public Intimacy.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120 members of citizen who visited Public Buildings. The analysis showed that “placeness” had no significant impact among the top five items, and the subtimes ten of were excluded.

With the above result, the 1st Importance survey to analyze reliability, correlation, and importance was conducted with 50 members of expert and

100 members of citizen who used public buildings. In both groups, the first place is accessibility, the second is recognition, and the third is different. Experts put more importance on openness, on the other hand, citizens pick experientiality. After investigating the subitems about the importance, the following must be carried out to promote effective formation of Public Intimacy in Public Buildings. At first,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check the improvement of Public Buildings by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citizens, an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to create spaces for various people to use.

The 2nd Expert Verification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by means of FGI(Focus Group Interview). Overall, the top level items received an average of more than 4 points. Some subitems were reduced and supplemented by the opinions of the interview, and some of the terms were modified to improve readability and understanding. Therefore, 4 top level items (openness, recognition, accessibility, and experientiality) and 26 subitems were organized.

Next, one Public Building in Busan was selected as an example. This is to diagnose and utilize the space Evaluation item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5 government employees of Busan, that Public Building received a high rating of more than 4 points on average and got high scores in order of experientiality, accessibility, recognition, and opennes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score of the detailed Evaluation items was fou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City, which translates that the positive evaluation part should be promoted, and the negative one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Public Intimacy into Modern Public Buildings and developed Evaluation items in terms of architecture and space in order to make to develop it with citizens. The effect and value of the Evaluation items were pro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nd verification processes. However, Public Intimacy still lacks data and needs to be kept researched. I hope it i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at theory of Public

Intimacy and space. And this study is limited Public Building models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Buildings,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each local district. And then, Public Intimacy will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value for diverse urban spaces.

keyword : Public, Public building, Public Intimacy, Cultural space, Evaluation items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연구 흐름도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공공성(public)’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성은 철학·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용하며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그중 공공건축(public architecture)은 무엇보다 시대와 공공성,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실체적으로 담아내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공공건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당대의 개념과 발전을 함께 성장한 공공청사는 현대에 들어서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 기능 이외에도 열린 태도를 갖추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공건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체계화된 기관으로 수행한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초기 역사적 상황에 의해 당시의 건축은 권위적이고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국내 지방자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공공청사 역시 도시민을 위한 건축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더 이상 권위적 상징물로서 보는 것이 아닌 도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작이다. 이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내 변화의 영향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전의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신청사를 건설하였지만, 일부의 경우 규모와 형태적 측면에서 또다시 도시에 거대한 매스(mass)를 만들어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더불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공공청사의 많은 공간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내 공공청사는 현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들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intimacy)’ 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대 공공청사가 시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도록 하는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 개념을 대입하고자 한다. 퍼블릭 인티머시는 ‘공공성(Public)’과 ‘친밀함(Intimacy)’의 합성어로 사회·심리학에서 시작하여 점

차 건축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성의 의미 확장으로 과거 공(公)·사(私)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이 사적 영역(개인)과 ‘친구(the intimacy bond)’와 같은 관계를 맺기서부터이다. 하지만 퍼블릭 인터머시는 개인(도시민)이 느끼는 가까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비교적 주관적이다. 이에 건축·공간 분야에서는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자에 따라 ‘공공친밀’, ‘공공친화’, ‘친공공성’ 등으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공공청사의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공공청사의 현재와 도시민과 함께 건축·공간 측면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아본다.

둘째,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을 대입하기 위해 공공성과 인터머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념 정립을 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공간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특성을 분석해 연구의 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공공청사의 실용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퍼블릭 인터머시 측면에서 조사하고 체계화된 공간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 평가항목을 개발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현대 공공청사에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을 대입하고, 건축·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기초적인 평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통해 공공청사는 도시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공간에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는 건축·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공공청사에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적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퍼블릭 인터머시를 통해 형성된 가까운 상태를 바탕으로 도시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시대적 개념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현대 공공청사에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 대입을 통한 공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청사의 선행연구와 국내 행정구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비교적 도시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로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청사의 새로운 공간 대안 방안으로서 떠오르는 시민문화공간과 함께 공공청사에서 도시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범위는 다양한 조건에서 시민문화공간 마련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축에서 비교적 대표성을 가진 국내 특별시·광역시·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터머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적 자료를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개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각 주제어에 따른 선행연구 동향 파악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관점과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국내 공공청사 현황 파악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이후 연구 범위 내 최근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나타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공간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대해 행정구역마다 마련한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선행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공간 평가항목 도출 기틀을 마련한다.

셋째, 공간 평가항목 도출 이전에 우선 예비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공공공간 혹은 공공청사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공간 평가 항목을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과 연결하여 상위항목을 추출한다. 이를 중심으로 더욱 세부적인 항목을 위해 앞서 고찰한 국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도출한다. 이렇듯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으로 공공청사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효한 항목을 분석하여 공간 예비항목을 설정한다. 평가 예비항목은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 대상으로 한 FGI 검증을 기반으로 항목에 대한 객관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여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최종 평가항목을 구축한다.

넷째, 공간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례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사례의 관리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대안적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연구에서 도출한 공간 평가항목에 대한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1.3 연구 흐름도

[표1-1] 연구 구성체계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1장	서론	<table border="1"> <tr> <td>연구의 배경 및 목적</td> <td>연구의 범위 및 방법</td> </tr> </table>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이론적 고찰	<table border="1"> <tr> <td>공공청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재 이론적 개념 및 역할 이해 </td> </tr> <tr> <td>퍼블릭 인티머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블릭 개념 확대와 퍼블릭 인티머시 등장 퍼블릭 인티머시 형성 구조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특성 분석 </td> </tr> <tr> <td colspan="2">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티머시 연계성 및 선행연구</td> </tr> </table>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재 이론적 개념 및 역할 이해 	퍼블릭 인티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블릭 개념 확대와 퍼블릭 인티머시 등장 퍼블릭 인티머시 형성 구조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특성 분석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티머시 연계성 및 선행연구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재 이론적 개념 및 역할 이해 											
퍼블릭 인티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블릭 개념 확대와 퍼블릭 인티머시 등장 퍼블릭 인티머시 형성 구조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특성 분석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티머시 연계성 및 선행연구												
3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table border="1"> <tr> <td>국내 공공청사 현황 조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공청사 현황 파악 및 연구범위 설정 공공청사 현황 조사 </td> </tr> <tr> <td>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분석</td> <td>퍼블릭 인티머시 대입가능한 공공청사의 시민문화 지원 공간 분석</td> </tr> <tr> <td>선행자료 분석</td> <td>구체적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td> </tr> </table>	국내 공공청사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공청사 현황 파악 및 연구범위 설정 공공청사 현황 조사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분석	퍼블릭 인티머시 대입가능한 공공청사의 시민문화 지원 공간 분석	선행자료 분석	구체적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 공공청사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공청사 현황 파악 및 연구범위 설정 공공청사 현황 조사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분석	퍼블릭 인티머시 대입가능한 공공청사의 시민문화 지원 공간 분석											
선행자료 분석	구체적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4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table border="1"> <tr> <td>평가 예비항목 설정</td> <td>상·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도출 및 설정</td> </tr> <tr> <td>실증분석</td> <td>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td> </tr> <tr> <td>1차 중요도 조사</td> <td>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 조사</td> </tr> <tr> <td>2차 전문가 검증</td> <td>FGI 전문가 검증 및 적합도 분석</td> </tr> <tr> <td colspan="2">최종 평가항목 도출</td> </tr> </table>	평가 예비항목 설정	상·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도출 및 설정	실증분석	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	1차 중요도 조사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 조사	2차 전문가 검증	FGI 전문가 검증 및 적합도 분석	최종 평가항목 도출	
평가 예비항목 설정	상·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도출 및 설정											
실증분석	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											
1차 중요도 조사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 조사											
2차 전문가 검증	FGI 전문가 검증 및 적합도 분석											
최종 평가항목 도출												
5장	평가항목 사례 분석	<table border="1"> <tr> <td>사례 평가 개요</td> <td>사례와 표본 대상 선정</td> </tr> <tr> <td>평가 내용 및 결과</td> <td>사례 평가항목 적용 및 활용, 종합분석</td> </tr> </table>	사례 평가 개요	사례와 표본 대상 선정	평가 내용 및 결과	사례 평가항목 적용 및 활용, 종합분석						
사례 평가 개요	사례와 표본 대상 선정											
평가 내용 및 결과	사례 평가항목 적용 및 활용, 종합분석											
6장	결론	<table border="1"> <tr> <td>연구 결과 및 시사점</td> <td>향후 연구 방향성</td> </tr> </table>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성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성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공공청사의 이해

2.2 퍼블릭 인터머시

2.3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공공청사의 이해

2.1.1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

공공청사의 계보학적인 측면을 본 많은 연구에서는 과거 그리스의 도시 국가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알려진 ‘아고라(Agora)’¹⁾는 보편적으로 ‘시장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면 ‘공론장’으로서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시작으로 12세기 봉건제 제도의 대항과 자치정부 출현에 따라 건설되어 사회적 기능과 함께 도시의 기념비적인 상징물 역할을 도맡던 근대적 공공청사와 더 나아가 16세기 르네상스에 들어서 일반적인 업무공간으로서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개됐다. 이후 산업혁명과 프랑스, 미국의 시민 혁명을 기점으로 강화된 중앙집권의 행정적 위상을 표현하는 상징물로서 발전하면서 그 가치가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도시 및 국가적 범위로 확장된다. 비로소 시대 흐름의 변화를 기능 및 조형적으로 대응해온 공공청사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 수용이라는 과제를 지니게 된다.

비교적 국내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근현대 짧은 시기에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다. 국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청사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 통치거점으로써 일제강점기 시대

국내의 근대적 공공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기 식민지 통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선총독부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도·군청의 설치로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청사들은 기존에 지어진 일본 영사관 또는 공관 건물을 용도만 바꿔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공공청사의 목적을 위해 신축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신축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지배 세력의 권

1)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는 현대 도시의 광장과 같은 기능과 같은 시장, 무대, 집회 장소로 활용되면서 일반 도시민의 공공 생활의 중심지로 인식하였다. 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 연구.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2.

위를 강조하기 위해 절충주의 양식으로 디자인되고 일본의 근대화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양식을 도입하여 이 시기의 공공청사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와 외관을 지녔다. 무겁고 위압적인 이미지를 위해 화강석 석재 혹은 벽돌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기능적인 부분이 차단된 외관 이미지를 통해 진입과 접촉이 통제되는 공간구성을 보여주면서 권위 재현에 중점을 두었다.

• **광복 이후 공용공간의 등장**

해방 직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쟁 복구 사업과 함께 공공청사 건축이 시작되었다. 1955년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지방행정청사에 대해 전쟁 복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청사 건축에 주로 사용된 석조 및 콘크리트 혼합구조를 답습하였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최대한 발맞추기 위해 행정업무에 대한 주된 고려와 외부공간에 대해 구성하지 못한 채 기존 일제의 관청 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사의 건축적 반영이 드러난 면모로 볼 수 있다.²⁾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도 합리주의 및 모더니즘 건축이 도입되면서 부터 이전 공공청사와 다르게 단순하고 백색 입방체와 수평창, 루버 등이 새로운 건축 요소로 등장한다. 이에 기존 권위적 표현으로서 외관의 대칭형, 성문, 열주, 회랑 등이 재해석되는 것과 새로운 건축 요소의 도입을 통해 당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조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에서도 ‘대민공간’이 등장하면서 민원실, 시민 홀 등이 1층 혹은 저층에 형성되고, 외부공간에서도 옥외광장, 공원 등이 계획되어 공공청사의 사회적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폐쇄적이고 권위를 과시하는 불친절한 공공청사에서 사회적 친근감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변화는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1984년 8월 신축 관공서, 학교 등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5년 8월 공공청사를 포함한 다양한 도시건축물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함에 따라³⁾ 지배 세력으로서 상징적 표현적 수단이 아닌 공공청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창용. 공공청사시설을 통한 권력과 공공성의 구축. 2017.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68-70.
 3) 서수미.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2013.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65-66.

•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주체 변화

1990년대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국내 공공청사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구조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다시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지역마다 형성되었다.⁴⁾ 또한 세계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획일적인 형태를 유지하던 문화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점차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각 지역이 지닌 특수성이 가치 창출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차별성과 각 정체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흐름은 각 구성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시정의 주요 고객(client)으로 재인식하면서 공공청사는 권위적 업무공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시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자 지방자치제가 점차 전문화되고,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자율, 책임, 협조를 바탕으로 간접적 국가 경영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의의를 지닌다.⁶⁾ 이러한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청사는 시민의 전당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권위주의적 디자인을 벗고 비대칭, 원통, 원호형 등 당시 국내 건축의 파격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디자인하거나, 지역 장소성 구축을 위해 전통 건축의 일부를 재해석하여 삽입하는 등의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졌다.⁷⁾ 또한 1990년대 후반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청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타워형 오피스 건축이 등장하였다. 내부공간에는 의회 복합화와 민원 업무 확대에 의해 별도의 민원실 혹은 민원동을 구축하였으며, 공공청사의 현대적 변화를 이끈 문화복지영역을 확충하였다. 문화복지영역은 청사가 단순한 공직자의 사무공간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이 확장되고 활동을 돕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친근한 지역청사 이미지를 구축하여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자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에 따라 현재의 공공청사가 시민에게 문화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문화공간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4) 유종구. 공공청사 복합화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2020.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p.12.

5) 현창용(2017). op.cit., p.43.

6) 현창용(2017). op.cit., pp.40-43.

7) 당시 제주시청은 제주 초가를 형상화하려 시도하였고 전주시는 전통 건축의 의장을 현대건축과 조합하려 하였으며, 진주시청은 진주성 일부를 모방해 청사에 덧붙이는 등의 지역주의적 건축 경향을 보였다.

• 현대의 공공청사

1998년 1월 전자정부(e-government)가 출범하면서 공공청사의 역할은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보편화와 전자정부 출범이 일어났다는 점은 공공청사에서의 물리적 정보 보관장소와 정보의 물리적 관리를 담당하던 업무공간의 축소를 의미했다. 더 나아가 민원, 서류 업무의 비중의 축소된 그 공간을 각종 시민을 위한 전시장, 공연장, 홍보공간 및 도서관 등의 문화 복지시설로 채워나가기 시작한다.⁸⁾ 따라서 공공청사의 현대적 변화는 물리적 공간 변화보다 공간과 개념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청사의 사용 주체 인식이 점차 관리자(inhabitant)에서 시민(visitor)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역할에서도 업무기능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가 개방적, 가변적 구조로 대응하고 시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였다. 공간구성에서도 업무기능 이외의 문화기능을 수행하여 독립적인 건축을 맡아오던 다양한 공간이 복합적으로 공공청사 건축 내 삽입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공간의 연계성이나 활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작위적으로 문화공간을 집어넣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청사 건축을 추구하자 호화청사 논란이 나타나면서 각 층의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⁹⁾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민의 집객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공공청사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국적인 도시 개발과 높아지는 토지비용에 의해 막대한 규모를 신축하고자 한 공공청사는 점차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성 또한 낮아져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2-1] 국내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 시대 변화¹⁰⁾

구 분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지자체 시행	현 재
특 징	정치적 상황에 의한 통치거점 역할	행정업무 수행 위한 업무시설 역할	의회 업무를 위한 집회공간 및 대민 기능 확대	지역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주기능	행정 업무	행정·대민 업무	행정·대민 및 의회 업무	행정·대민·의회 및 시민문화 확대

(계속)

8) 현창용(2017). op.cit., pp.47-49.

9) 현창용(2017). op.cit., pp.68-70.

10) 봉혜윤. 공공청사 공용공간의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시청청사를 중심으로. 2019.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p.16.

[표2-1] (계속)

구 분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지자체 시행	현 재
기 능	- 정치적 통치의 원활한 수행 - 정치적 통치의 상징적 역할	- 주민 집회 장소 - 공용 공간을 활용한 공공성	‘시민의 전당’으로서 상징적 이미지 강조	문화 기능이 더해져 시민 삶의 질 향상
의 미	- 지배 세력의 권위 강조 - 근대화 수준과 선도적 위치 과시	외부에 마련된 공용공간 개념 등장	권위적 이미지 탈피	도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공간
디자인 경향	단일 대칭형	권위적 형태의 단일형 건축	분동형 건축 및 좌우 대칭형	다양한 형태와 대규모 및 고층 형태
공간 구성	-	옥외 광장·공원 등 외부에 구성	중정, 휴식공간, 시민홀	다양화, 복합화, 대규모형

일부 국가청사는 특수한 기능에 의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청사는 시민의 일상 속 함께하는 건축이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¹¹⁾ 또한 공공청사의 낮아져 가는 시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친화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 공공청사의 시대적 위치는 시민 친화적인 접근을 통한 활성화와 경제성까지 고려한 복합화 형태의 공공청사 도입에 따른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청사 건축에 대한 재검토 혹은 방향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1.2 공공청사의 기본 이해

(1) 공공청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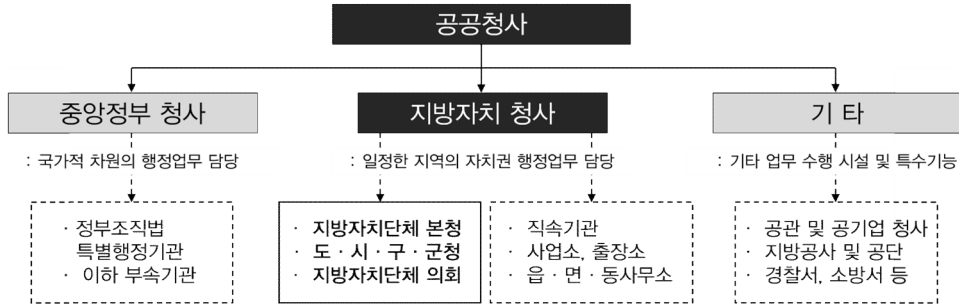
공공청사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¹²⁾이며,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요소이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시설의 건축물이다. 공공청사는 공공건축의 6가지 기능 중 ‘행정 공간’ 기능에 해당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공간이다.¹³⁾ 여기서 국가적 차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청사,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

11) 유중구(2020). op.cit., p.14.

12) 국토교통부. “공공청사”. 토지이용 용어사전, 2022년 07월 07일 접속. luris.molit.go.kr.

13) 권영결 외, “공공디자인 행정론”. 날마다, 2011, p.53.

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의 행정적 책임하에 있는 도·시·구·군청 또는 의회 등이 있으며, 하위 책임하에 위치한 직속 기관 및 읍·면·동 청사, 기타 업무 수행 시설로서의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으로 세분화된다.¹⁴⁾



[그림2-1] 공공청사의 구분

출처: 유종구, 2020, p.6. 재구성

하지만 공공청사를 행정기관의 관청 건물로서만 보는 것 이상의 역할, 가치, 도시적 범주에서 해석한 의의 등에 따라 개념은 더욱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며,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큰 중심점이 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의 범위는 시대적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청사로 규정하여 접근한다.

위와 같은 자취는 공공청사와 관련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청사의 정의를 내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을 살펴보면, 공공청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관과 도시의 안전과 관련된 교정시설 이외에 공공청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닌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또한 단순한 국가 또는 지역을 위해 공공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시설로서 정의하였다. 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14) 봉혜윤(2019). op.cit., p.25.

행령 제2조」를 참고하면 공공청사는 공공 및 문화시설로서의 도시 기반 시설로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뿐만 아닌 도시 문화적 측면의 고려와 장소적 이미지, 시민에게 있어서 개방감과 친근감 형성이 필요함을 법률적인 범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2-2] 공공청사의 정의와 관련 법률¹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간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변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산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 (이하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계속)

15) 법제처. “공공청사”.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7월 07일 접속. www.law.go.kr.

[표2-2] (계속)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하 '별표 1'의 내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이하 생략)

이처럼 국가와 도시를 위한 공공행정업무 시설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폭넓은 도시의 사회적 차원 가치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문화적 지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도시 필수 기반 시설로서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기능을 지닌다.

서수미(2013)는 공공청사에 대해 도시 기반 시설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결국 공공청사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는 공공건축 중에서도 공공청사는 높은 강도의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심적 역할 및 상징적인 의미로서 작용하여 도시민의 심리적, 인지적 공간지각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과거 국가 및 정부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재현된 공공청사의 모습은 어쩌면 도시 및 지역의 상징적인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이며 경직되고 폐쇄적인 건물 외관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공공청사가 여전히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건축이

하지만 현대 공공청사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더욱이 다양하고 복합화된 기능을 포함함에 따라, 점차 위의 [표2-3] 내용 중 ‘(C) 시설의 제한을 두고, 일반 대중의 출입 허용’과 같이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일반 대중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설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및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확장되고 있어, 시민문화와 관련된 기능 이외에도 공공청사의 행정업무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전의 행정업무는 단방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현재는 시민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양방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공청사 업무공간에서도 닫힌 공간이 아닌 시민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장소로서 개방적인 공간이 나타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¹⁹⁾ 따라서 현대의 발전을 거듭해오는 공공청사의 역할 및 기능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청사의 핵심적인 역할 변화는 시민문화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친근감 형성에 있다. 앞서 역사적으로도 고찰하였듯 공공청사의 전환점은 대민공간 대입하는 것으로, 즉 시민을 위한 업무공간 거대화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등으로 결국 공공청사의 핵심적인 주체는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하여 더불어 건설교통부(2006)는 「시민친화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통해 공공청사가 지녀야 할 역할은 상징적인 역할, 주민친화도, 행정효율성, 확장과 변화 가능성, 보안 총 5가지로 정의하였다. 도시 및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과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배려하는 역할, 접근하기 쉽고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친화적 요소 고려 등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인 공공청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현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했다.

국내에서도 ‘열린 공공청사’, ‘시민개방공간’, ‘시민친화적’, ‘주민친화’ 등을 내세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생활 서비스의 중심이자 교육 및 문화의 복합적인 장소로서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공공청사는 시민 스스로가 공동체 중심이 되는 장소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공공청사의 핵심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자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 할 수 있다.

19) 서수미(2013). op.cit., p.61.

2.2 퍼블릭 인터머시

2.2.1 퍼블릭 인터머시의 고찰

(1) 퍼블릭의 의미변화

‘공공성(公共性, Public)’의 사전적 정의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는 뜻을 나타낸다.²⁰⁾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공공성’은 간단명료한 개념이 아닌 문화권 차이에 따른 어원적 해석이 다르게 시작되듯,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의미의 중층성을 가진다.²¹⁾ 그리고 그 의미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생성되고 추가·분할·재배치되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시대적 상황과 평가 주체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²²⁾

[표2-4] 건축·공간적 ‘공공성’ 개념 흐름

관 점	연구명	정 의
공공의 어원적 접근	정 석 (1997)	공공에 대한 건축의 태도로서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건축의 태도적 공성.
공과 사의 경계 모호로서 유동적인 개념으로 접근	임상진 (1997)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넘어 공간을 매개로 하여 실존적 의미로서의 의사소통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김진욱 (2003)	모두, 함께, 열린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도시 간의 관계로도 파악되는 것.
공공성을 향유하는 주체 역할 강조	엄철호 외 (2008)	공적, 공익, 공정에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론적 공공성의 주체가 참여와 과정에 의한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 변하고, 다양한 주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
	이효창 (2009)	건축공간에 의해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건축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성윤정 (2010)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주체를 통해 이것을 누리는 대중의 공통적인 미감.

(계속)

20) 국립국어원. “공공성”.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07월 13일 접속, stdict.korean.go.kr.

21) 동양의 ‘공공(公共)’은 ‘공평할 공(公)’과 ‘함께할 공(共)’으로 구성된 여럿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성질로 해석하며, 공정과 공평에서 비롯된 개인의 도덕·윤리를 강조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의 합의를 통한 정치지배체계가 주체이다. 이와 다르게 서양의 ‘공공(public)’은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에서 유래되어 공민으로 구성된 정치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주체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아래에서부터 동의를 통한 사회구성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가 주체이다. 이렇듯 문화권에 따른 공공성의 어원적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공적인 정치기구로서의 접근과 공적인 가치, 공통적인 것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2) 엄철호 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보고서번호: AURI-기본-2008-8, p.24.

[표2-4] (계속)

관 점	연구명	정 의
주체의 참여 및 소통 강화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선순환 관계 집중	신승수 (2010)	다수에 의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 사회문화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차이, 다양성에 기초한 것.
	서수미 (2013)	다수의 일반 사람을 위한 사회 전반에 행해지는 일의 과정에 그 혜택을 받는 주체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함께 소통해 만들어가는 행위를 포함.
	김민주 (2014)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활동의 다양함을 끌어내며,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현창용 (2017)	시민 각자가 성찰적 주체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공의 사안에 대해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간,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그러한 기능의 회복에 대한 요청과 연계함.
	지연희 (2020)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 공간을 공공공간과 연결성을 가지며 일반 대중이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윤수민 (2022)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확장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공간의 공적인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

건축·공간적 측면에서 초기 연구라 볼 수 있는 정석(1997)은 ‘모두’에 대한 건축의 태도와 ‘함께’에 대한 건축의 태도, 그리고 ‘열린’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점차 개방적 차원을 넘어 공과 사의 경계 모호성으로 공공성을 본 임상진(1997), 김진욱(2003) 등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공공성을 해당 공간에서 행위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 범위 또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근대의 공공성은 공·사 이분법적 공공성에 비롯하여 공적영역은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것이며, 사적영역은 가족애, 사랑, 우정 등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으로 바라봄에 따라, 불평등적 관계와 지배 종속 관계의 고착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²³⁾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공공성은 점차 그 범위나 가치가 다양해지고 복합화되어 나타나면서 공공성을 가진 영역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여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뜻한다. 더불어 신일심(2007), 이효창(2009)을 비롯한 성운정(2010)은 공공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한데 얽혀서 개인 삶 속에서 공공영역이 들어가 있고 공공영역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공공성을 누리는 주체인 도시민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23) 염철호 외(2008). *ibid.*, pp.25-26.

이를 바탕으로 신승수(2010), 서수미(2013), 김민주(2014), 현창용(2017), 지연희(2020), 윤수민(2022)은 공간을 예로 들어 주체 의식에 의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론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고, 건축공간 영역 또한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적 공공성은 사회로 개방하는 열린 공공성을 구성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이 공공에 대한 영역을 친밀한 관계를 시작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닌 새로운 개념이 확장됨을 의미하며, 기존 공공성의 주체가 되었던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소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도시민과 소통을 통해 관리 및 지원 측면에서 파트너의 역할로 전환되어 여전히 공공성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²⁴⁾

정리하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시간을 같이한 공공성의 범위는 점차 광범위해지고 도시 속 녹아들어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공공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대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함께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합성하여 올바른 가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그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현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2) 인티머시의 이해

‘인티머시(Intimacy, 친밀)’의 사전적 의미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²⁵⁾으로 정의되며, ‘무엇과 무엇 간의 사이’와 같은 관계적인 의미와 사회적 소통의 의미로 본다.²⁶⁾ 인티머시는 라틴어의 ‘intimus’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inner’²⁷⁾ 혹은 ‘immost’²⁸⁾의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intimate는 한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a personal’s innermost qualitie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⁹⁾

인티머시³⁰⁾의 초기 연구자인 사회심리학자 에릭슨(Erik H. Erikson)에 따르면

24) 염철호 외(2008). op.cit., p.23.

25) 국립국어원. “친밀”.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07월 13일 접속, stdict.korean.go.kr.

26) 이건오. 공개공지의 친공공성을 위한 경험 중심적 공간 연구.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3.

27) inner: a.1.안의, 안쪽의(opp. outer)··· • an~court 안뜰··· 2.보다 친한··· 3.내적인, 정신의(spiritual)··· • the~life 정신[영적]생활··· 4.은밀한, 비밀의···

28) inmost: a.1.맨 안쪽의, 가장 깊은 속의··· • the~recesses of the forest 숲속 가장 깊은 오지 2.마음 깊은 곳의, 내심의, 깊이 간직한(감정 등)

29) 신동재, “공연장 건축의 인티머시”. 우리북, 2020, p.34.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공동체에 있어서 깊은 상호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³¹⁾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신동재(2020)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로 설명하면서 인터머시의 기본 접근은 사람이 가지는 속성으로서, 정확하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relation)를 기초로 두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공간과 연결했을 경우 사람이 공간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공간 애착’ 혹은 ‘인터머시’라고 하며, 공간 애착은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 무언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²⁾ 김근아(2008)는 관계적인 의미와 소통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긍정적 느낌이 축적되어 사람들은 그 장소를 자신과 친밀한 장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생각했다. 따라서 인터머시는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사회적인 활동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터머시는 하나의 단순 명료한 개념이 아니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한 인터머시를 살펴봄으로써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터머시를 성장 과정의 대인 관계상의 능력으로 보았다. 그는 ‘친밀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 정신적, 지원적이며 부드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반대 개념으로 고립(isolation)을 두었다. 사회생활 속에서 자아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성격 요소를 ‘인터머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상호 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개인이 획득해야 할 성격 요소의 하나로 본 것이다.³³⁾

둘째, 프레이저(Karen J. Prager)는 그의 저서 『The Psychology of Intimacy』를 통하여 사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로서 보았다. 그는 상호 간에 사적이며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relation)라고 정의하

30) 현재 ‘intimate’를 우리말의 ‘친밀(親密)’에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논문에서는 Intimacy를 보통 ‘인터머시’, ‘친밀도’ 혹은 ‘친밀성’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인터머시’라 하고자 한다.

31) Maria A. Turkson. Eriksonian Identity and Intimacy: Collective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2003.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Doctoral dissertation. p.39.

32) 최수지. 공간 친밀도와 경서 경험 증진을 위한 차량 IVI 시스템내 공감형 에어전트 연구. 201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7.

33) 신동재(2020). op.cit., pp.34-35.

였다.³⁴⁾ 이는 인터머시를 따뜻한 것으로 개인의 삶에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유익하므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터머시란 관계의 일종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적으로 공유하는 관계’가 반드시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이거는 사례³⁵⁾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같은 시간, 공간 아래에 서로의 감정을 동일화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머시를 발견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나타나는 흔한 형태로 설명했다. 인터머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상호관계이지만 기존의 의사 교환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되며 이는 건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³⁶⁾

셋째, 델레거(Valerian J. Derlega)는 대인관계의 평가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터머시를 상호작용적 행동(interactive behaviors)에 기초한 주관적인 평가(subjective appraisal)³⁷⁾로 보았다. 이러한 인터머시는 결국 특정한 관계에 대한 기대(certain relational expectation)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터머시를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결과물로 본 입장이다. 더 나아가 서로 간에 자신들을 드러내는 인식적(cognitive), 서로가 친밀해질수록 더욱더 보살피는 감성적(emotional), 신체적 근접성(proximity)에 대하여 편하게 느끼는 행동적(behavioral)인 특징을 지닌다.³⁸⁾

넷째, 오르로프스키(J. L. Orlofsky)는 대인관계로서 최고의 단계 및 지속 가능성으로 보았다. 그는 여러 요소의 작용 정도에 따라 개방성, 근접성, 자아존중감 등의 수준에 따라 인터머시를 6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친밀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협동성, 근접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으로 분류하는 조직을 개발하였다.³⁹⁾ 이에 따르면 인터머시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단계보다 그 수준의 정도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른 상태보다 매우 우월함을 알 수 있다.

34) Prager, Karen J, "The Psychology of Intimacy". Guilford Press, 1995, p.67.

35) 프레이거는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인터머시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 중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각자 산행하는 도중 우연히도 멋진 광경이 펼쳐진 능선에서 서로 마주쳤다. 서로 눈이 마주친 이들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아무 말이 없이 즐기고 있다."를 통해 두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즐기고 있으며 서로 어떠한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교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Prager, Karen J(1995). *ibid.*, p.12.

36) 신동재(2020). *op.cit.*, p.36.

37) Derlega, Valerian J, "Self-Disclosure and Intimate Relationships Introduction". Academic Press, Inc., 1984, p.13.

38) Derlega, Valerian J(1984). *ibid.*, pp.207-208.

39) Orlofsky, J. L. et al.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7, no.2, 1973, pp.211-219.

[표2-5] 사회학적 인티머시 개념

사회학자	관 점	요 약
에릭슨 (Erik H. Erikson)	성장과정의 대인 관계상의 능력	사회생활 속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두려움 없이 부드러운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성격으로 봄,
프레이거 (Karen J. Prager)	사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상호 간의 사적인 공유를 하는 관계로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가꾸는 요소로 봄.
덜레거 (Valerian J. Derlega)	대인관계의 평가과정	특정한 관계에 대한 기대로서,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결과물로 봄.
오르로프스키 (J. L. Orlofsky)	대인관계로서 최고의 단계 및 지속가능성	대인관계 속 최고 위계의 친밀한 정도로서, 정도와 지속하는 시간이 다른 상태보다 매우 우월한 것.



본 연구자의 ‘인티머시(intimacy)’ 정의
 사회적 가까움을 통해 일어나는 친근하고 애정을 형성하는 상태

앞서 사회학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형태 중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자는 사람이 사회적 가까움을 통해 일어나는 친근하고 애정을 형성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여기서 인간이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인위적으로 형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어 느껴지는 긍정적인 상태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도시 삶 속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발현된 애정에 기반한 관계로서 공공성의 목표를 같이 한다고 보고, 인티머시의 영역을 사람과 사람 간의 사적인 관계 이상의 공공의 영역으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같이하며 그 범위를 거주민의 인티머시를 형성하여 주거단지 개선행 및 지속 가능하도록 연구한 정수연(2013)은 인티머시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상호적으로 관계된 공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공공성의 의미와 함께 맞물릴 수 있다고 보았다. 두 개념 모두 개인이 아닌, 둘 이상 주체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화의 개념에 공공의 의미가 더해지면 그 범위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및 사회까지 확장된다고 공공으로서 범위 확장에 대해 언급하였다.⁴⁰⁾ 인티머시의 반대 개념으로 언급되는 ‘소외(isolation)’에 대해서 건축공간으로 접근한 신동재(2020)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소외

40) 정수연. 주거단지의 공공친화를 위한 자각유인동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13.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2.

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은 특정한 공간에서 낯선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회피하고 싶고 그에 따라 이를 거부하게 되는 공간을 ‘소외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⁴¹⁾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을 제외한 도시의 많은 공간은 그 무엇보다도 인티머시 형성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인티머시 형성을 위해 건축공간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장소(Place)’ 즉,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동재(2020)는 공간이 ‘장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티머시 형성을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여기서 장소란 중심성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그 건축물에 있어 본질적인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공간에서 장소성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티머시가 필수적인 전제 요소이며 도시의 공공성과 결합이 필요하다.

(3) 퍼블릭 인티머시 개념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란 사전적 접근으로서 ‘퍼블릭(Public, 공공성 혹은 공공)’과 ‘인티머시(Intimacy, 친밀감 혹은 친밀)’의 합성어이며, 이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퍼블릭 의미 변화에 따라 친근한 관계 형성까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도시의 기본적인 역할로까지 생각되는 퍼블릭 인티머시는 개념적으로 지속되어 연구됐지만, 반면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고 단어의 표기 방법 혼용에 따라 국내에선 ‘공공친밀’, ‘공공친화’, ‘친공공성’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퍼블릭 인티머시’와 같은 외래어 표기를 한 이유에는 동양의 ‘공공(公共)’과 서양의 ‘공공(Public)’ 개념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의 ‘공공(公共)’은 지배권력의 공평함, 공정함을 뜻하는 도덕·윤리로서의 ‘공평할 공(公)’과 다수의 이익을 뜻하는 공유로서의 ‘함께 공(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公)의 강조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협동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도덕·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 범위 내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기 절제와 수양만이 공적인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엿볼 수 있다.⁴²⁾ 반면 서양의 ‘공공(public)’은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⁴³⁾이라는 공공(populus)의 형용사에서 시

41) 신동재(2020). op.cit., p.46.

42) 성운정. 공공디자인의 공공성(公共性) 개념 연구. 2010.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20.

작된다. 이렇듯 공공은 먼저 정치 공간을 위한 공동체와 정치적 공간에 참여하는 공민에 근원을 두기 시작하였다.⁴⁴⁾ 17세기로 들어서는 ‘복지’의 개념이 생성되고 본격적으로 공공은 집단적인 공통의 것인 ‘공공재’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이는 사회 내의 공동선으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여기서 동서양의 공공성에 대한 태도적 차이점이 있는데, 주체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양의 공(公)개념에선 도덕·윤리로서 의무를 중시하는 반면, 서양의 공공(public)은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의 도시는 점차 퍼블릭 의미변화와 함께 서양권 공공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권이 혼합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함께하는 Baba Masataka, Open A(2021)의 저서 「Republic」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현재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공공(公共)’으로 표기한 개념은 그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너무 많은 영역과 개념을 포괄하여 애매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Public)’은 조금 그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퍼블릭(public)’은 서구문화권의 이념을 조건 없는 수용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앞서 고찰한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어 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계성의 연계방식에 따라 적당한 질서를 지닌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용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목표를 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⁴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시작을 바탕으로 건축공간에 대입하여 접근한 선행연구⁴⁷⁾를 바탕으로 ‘퍼블릭 인터머시’로 접근하고자 한다.

초기의 퍼블릭 인터머시는 합성어로서 가벼운 의미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점차 그 범위가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건축적 공간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것은 인간적 교류를 화두로 하여 장소적, 더 나아가 사회적 범위까지 포함된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친밀한 상태의 상호작용(Intimate Interaction)’을 이루는 것에 가치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함께한 박신자

43) 그 어원의 의미는 첫째, 공공의, 국민의, 공적인, 공식적인, 국가의, 공유의, 나라, 공화국 둘째, 공중(公衆)의, 일반사람들의 셋째, 공개의, 개방된, 누구나 참가하는, 공개된 넷째, 대중적인, 보통의, 평범한 이라는 뜻이다. 가톨릭대 고전라틴어연구소,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6, p.712.
 44) 성윤정(2010). op.cit., p.14.
 45) 염철호 외(2008). op.cit., pp.12-13.
 46) Baba Masataka, Open A, 배현미, 이승규 역, “RePublic: 공공공간의 리노베이션”. 문운당, 2021, p.16.
 47) 사회 및 심리적인 접근을 시작으로 건축공간에 발현되는 퍼블릭 인터머시를 연구한 김근아(2008), 김영정(2008), 박신자(2017), 신동재(2020)의 표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2017)는 현대 공공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사람들에게 인티머시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수연(2013)은 다수의 주체 간의 상호 관계적 의미와 공간 및 사회의 범위가 접목된 모두를 대상으로 장소적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적인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견오(2014)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간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여러 요소의 총체적인 조화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도시 활동의 가장 기본 단위인 도시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퍼블릭 인티머시를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으로, 도 시민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티머시(친밀감)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적 가까움은 수평적인 상호소통을 기초로 두고 도 시민과 친근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지닌 여러 도시 공간은 도 시민과 인티머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건네야 하며, 도 시민은 그들에 대한 주체 의식을 지니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이러한 인티머시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 도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며 보다 더욱 발전을 도모하리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퍼블릭 인티머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2-2]과 같이 도시의 공공공간 혹은 공공건축물과 도 시민 간의 긍정적인 관계 사이에 퍼블릭 인티머시가 작용해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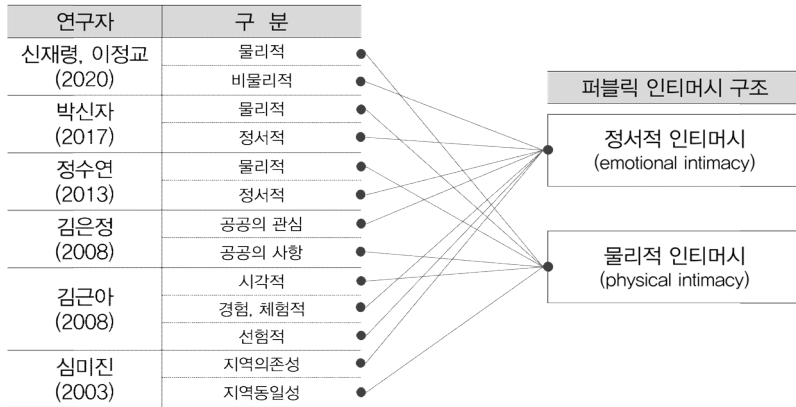
[그림2-2] 퍼블릭 인티머시의 상호작용

2.2.2 퍼블릭 인티머시 구조 및 특성

(1) 퍼블릭 인티머시 형성 구조

퍼블릭 인티머시가 도시 속 다양한 관계 속 영향을 주는 것 이전에 형성되는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퍼블릭 인티머시 구조에 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각 선행연구의 구분과 내용에 따라 매트릭스를 통해 정리하면 크게 물리적 인터머시와 정서적 인터머시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공간에서 사람 간의 상호순환적인 인터머시를 느끼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림2-3]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 구조 선행연구

첫째, 물리적 인터머시(physical intimacy)는 공간에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그 시작은 쾌적성과 연결된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거로 매슬로는 인간의 5단계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위계 구조를 구분하여 인간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⁴⁸⁾ 이에 따라 도시는 보행자거리 정비, 문제 공간 개선 사업 추진, 생태 환경 조성 등과 같이 쾌적한 도시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는 자신이 속한 도시의 상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터머시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 급격한 도시 발전에 의해 구도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빈집, 폐허화 된 일부 지역 등장,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유흥시설 증가 등과 같은 버려지는 도시 공간들이 늘어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다시 일으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던 공간을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⁴⁹⁾과 같이 공

48) pmg 지식엔진연구소. “매슬로의 동기이론”. 박문각, 2022년 07월 14일 접속, www.pmg.co.kr.
 49)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소개하여 범죄심리학에서 시작하였다. 이 법칙은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 경각심을 지니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는 의미이다. 두산백과. “깨진 유리창 이론”. 두피디아, 2022년 07월 14일 접속, www.doopedia.co.kr.

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켜 인티머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인티머시는 도시의 시대 변화와 함께 발전하여 시각적인 개선뿐만 아닌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과 때로는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까지 하는 생태적인 개념이다.⁵⁰⁾

둘째, 정서적 인티머시(emotional intimacy)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분위기를 통해 감성적인 인티머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물리적 인티머시의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한다. 공공건축의 설비 및 설계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심미적 요인을 강화한 감성공간디자인⁵¹⁾ 영역이 현대에 들어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는 것 또한 이러한 도시 내 정서적 인티머시를 향상할 수 있는 이유에 있다. 공공건축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물리적 공간 제공 이상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공간과 도시민 간의 긴밀하게 연결된 유대관계는 주체 의식을 강화하고 공간의 애착심으로 발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물리적 인티머시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공간과 사용자가 인티머시를 느끼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티머시와 정서적 인티머시가 제각기 작용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려하여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2-4] 과정으로서 퍼블릭 인티머시

출처: 박신자, 2017, p.75. 재구성

50) 경수연(2013). op.cit., pp.13-14.

51) 1980년대 말 이후에 인간의 감성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과거 국가, 정부, 건축주, 건축가 등의 생산자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공간을 사용하는 도시민 혹은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건축 및 공간 연구 분야에서도 만족도, 선호도, 사용 후 평가, 브랜드 충성도 등의 키워드가 급부상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초기의 범위는 상업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공공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실내디자인학회, “감성공간디자인”. 기문당, 2009, p.81.

이처럼 물리적 및 정서적 인터머시가 혼합되어 나타날 때 정수연(2013)은 애정(affection), 응집력(cohesion), 신뢰(trust)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했다.⁵²⁾ 따라서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에서 물리적 및 정서적 인터머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연계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퍼블릭 인터머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공건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인터머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

공공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에서 퍼블릭 인터머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공간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머시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을 함께하여 공간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퍼블릭 인터머시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퍼블릭 인터머시에 대해 사회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오르로프스키(J. L. Orlofsky, 1973)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방성, 근접성, 자아존중감, 협동성, 근접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간개념으로 보고자 한 신동재(2004)는 근접성, 친숙성, 유사성, 장소성, 중심성, 명료성, 폐합성으로 정리하였다. 건설교통부(2006)는 시민친화적 관점에서 입각하여 국내 공공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징성, 개방성, 접근성, 탈권위성을 지녀야 함을 구축하였다. 각각 도시 내 공공건축을 한정하여 본 김유중(2007)은 공공행정청사의 공간 범위를 기반으로 활용성, 접근성, 연계성, 인지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김근아(2008)는 도시 환경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생태성, 쾌적성, 통일성, 목적성, 체험성으로 구분하였고, 김은정(2008)은 도시 광장을 보행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장소성, 쾌적성, 공공이익, 상징성, 상호작용성, 경계 모호성으로 구분하였다. 이건오, 이재규(2013)는 일반적으로 개방성, 상징성, 다양성, 정체성, 지속성을 지녀야 하며 더 나아가 이건오(2014)는 개방성, 효율성, 생태성, 심미성으로 추가 정리하였다. 박신자(2017)는 도시가 지녀야 할 기본적 특성으로 새로움, 아름다움, 즐거운, 친밀감, 환경조형성, 연속성, 유동성, 이벤트성, 유희성, 연계성으로 정리하여 감성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신재령, 이정교(2020)는 심미성, 쾌

52) 이광자 외,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2003, pp.106-109.

적성,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참여성, 체계성, 지역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빈도수를 표기하면 다음 [표2-6]과 같다.

[표2-6] 퍼블릭 인티머시의 공간 특성 선행연구

연구자	A	B	C	D	E	F	G	H	I	J	K	L
오르로프스키 (1973)	●	●		●	●							
신동재 (2004)	●	●	●	●				●				
건설교통부 (2006)	●	●	●	●							●	
김유중 (2007)			●	●						●		
김근아 (2008)		●	●		●	●						
김은경 (2008)	●	●	●		●	●						
이건오, 이재규 (2013)	●	●		●								●
이건오 (2014)	●		●			●	●					
박신자 (2017)	●			●	●		●	●	●			
신재령, 이정교 (2020)		●	●		●	●	●					
합 계	7	7	6	6	5	4	3	2	1	1	1	1

A: 개방성, B: 장소성, C: 인지성, D: 접근성, E: 체험성, F: 쾌적성, G: 심미성, H: 친숙성, I: 새로움, J: 지속성, K: 탈권위성, L: 활용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각 연구자가 접근한 공간 범위에 따라 특성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퍼블릭 인티머시를 형성하기 위한 특성 내용은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어, 본 연구자는 확장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경계 모호성, 유동성은 ‘개방성’으로 포함했다. 공간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 중심성, 상징성, 지역성, 정체성, 통일성, 자율성 등을 ‘장소성’으로 귀속시켰으며, 공간의 긴밀한 연결을 높이하고자 하였던 근접성, 연계성, 연속성, 다양성을 ‘접근성’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공간의 참여적 프로그램을 증진하여 사용자의 유대관계를 향상하고자 한 참여성, 상호작용성, 협동성, 유희성 등을 ‘체험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동의어와 같이 나타난 친밀감, 유사성을 ‘친숙성’으로 통일하는 등 중복되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기로 정리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특성은

11개였으며, 빈도수를 표기하였다. 특정 공간 범위 너머의 일반적인 퍼블릭 인터머시가 형성되기 위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 특성 빈도수 중 4개 이하는 그 일반성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 5개 이상의 ‘개방성’, ‘인지성’, ‘장소성’, ‘접근성’, ‘체험성’으로 추출하였다.

• **개방성(openness)**

개방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⁵³⁾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혹은 그에 따른 충분한 기회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행위적 과정을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의 사용자가 다른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도 개방의 한 형태이다. 이를 위해 공간을 가변적으로 설계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대한다. 이러한 개념적 경계의 모호를 나타내 물리적으로는 도시와 공간, 공간과 공간, 정서적으로는 공간과 사람 더 넓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연대감을 증진한다. 이렇게 퍼블릭 인터머시의 개방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공간은 먼저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공간 내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이견오(2014)는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즉,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의 개방성은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사건 혹은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를 수행했을 경우 도시 내 다양한 관계가 정서적 경계의 모호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에 심리적 연대감이 발생할 수 있다.

• **장소성(placeness)**

건축의 기본행위는 어떤 장소의 소명(vocation)을 성찰함에 따라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⁵⁴⁾ 수잔 랭어(Susanne K. Langer)는 건축은 총체적인 환경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추상적으로

53) 이견오, 이재규. “퍼블릭 인터머시를 위한 상호작용적 경험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8, no.4, 2013, p.225.

54) Schulz, C. Norberg, 민경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1996, p.31.

흩어진 장소의 성질을 분류하여 모으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과 건축물 사이에 인터머시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동재(2004)는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장소’의 개념은 하나의 무의미하게 여겼던 공간이 인간과 심리적 작용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소성은 정체성 표현의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 장소감과 장소정신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이다.⁵⁵⁾ 즉, 장소성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이 위치(location)적 관점이 아닌 그곳에 위치하여 가지는 다양한 조건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장소성은 공간, 시간, 인간 사이의 공통점 찾기로 볼 수 있으며,⁵⁶⁾ 인간은 건축물과 공감을 통하여 생명체와 같은 인터머시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이견오, 이재규(2013)는 개성 있는 공간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며, 특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공간의 문화를 상징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동질감을 주어 장기적으로 공간의 역사성까지 확립할 수 있어야 함으로써 상징성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 도시 범위로 확장되어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고, 도시의 장소성까지 강화한다.⁵⁷⁾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의 장소성이란 공간과 사용자 간의 공통적인 정체성 찾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관계 수립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수립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간은 도시, 지역, 위치 등의 다양한 범위 내 본질적인 정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공간을 사용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 친구 관계와 같은 심리적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물리적 흔적을 통해 사용자는 장소성을 연상하는 정서적 특징이 짙게 나타난다.

• 인지성(recognition)

인간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각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연구기관에 따라 그 백분율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인간의 감각기관들이 학습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비중은 미각이 전체의 1%, 촉각이 2%, 후각이 4%, 청각이 10%를 차지하며 나머지 83%가 시각이다.⁵⁸⁾ 이처럼 시각은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이나 공간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성

55) 신동재. 공연장의 ‘인터머시’ 구현에 관한 연구.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33.

56) 이규목.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vol.24, no.94, 1980, p.56.

57) 김은정. 체험을 통한 보행적 광장의 public intimacy 증진에 관한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5.

58) 윤영주. 도시환경에 있어 가로공간의 슈퍼그래픽에 관한 연구: 보도블록을 중심으로. 1999.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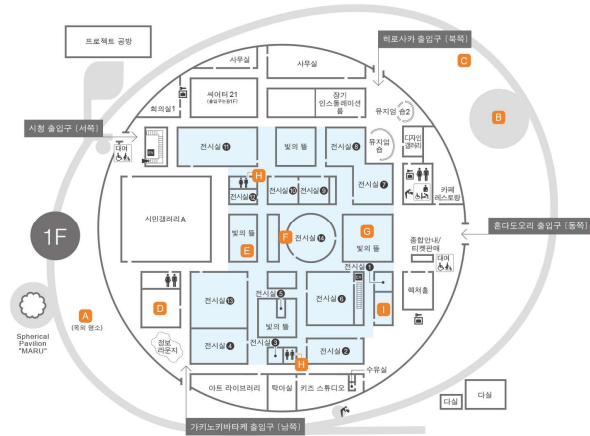
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진오(2004)는 건축공간의 명료한 형태적 요소가 사용자에게 시각적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은정(2008)은 더욱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단순 해당 공간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도시민 그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편리함을 주어야 하므로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퍼블릭 인터머시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공간 제공을 넘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과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⁵⁹⁾ 김유중(2008)은 위와 같은 인지성을 고려하여 퍼블릭 인터머시를 제공하고 한 공간을 국내 공공청사 분석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공간 내부 혹은 외부 광장, 공원과 같은 좁은 범위가 아닌 인지성을 도시 범위로 확장하여 도시민의 시각적 인지와 관련한 랜드마크의 속성까지 지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덧붙여 인지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아직 방문하지 않는 도시민에게도 관계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시각적 접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 눈에 잘 띄는 건물 형태와 높이 등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의 인지성이란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시지각적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이용의 편리함을 주어야 하며, 그 범위 확장에 따라 도시적 랜드마크의 역할로서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 접근성(accessibility)

접근성이란 해당 공간을 진입하기 위해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접근의 경로가 다수를 의미에서 다의적인 성질을 지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유중(2008)은 공공청사에 나타난 퍼블릭 인터머시 접근성은 외부에서 청사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청사건물 대상지 외부 공간, 보행도로부터 대지 내부, 건물까지의 일반인들의 접근을 가능,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 중에서 효과적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방문객(관람객)에게 열린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2-5]의 공간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9) 신재령, 이정교. “폐 산업시설 공간재생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공디자인 계획 특성 연구: 국내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5, 2020, p.16.



[그림2-5]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공간구성

출처: www.kanazawa21.jp/kr

SANNA의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2004)은 접근성을 다수의 출입구를 계획하여 극대화하고자 하고 기존 미술관의 일률적이고 공간의 순서를 관람객이 선택할 수 없는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그들의 동선을 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진입과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을 비선형적인 구조를 통하여 하나의 유닛(unit, 한 개의 공간 혹은 출입구)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간의 자유로운 관람과 관객 간의 참여적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해 건물의 출입구 및 공간과 공간 사이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의 접근성이란 공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공간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자의 경로가 물리적인 막힘이 없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주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고, 남의 것이 아닌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지함으로써 인터머시를 형성한다.

• **체험성(experientiality)**

김근아(2008)는 공공건축에서 경험과 체험은 더욱 적극적인 퍼블릭 인터머시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설명했다. 그는 사적인 공간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공공건축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용자에게 맞춰 그 공간이 지닌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더불어 본래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며 공간의 기대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예로써 공공공간의 카페, 은행, 전시 및 문화공간 등을 들었다. 또한 신재령, 이정교(2020)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관심과 흥미, 동참 등을 유도하여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제공 측면이 아닌 사용자와 소통하는 상호작용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김은정(2008)은 인간과 인간 관점에서 공간의 쾌적성을 통해 사용자는 정서적 만족을 통한 감성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인간과 환경 관점에서 생태학적인 공간 조성에서 발견되는 에코(eco) 상호작용과 인간과 도구 관점에서 신매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상호작용 등의 세부적인 표현 요소가 있음을 설명했다. 박신자(2017)는 이러한 체험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연출된 공공공간과 그리고 공간을 연출하는 공간표현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유도하고, 또한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사회적 가치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의 체험성이란 사용자의 관심, 흥미, 유희, 생태적 교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과 사용자 사이의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이전의 공간을 그저 관망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체험 행위를 통해 경험을 생성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인터머시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퍼블릭 인터머시가 발생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공간이 지녀야 할 특성에 대해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이며 각 의미는 다음 [표2-7]과 같이 정리한다.

[표2-7]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

특 성	내 용
개방성 (openness)	공간 이용에 있어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와 열린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고, 특정 시간-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장소성 (placeness)	공간과 사용자 사이에 공통의 가치 찾기 과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계 수립을 유도하는 것
인지성 (recognition)	공간의 시지각적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인지적 범위 확장에 따라서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까지 수행
접근성 (accessibility)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경로가 물리적 막힘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써 사용에 있어 주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체험성 (experientiality)	사용자의 관심, 흥미, 유희, 생태적 교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고, 경험을 생성하고 직접 및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

2.2.3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터머시의 연계성

공공청사는 시대적 및 사회적 상황에 발맞춰 민감하게 대응하고 발전해왔다. 현 시점의 공공청사는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업무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시민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공청사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방향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적인 활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간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2019)는 기존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양적인 공간 제공이 아닌 공공청사의 진정한 주체인 시민을 위한 시민 친화적 업무환경 개선 시행 구체화함을 언급함으로써 현 공공청사의 패러다임을 시사하였다.⁶⁰⁾ 하지만 현재까지도 ‘열린 공공성’, ‘시민친화’, ‘주민친화’ 등 의미는 같지만, 그 용어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접근하고 있다. 이에 관해 퍼블릭 인터머시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각 공공성을 지닌 여러 공간과 친밀한 관계를 생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현 공공청사의 시대적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

따라서 공공청사 시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도시의 긍정적인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퍼블릭 인터머시적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봄이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의 다양한 관계가 가깝고 친밀함을 형성하였을 경우 앞으로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공청사가 도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3 선행연구

2.3.1 주제어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현대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함에 따라 퍼블릭 인터머시 대입하고 정량화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각 주제어를 중심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각각의 연구 흐름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 및 차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60)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한국 국토교통부, 2019년 7월 3일,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503.

(1) 공공청사 관련 선행연구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발전해온 공공청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자 진행되어 왔다. 그중 본 연구의 관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의 시민문화, 시민개방 등을 위해 시민에게 자유로운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 [표2-8]와 같이 그 내용과 연구 대상 및 방법을 분석하였다.

[표2-8] 공공청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염철호, 임현성 (2010)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지방자치 본청 및 부속기관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간기준 제안
석지운 (2011)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시·구청사	사례연구
서수미 (2013)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정부·지방자치 공공청사	현황조사, 설문조사, 상관관계
김재영 (2014)	공공청사 문화공간의 공간계획 분석	시·구청사	사례연구, 설문조사
강은진, 최상현 (2014)	문화행정의 관점에서 본 공공청사 시민문화공간 공간계획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청사	사례연구, 개선방안 제안
현창용 (2017)	공공청사시설을 통한 권력과 공공성의 구축	정부·지방자치 공공청사	공간분석 및 분석지표 구축
봉혜윤 (2019)	공공청사 공용공간의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시청청사를 중심으로	시청사	사례연구, 디자인제안
류혜지 (2019)	국내 광역시청사의 시민문화공간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광역시청사	사례연구, 공간분석
	국내 공공청사 공간디자인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 시민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청사	현황조사, 사례연구
유종구 (2020)	공공청사 복합화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본청 및 부속기관	사례연구, 디자인 제안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염철호, 임현성(2010)은 공공성의 시대적 전환점 맞이
 에 따라 공공청사 또한 민감하게 공간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의 행정적 조성체계 및 업무 형태에 대한 현황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방자치 청사 및 부속기관을 중심으로 디자
 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알맞은 건축디자인 기
 준의 설정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정리하면 해당 선행연구는 기존 행정 업무만을 담
 당하는 기관으로서 바라보던 공공청사가 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리되어 있지 않던 공공청사에 대한 목표와
 기준 설정의 토대가 된 선도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
 구하고 석지운(2011)은 행정적 업무에 대한 과도한 세분된 공간을 이전과 같이 유
 지한다면 공공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지방자
 치청사 내부공간의 프로그램 복합화를 주장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시·구청사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청사 시설 복합화 제안을 하였다. 더불어 서수미(2013)는 위 선행
 연구에서 접근한 공공성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성
 가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지방자치 공공청사 간의 상관관계를 정
 량적 수치로 도출하기 위해 다중대응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점차 공공청사
 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증함에 따라 김재영(2014)은
 공간 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공자 입장
 에서가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의 중요도 및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인식도 설문을
 통해 정량적 수치로서 시·구청사의 문화 공간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강은진,
 최상현(2014)은 도·시청사의 문화적 특성별 공간을 도출함에 따라 문화공간 형성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공공청사의 행정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의 영역이 함께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창용(2017)
 은 정부·지방자치 청사의 연대기적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공간구성을 도출하기 위
 해 공간구문론에 입각한 공간조직과 가시장분석 및 가시영역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전 시민문화공간의 도입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시점의 공간 도
 입 한계점과 이에 대응한 현실적인 구축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서 열린 의미로서의
 공공청사 목표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봉혜운(2019)은 시청사의 시민문화공간
 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용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하고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청사 내부공간의 디자인 제안을 하였

다. 류혜지(2019)는 2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 배치와 특성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속 가능한 시민문화공간 대입 목적 설정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유종구(2020)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청사의 복합화가 새로운 유형의 등장임을 시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 및 관련 요건, 개선 방향에 대해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지방자치 본청 및 부속기관 복합화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공간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제안했다.

정리하면 시민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청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청사의 민첩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공공청사의 변화는 논의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방안으로서 시민과의 친근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민문화공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둘째, 초기의 선행연구는 공공청사의 주된 기능은 행정업무시설임을 인정하고, 이외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였다. 하지만 점차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기능 거대화에 따라 문화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현실적인 공간구성 및 분석에 대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공청사의 범위는 각 연구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 넷째, 공간적 접근을 위해 공공청사의 기능 및 역할,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현황 혹은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자의 접근 방향에 따라 설문조사로서 정량적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 마련 혹은 공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으로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2) 퍼블릭 인터머시 관련 선행연구

퍼블릭 인터머시는 철학, 사회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용어 정립이 되지 않은 채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국내 각 행정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에서 비롯된 도시민의 친밀감⁶¹⁾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릭 인터머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간과 연결 지어 분석한 선행연구를 그 내용과 연구 대상 및 방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61) 논문 내 '퍼블릭 인터머시'라고 칭한다.

[표2-9] 퍼블릭 인티머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 제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신동재 (2004)	공연장의 ‘인티머시’ 구현에 관한 연구	공연장	사례연구, 공간 정량평가
김유중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구역 계획안 : 공공행정청사의 시민친화성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사례연구, 디자인 제안
김은정 (2008)	체험을 통한 보행적 광장의 public intimacy 증진에 관한 연구	도시 광장	사례연구
김근아 (2008)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티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도시 공원	사례연구, 디자인 제안
정수연 (2013)	주거단지의 공공친화를 위한 자극유인동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단지	사례연구, 디자인 제안
이건오, 이재규 (2013)	퍼블릭 인티머시를 위한 상호작용적 경험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복합 상업시설	사례연구
이건오 (2014)	공개공지의 친공공성을 위한 경험 중심적 공간 연구	공개공지	사례연구, 디자인 제안
박신자 (2017)	심미적 통합환경을 지향하는 도시 공공친화 공간 형성방안에 대한 연구	도시 공원 및 광장	사례연구, 형성전략 제안
신재령, 이경교 (2020)	폐 산업시설 공간재생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공디자인 계획 특성 연구 : 국내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폐 산업시설	사례연구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공간과 인티머시를 최초로 연결 지어 연구한 신동재(2004)는 공연장이 관객과의 연결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티머시’ 개념을 접목하여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 표현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는 인티머시의 요소를 중점으로 계획된 공연장의 경우 단순히 무대, 관람석 등의 작은 단위에서의 연결 그 이상으로 공연장 전체의 각 공간과의 긴밀한 연결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인티머시의 개념이 도시 혹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확장될 것을 시사함으로써 퍼블릭 인티머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티머시를 공공성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던 김유중(2007)은 국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도입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

민친화적 공간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 지방자치청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정부청사 또한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변모해야 함에 따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김은정(2008)은 기존 혼용되어 사용되어오던 퍼블릭 인터머시의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례로서 보행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광장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퍼블릭 인터머시가 도시의 많은 공공공간의 긴밀한 연결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중요한 요소로서 바라보았다. 이를 같이한 김근아(2008)는 도시공원의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이 구별되어 도시 속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퍼블릭 인터머시를 통해 도시 네트워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퍼블릭 인터머시의 표현요소를 위해 디자인 제안을 하였다. 정수연(2013)은 도시 공공영역뿐만 아닌 사(私)적영역 내 공공성 또한 하나의 공공공간임을 주장하면서 주거단지로 범위를 설정해 공공친화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간 계획에 앞서 거주민의 자극유인동기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단지의 친밀감과 네트워크 향상에 관해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건오, 이재규(2013)는 상업시설 공간에서 나타난 방문자의 상호작용적 경험에 따라 나타난 퍼블릭 인터머시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상업시설의 공용공간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는 퍼블릭 인터머시의 공간 표현 특성을 세분화하여 다음 선행연구의 특성 분석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건오(2014)는 앞선 복합상업시설과 같은 사적영역 내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범위로 설정하여 퍼블릭 인터머시를 통해 단순 보행 및 휴식 이외의 보행자 혹은 공간 이용자와 주공간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 기능까지 수행함을 시사하였다. 박신자(2017)는 도시민의 심미적 통합환경을 제공하기 공공친화를 통한 도시공원 및 광장을 공간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는 다양한 예술 및 디자인, 공간 분야가 통합되어 공공친화를 이루어 낼 경우, 그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재령, 이정교(2020)는 도시재생에 있어 그 무엇보다 인터머시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국내 폐 산업시설을 공간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는 사례 연구를 통해 인터머시 특성과 구성을 분석하여 도시적 차원의 개념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터머시가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다양한 차원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으로 접근했다. 둘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대상 범위는 도시적 범

위까지 확대하여 공공성 개념을 지닌 다양한 공간이 대입할 수 있다. 셋째, 비교적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퍼블릭 인터머시의 효과 및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 혹은 표현 특성을 보았다. 이를 위해서 각 연구가 설정한 공간 범위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의 경우 디자인 제안으로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시도하였다.

2.3.2 연구의 차별성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반응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청사는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현시대가 도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청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현재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기능을 확대하고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우선시하였다. 하지만 공간의 기능 활성화 측면만 부각하고 있을 뿐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공간 디자인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에게 공공청사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형성된 시민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퍼블릭 인터머시 관계 맺음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간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퍼블릭 인터머시는 앞서 고찰한 개념과 같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다양한 도시 공간에 대입 가능하여 공공청사 또한 연구 가능성을 지닌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범위는 외부 공간, 문화공간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공건축 영역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퍼블릭 인터머시는 사회심리학을 기초로 둔 추상적 성격이 짙음에 따라 건축 및 공간과 결합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례연구의 과정을 통해 공간 특성 및 표현 요소 분석에서만 그치는 실정이다. 공공청사와 관련해 일부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공간디자인 기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공공청사는 주로 단독적인 공간 방향 마련 혹은 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후 국내 공공청사 현 상황에 대한 파악과 도시민에게 퍼블릭 인터머시를 제공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자세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퍼블릭 인터머시와 결합하고 시민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에 관한 정량적 공간 평가항목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하여 차별성을 지닌다.

제3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3.1 국내 공공청사 현황 이해

3.2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3.3 선행자료 분석

제3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3.1 국내 공공청사 현황 이해

3.1.1 공공청사의 현황 및 공간

국내 공공청사의 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2022)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을 통해 국내 행정구역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국내 행정구역 현황⁶²⁾

구 분		시·군·구				읍·면·동				
		시	군	구	계	읍	면	동	계	
특별시	서울	-	-	25	25	-	-	426	426	
	광역시	부산	-	1	15	16	3	2	200	205
		대구	-	1	7	8	6	3	133	142
		인천	-	2	8	10	1	19	135	155
		광주	-	-	5	5	-	-	97	97
		대전	-	-	5	5	-	-	81	81
		울산	-	1	4	5	6	6	44	56
특별자치시	세종	-	-	-	-	1	9	12	22	
도	경기	28	3	-	31	38	203	419	559	
	강원	7	11	-	18	24	95	74	193	
	충북	3	8	-	11	16	81	51	153	
	충남	8	7	-	15	25	136	47	208	
	전북	6	8	-	14	15	144	84	243	
	전남	5	17	-	22	33	196	68	297	
	경북	10	13	-	23	38	200	92	330	
	경남	8	10	-	18	21	175	109	305	
특별자치도	제주	-	-	-	-	7	5	31	43	
계		75	82	69	226	234	1,178	2,103	3,515	

주: 9개면(면사무소 없음): 경기 파주시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강원 철원군 근북면, 근동면 외 주민 미거주 혹은 출장소으로 대체함. 위 표는 현황 중 출장소는 제외한 수치.

62)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2, 보고서번호: 11-1741000-000094-10, p.4.

위 표에 따르면 특별시는 서울로 1개, 특별자치시는 세종으로 1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로 1개와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으로 6개이며, 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8개이며, 그에 부속된 시는 75개이다. 이하 하위 행정은 군은 82개, 구는 69개이며, 읍·면·동은 총 3,5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별표 1」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 시행과 과도한 규모의 청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설규모 및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 공공청사 기준 면적인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부 용도의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면적에 제외되는 공간은 지하주차장·지하주차시설, 재난상황실 등의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청소년활동시설·전시실·공연장·노인복지회관·문화강좌실 등 시민편의에 사용되는 문화공간에 대한 면적 또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 기준 면적은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국내 지방자치 본청 청사 기준 면적⁶³⁾

구 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계속)

63) 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제1호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7월 29일 접속, www.law.go.kr.

[표3-2] (계속)

구 분		기준면적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국내 지방자치 도·시청사의 소재지와 해당 면적, 이하 군·구청의 수를 파악하였다. 국내 지방자치 본청 소재 17개이며, 이하 시·군·구청사의 소재는 226개로 앞서 파악한 행정구역에 따라 각 구역 당 공공청사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재지 및 해당 면적, 이하 행정구역의 청사 보유 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3-3]과 같다.

[표3-3] 국내 지방자치 본청 청사 현황⁶⁴⁾

구 분	소재지	해당 면적	이하 시·군·구청 수
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26,884㎡	25
광역시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67,117㎡	16
	대구 중구 공평로 88	40,672㎡	8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36,532㎡	10
	광주 서구 내방로 111	37,433㎡	5
	대전 서구 둔산로 100	36,235㎡	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36,106㎡	5
특별자치시	세종 한누리대로 2130	20,179㎡	(행정구역 없음)
도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57,214㎡	31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28,957㎡	18

(계속)

64)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2)'와 '2020년 지방청사 면적 현황(20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3-3] (계속)

구 분	소재지		해당 면적	이하 시·군·구청 수
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22,359㎡	11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1,666㎡	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8,681㎡	1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8,951㎡	2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41,679㎡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44,119㎡	18
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6	30,720㎡	(행정구역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 행정구역에 따른 공공청사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수많은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접근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며, 공공청사의 수는 국내의 공공건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 한 노후 공공청사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조정과의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835개에 해당하며 전체 공공청사의 14.1%를 차지하고 있었다.⁶⁵⁾ 현재 시점으로는 그 수는 더욱 증가하여 노후 공공청사 공간적 대책 마련 또한 중점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표3-4] 청·관사 보유현황(2015년 기준)

구 분	국유건물				임차건물	합 계
	30년 미만	30~35년	35년 이상	소 계		
청사수(개)	4,293	396	439	5,128	778	5,906
면적(천㎡)	10,423	843	1,128	12,403	736	13,139

정리하면, 공공청사는 도시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기반시설이며 시대적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된 공공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공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시대적 공공청사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수립을 위해 다가가고 있음에 퍼블릭 인티머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비교적 행정구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다양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특별시·광역시·도·시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65) 유종구(2020). op.cit., p.10.

3.1.2 현황 조사

국내 공공청사는 세분화 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많은 공공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에 따른 행정 구역당 1개의 공공청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표적인 행정시설뿐만 아닌 도시민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까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중 최근 3년 이내 개보수(리모델링)⁶⁶⁾을 하여 효과적인 시민문화공간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한 퍼블릭 인터머시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선정된 사례는 [표3-5]와 같다.

[표3-5] 현황조사 대상

사례명	개관연도	공간 조성연도	면적
오산시청사	2001.09.13	2021.06.18	15,564㎡
대전광역시청사	2000.01.06	2021.11.08	36,235㎡
세종특별자치시청사	2015.07.01	2022.03.15	20,179㎡
부산광역시청사	1998.01.20	2022.09.20	67,117㎡

현황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사례조사 대상의 기본적인 개요를 파악한다. 개요에는 사례 명칭, 위치, 개관연도 및 조성연도, 연면적, 규모, 공간 이미지를 조사한다. 여기서 개관연도는 해당 청사 전체의 개관연도에 해당하며, 조성연도는 해당 공공청사가 도시민을 위해 시민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선보인 시점에 해당한다. 해당 공공청사의 물리적 범위 이해를 돕기 위해 연면적과 규모를 조사한다. 공간 이미지는 공간의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조사를 통한 공간 사진을 첨부한다. 둘째, 공간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공공청사의 시설안내도 및 현장 방문,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청사안내 내용을 통해 조사한 공간 현황을 파악한다. 다만, 일부 고층 형태로 인해 시민문화공간 이외 행정업무 시설의 비중이 과도한 경우 본 연구의 편집상의 이유로 인해 축약 및 요약한다. 셋째, 시민문화공간을 통해 발전된 퍼블릭 인터머시에 대해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66) 염철호, 임현성(2010)은 청사 건립에 드는 과중한 비용과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사 개보수 방안이 등장함에 따라 공사 기간의 단축, 공사비용의 절약, 시민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일부 공공청사의 행정구역 확대 등에 따른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청사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증설이 아닌 기존 보유하고 있던 로비, 시민문화공간 등의 개보수를 통해 좀 더 퍼블릭 인터머시를 위해 다가가고자 한 사례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이 아닌 개보수(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염철호, 임현성.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보고서번호: AURI-기본-2010-2, p.33.

(1) 오산시청사

경기도 오산시는 1989년 1월 1일 오산시로 승격된 후 1995년 4월 20일 평택군 일부를 편입하여⁶⁷⁾ 지금의 관할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오산시는 관련 행정구역의 업무 및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01년 9월 13일에 개청하였다. 오산시청사는 다른 행정구역 공공청사와 같이 행정 업무와 대민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관이었으나, 2021년 6월 18일에 자연생태체험관과 연계한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청사에 있던 임시주차장 80면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만들었다.⁶⁸⁾ 또한 자연생태체험관은 (주)오산버드파트가 총 85억원 투자하여 완공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오산시는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해주어⁶⁹⁾ 민간투자자와 시청의 협력으로 열린 시민문화공간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표3-6] 오산시청사 개요

명칭	오산시청	위치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개관연도	2001.09.13	조성연도	2021.06.18
연면적	39,676㎡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이미지			
			

67) 두산백과. “오산시청”. 두피디아, 2022년 07월 30일 접속, www.doopedia.co.kr.

68) 이지. “오산시청사,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단장”. 코리아포스트, 2021년 06월 09일, 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9.

69) 오산시.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오산시 공식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2020년 09월 29일, blog.naver.com/osan_si/222102835173.

[표3-7] 오산시청사 공간 현황

위 치	주요기능	공 간
5층	의회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부의장실, 의장실, 전문위원실, 차량 지원실, 본회의장,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제3회의실, 문서고 및 의원휴게실, 옥상정원
4층	행정	주택과, 농축산정책과, 가족보육과, 정보통신과, 안전정책과, 도로과, 정보화 교육장, 전산작업실, 문서고, 송고실, 공조실
3층	행정	체육관광과, 식품위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과, 방송실, 홍보 담당관, 감사 담당관, 상설 감사장, 공조실, 대회의실
2층	행정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국장실, 회계과, 평생교육과, 국장실, 시장실·부시장실, 기획예산담당관, 물항기실, 상황실, 공조실
1층	민원·행정	안내데스크, 무한돌봄센터, 농협시청지점,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희망복지과, 도시정책과, 당직실
지하1층	관리·공용	체력인증센터, 비상종합상황실, 청사관리원실, 공무원노조, 시기동대, 차량민원실, 매점, 구내식당, 기계실, 전기실, 통계작업실, 자재창고, 종합문서고, 주차장
외부	시민문화	시민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주차장 + (민관협력)자연생태체험관

오산시청사는 자연생태체험관을 본청 매스 옆면에 증축하고, 본청 민원실과의 동선 연계를 위해 시민광장과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여 시청사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내·외부의 심리적 경계감을 낮추고자 하였다. 시청사를 진입하기 위한 외부 공간에서 인위적인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방면에서 시청사로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오산시는 2021년 8월 27일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⁷⁰⁾에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8번째, 경기도에서는 1번째로 등록됨에 따라 도시민 중 아동을 대상으로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⁷¹⁾ 이러한 이미지를 도시에 주기 위하여 시청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연생태체험관의 외관을 투명하게 마감하여 이용하지 않는 도시민이나 도시 방문자에게도 어린이 친화적 목적에 맞는 도시 장소성을 높게 나타냈다. 특히 어린

7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s)는 1996년 이스탄불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시작되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시작하였다. 이에 유니세프가 구성한 인증 절차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10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www.childfriendlycities.kr.

7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오산시, 전국 8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017년 06월 01일, www.childfriendlycities.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7&stx=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8%A4%EC%82%B0&sop=and.

이 물놀이장은 ‘자이언트 트리(Giant Tree)’의 테마를 표현해 테마파크형 놀이터를 설치했다. 더불어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가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해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도시민의 주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체(공공청사) 차원에서의 공간 제공하는 측면만 구성되어 있어 개방성은 비교적 낮다. 더불어 시청사 인근의 학원가 밀집지역과 연계하여 어린이가 도보 10분 이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청사의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민원실과 다른 시청사 내부 공간에서의 접근성은 출입구의 멀티 레이어(multi-layer)로 인해 내부공간에서의 접근성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사 출입구 전면에 위치한 민원실에 비해 로비와 메인 코어(core)는 거대한 필로티(piloti) 구조로 인해 비교적 안쪽에 위치하고 그 동선을 가로막은 출입구가 많아 도시민이 시청사의 구조나 공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산시청사는 오산시가 수립하고자 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력 방식의 자연생태체험관 등을 기부채납 받은 후 시청부지 무상제공이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선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 물놀이장과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유도 등 외부공간에서의 장소성, 접근성, 체험성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산시청사 내부에 시민문화공간이 부족하고 민원실로서 접근이 폐쇄적이어서 내부공간으로서의 물리적 접근성, 인지성, 개방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본다.

(2) 대전광역시청사

대전광역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1949년 8월 15일에 개청하였다.⁷²⁾ 현재의 시청사는 1993년 1월 설계안 공모 및 설계 완료 후 2000년 1월 6일에 개관하였다. 시청사의 특징은 울타리 없이 24시간 개방된 시민의 장소로 시작하여 시청광장, 잔디광장, 시민광장, 소공원 등의 시청사의 옥외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시청사 내부의 문화 및 정보 이용공간인 공연장, 전시실, 홍보 및 열람실, 시민홀, 은행, 문구점 등을 조성하여 열린 시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⁷³⁾

72) 두산백과. “대전광역시청”. 두피디아, 2022년 07월 30일 접속, www.doopedia.co.kr.

73) 대전광역시청, www.daejeon.go.kr.

[표3-8] 대전광역시청사 개요

명칭	대전광역시청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개관연도	2000.01.06	조성연도	2021.11.08
연면적	78,011m ²	규모	지하2층, 지상21층
이미지			

[표3-9] 대전광역시청사 공간 현황

위치	주요기능	공간
21층	관리	공조실
20층	시민문화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 고시편집실, 의무실, 다운숲, 여직원휴게실, 하늘마당
19층~4층	행정	(3~19층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속과 및 실으로, 본 연구의 편집상의 이유로 요약)
2층	민원·관리 및 시민문화	시민라운지, 기자회견장, 기자실, 민원접견실, 미팅룸, 의회연결통로, 통합민원과, 협력관, 자문관, 문서고, 행정도우미실, 수유실, 직장마을금고, 하늘도서관, 시사편찬위원회
1층	관리 및 시민문화	전시실, 청원경찰실, 차량관리실, 중앙제어실, 홍보관,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농협, 이발소, 구두관리실, 당직실, 구내식당, 하나은행, 공무원노보시지부, 지역상품판매장, 매점, 문구점, 여행사
지하1층	관리·공용	주차장, 청사관리공무직대기실, 발간실, 문서고, 경보통제소
지하2층	관리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대전광역시청사는 기존 2000년에 열린 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청사의 내부와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광장, 공원 등을 조성하였지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자체의 동선이 길어져 실질적인 청사로서의 접근성은 낮다. 또한 내부공간에는 직원복지시설 관련 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시민 라운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 20층에 해당하던 어린이 도서관으로 대전의 전경은 조망할 수 있으나 심리적 접근성이 낮았던 하늘도서관을 2층으로 이전하여 청사 내부공간에서도 도시민이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통합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청사는 시민문화공간을 1, 2층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도시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민원실을 2층에 두어 민원업무 목적을 가진 도시민이 자연스럽게 시민문화공간을 마주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드높였다. 또한 1층은 광역시청 주관 박람회 같은 이벤트 기능으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도서관의 기능을 함께하는 시민 라운지와 어린이 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는 하늘도서관은 1층부터 4층까지의 보이드(void) 공간 옆에 두어 개방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공간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성을 높였다. 하지만 광역시청사는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민원업무 공간 이외 3층 이상 업무공간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지 않아 기존 20층에 위치한 하늘마당, 다운타운에서 대전광역시의 전경을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혹은 대전광역시청만의 정체성 표현보다는 각 공간이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각 공간이 이루어진바 비교적 장소성은 부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청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지만, 내부공간에서의 1~2층에 시민문화공간을 양편에 분산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보이드 구조를 활용하여 각각의 공간을 물리적·정서적 마주침을 빈번하게 하여 인지성을 높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집중해 대전광역시의 정체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5년 7월 1일에 개청하였다.⁷⁴⁾ 세종시는 2021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책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청사 내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조성하였다. 기존 세종시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에서 시민 1인당 이용하는 평균 독서권 수가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독서 문화의 중심지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수도로 발전하면서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을 확충 필요성을 가졌고, 시청 일부 공간을 시민들

74) 위키백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위키백과, 2022년 12월 04일, [ko.wikipedia.org/wiki](https://ko.wikipedia.org/wiki/세종특별자치시청).

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독서와 출판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시청사 내 책문화센터는 2곳으로 4층 중정이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1층 행정자료실은 출판문화 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⁷⁵⁾

[표3-10] 세종특별자치시청사 개요

명 칭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개관연도	2015.07.01	조성연도	2022.03.15
연면적	20,179㎡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외 외부청사
이미지			

[표3-11] 세종특별자치시청사 공간 현황

위 치	주요기능	공 간
6층	행정	시민안전실장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사회재난과, 교육지원과, 중회의실, 영상회의실, 청문장, 장육진기념관건립TF,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장실, 청문장,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대응예방과, 특사경지원검사실, 국제관계대사실, 소방본부장실, 소방행정과, 고시편집실,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5층	행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소회의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장실, 접견실, 세종실, 대회의실, 운영지원과, 다운실, 시장실, 비서실장실, 간부회의실, 행정부시장실, 경제부시장실, 도화원, 정책특별보좌관실, 대외협력담당관

(계속)

75) 권혁선.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개소식…시청사 710㎡에 독서심터·출판문화체험 공간 조성”. 대전인터넷신문, 2022년 03월 10일, daejeonpress.co.kr/m/view.php?idx=48515.

[표3-11] (계속)

위 치	주요기능	공 간
4층	행정 및 시민문화	여민실, 강당, 보건복지국장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청년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과, 세원관리과, 참여공동체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장실, 중회의실, 노인장애인과, 아동보호상담실, 세종책문화센터
3층	행정·공용	직원식당, 체력단련실, 주정차상황실, 중회의실, 미래전략본부장실,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능형도시관
2층	행정	세종시지역대, 대변인, 정보통합센터, 정보통합센터 관제실, 스마트워크센터, 정보통계담당관, 민주평통세종지역회의, 기자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통계작업실, 직원단체사무실, 차량관리실, 전산교육장, 종합방송운영센터, 정음실, 브리핑실, 대변인 사무실
1층	행정·민원 및 시민문화	세정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회계과, 당직실, 방재센터,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수유실, 매점 및 카페, 세종책문화센터
지하1층	관리	구두수선실, 기록관, 충무상황실, 지하주차장

4층에 해당하는 중정은 민원실 및 다른 행정업무 공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로 1층에 비해 일반적인 접근성은 낮지만, 시청사의 메인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여 시청사를 이용하는 도시민에게 투명한 개방감을 제공하여 전체 시청사의 책 문화에 관한 문화홍보의 기능으로서 인지성을 높게 표현하고 있다. 앞서 부족한 접근성은 1층에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이 해당 시민문화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마련하고, 프로그램 체험 후 4층 메인 공간을 홍보함에 따라 특별한 민원 및 행정 업무의 목적 없이도 개방된 시민공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집객의 역할을 수반하고 있어 체험성을 나타냈다. 또한 청사 내 시민문화공간과 관련되지 않는 공간 및 코어에도 한글문화와 관련된 마감재나 장식적 요소를 마감하고 있어 시청의 시각적 인지성을 높였다. 이러한 세종시가 추구하는 문화 콘텐츠 공간 마련과 세종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인 ‘독서’를 중심으로 청사 내 열린 시민공간을 제공하여 퍼블릭 인터미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4) 부산광역시청사

부산광역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1963년 1월 1일 개청하였다.⁷⁶⁾ 시청사는 연제구 연제동으로 1998년 1월 20일에 이전 개관하였다. 이후 민

76) 두산백과. “부산광역시청”. 두피디아, 2022년 10월 15일 접속, www.doopedia.co.kr.

원 및 행정 업무공간 이외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하여 부산미래도서관, 국제교류전시관, 전시실, 하늘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⁷⁷⁾ 부산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2021년 시범 사업지 11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신규사업지 17개소와 시청 1층 열린도시관 등에서 추가로 조성하여 2030년까지 부산시 전역에 5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주 이용 대상인 어린이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부산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모듈식 적용 방법으로 도서실, 영어 존(English Zone), 과학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체험, 증강현실·가상현실 존(AR·VR Zone), 상담실, 창작실, 강의실 등 공간을 조성하였다.⁷⁸⁾ 접근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청사 1층에 조성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닫힌 시청사가 아닌 남녀노소 모두에게 개방된 시청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3-12] 부산광역시청사 개요

명 칭	들락날락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개관연도	1998.01.20	조성연도	2022.09.20
연면적	67,117㎡	규 모	지하3층, 지상26층 외 시의회, 경찰청
이미지			

77)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78) 정현이.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부산시청, 2022년 06월 27일, www.busan.go.kr/nbtnewsBU/1532130.

[표3-13] 부산광역시청사 공간 현황

위 치	주요기능	공 간
26층	행정·공용	체력단련실, 탁구장, 단전호흡실, 샤워실, 부산·후쿠오카경제협력사무소, 도시균형발전실, 시민안전실, 공조실
25층~5층	행정 및 관리·공용	(5~25층까지 행정업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속과 및 실으로, 본 연구의 편집상의 이유로 요약)
4층	행정·공용	실내온실, 부산정보고속도로망운영센터, 정보화담당관실, 방송실, 빅데이터통계과, 직원 종합 건강 증진실, 쉼터, 총무과, 종합통신센터
3층	행정 및 시민문화	열린도서관, 금융정책보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 국민은행, 감염병관리과, 구내식당, 회의실
2층	민원 및 시민문화	통합민원과, 휴게실, 전시실, 부산은행, 부산시 120 바로 콜센터
1층	공용 및 시민문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부산미래도시관, 4D 영상관, 국제교류전시관 우체국, 보험사, 무료법률, 시민접견실, 공무원 매점, 청경 대기실, 민원인 접견실,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대강당, 대회의실
지하1층	민원·관리	부산광역시기록관, 기록물관리실, 열린상담실, 주차장
지하2층	관리	주차장
지하3층	관리	주차장
외부	시민문화	야외 시민광장,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부산광역시청사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1층 로비와 시청 내 지하철 출입구 사이에 배치하여 이용객의 시각적인 홍보 및 접근 용이성을 통해 물리적·정서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제공하고 있던 부산미래도서관, 국제교류전시관, 전시실 등의 프로그램 연결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도슨트 배치 및 견학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체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각 공간 내부에도 프로그램 이용과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배치하였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내에서도 자율독서를 넘어 다양한 독서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교육, 전시, 이벤트 등을 체험에 기반한 활동을 운영하면서 정서적 개방감을 넓히고 부산광역시청이 계획한 부산시 전역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도사례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청은 기존 성인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시청사의 이용 대상을 어린이로 한정하여 그에 알맞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시 전역의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 장소성 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청사는 미래의 부산광역시 주체인 어린이를 대상

을 시청사의 주된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 수동적인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장소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각 공공청사 내부공간에 보유한 시민문화공간과 연계를 높여 개방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하였다.

3.2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앞서 분석한 현황조사와 같이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관계의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조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모두가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청사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위 현황 조사를 참고하여 공공청사의 시민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접근하고, 공공청사의 프로그램 차원으로 세분화하고자 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3-14]와 같다.

[표3-14] 공공청사의 일반적인 공간구성

사용자	구분	기능	프로그램	공간구성
직원	행정	행정추진과 통계를 담당	행정	기관장실, 행정지휘실, 기획 상황실, 기타 행정업무 담당의 실·과·국 사무실 등
	의회	입법, 의결, 행정감시 기능		의장실, 의회사무실, 의사당, 법률자문감사, 도서자료실 등
	복지	직원 업무의 질 향상	복지 휴게	보건실, 지원실, 탁아실, 체력단련실 등 휴게실, 라운지, 수유실, 탕비실 등
시민	내부	시민의 민원 업무처리, 홍보, 교육 기능	업무	민원실, 문서고, 상담센터, 시민홀 등
			홍보	관광 안내소, 지역 정보 자료실, 지역 홍보관, 지역 기념품 판매점 등
	시민 문화	지역주민의 교육, 집회, 오락, 휴식기능	예술	전시장, 무대시설, 극장 등
			교육	교육실, 강연장, 강의실, 도서관 등
			휴게	식당, 카페, 매점 등
기타	다목적실, 회의실 등			
외부	집회, 오락, 휴식, 공간과의 연결 기능	개방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무대 등	
기타	공용, 관리	공용	아트리움, 로비, 계단, 안내데스크 등	
		관리	설비관리실, 주차장, 당직실 등	

주: 강은진, 최상현(2014), 김재영(2014), 봉혜윤(2019)의 내용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가 시민을 위해 친밀한 태도의 공간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청사 소속 직원이 이용하여 일반적인 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업무공간과 시민을 위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간부터 복지, 문화 등의 공간까지의 시민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시민공간에는 크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나뉘며 내부공간은 각각 시민의 민원과 그에 관련한 업무처리, 홍보,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민공간과 직원 업무의 질 향상 및 시민 쉼터로서 복지공간, 이외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문화공간이 있다. 외부공간은 시민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며 비교적 활발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큰 규모의 인원이 모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청사에 진입하기 이전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공공청사의 내부공간으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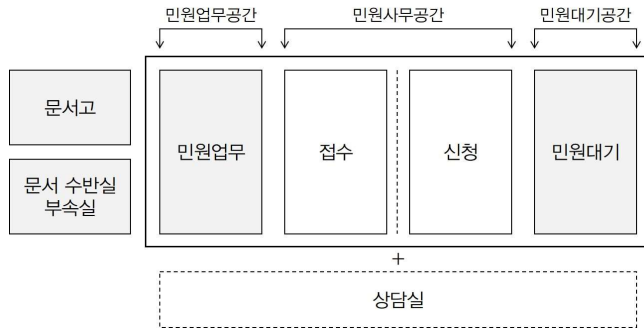
• **대민 업무 및 홍보공간**

청사 내부공간 중 시민과의 직접적인 마주치고 그들과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적 성격이 주된 공간이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민원실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를 처리해주고 시민의 생활정보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민원의 기능은 크게 민원·여권, 부동산, 자동차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종합민원과 세금 및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민원 그리고 건축민원으로 구분된다.⁷⁹⁾ 일반적으로 종합민원실의 경우 도시민의 청사 방문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서 청사 지상 1층에 배치하여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앞서 현황 조사와 같이 지상 2층에 배치하고 지상 1층에는 시민문화공간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를 계획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현창용(2017)과 김현태(2021)는 시대적 대민 업무 공간의 접근성 측면에서 그 변화가 뚜렷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민원실의 공간구성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민원 업무공간, 민원 사무공간, 민원 대기공간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⁸⁰⁾ 민원업무의 자료를 보관하는 문서고와 민원과 관련된 시민 상담실을 인근에 배치하여 업무 동선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한다.

79) 김현태. 자치구 구청사의 시기에 따른 민원실 변화에 관한 연구. 2021.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7.

80) 김현태(2021). *ibid.*, p.18.



[그림3-1] 민원실의 공간구성

이외에도 지역홍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련된 지역 관광 안내소, 지역 정보 자료실, 지역 홍보관, 지역 기념품 판매점 등을 구성하고 민원실과 관련된 동선에 배치하여 해당 지역적 정보 및 역사 등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조사 중 부산광역시청사의 도슨트 프로그램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이외 별다른 홍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공간 조성에만 국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민업무 및 홍보공간은 민원실을 중심으로 방문자의 접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으며, 이용률에 따라 시민문화공간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다소 그 영향이 부족해 활성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더불어 퍼블릭 인터머시를 증진해야 한다.

• **시민문화공간**

강은지, 최상현(2014)은 시민문화공간에 대해 공공청사의 내부 또는 외부에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넓은 의미로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공간이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돕고 각종 기념행사,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 기능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시민문화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를 참고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시민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표3-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지정 사항⁸¹⁾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내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품감상실, 비디오품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품소극장에 한정한다.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바. 사진관, 표구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금융업소에 한정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81) 법제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8월 02일 접속, www.law.go.kr.

[표3-15] (계속)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단,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단, 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13. 운동시설

단,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하 생략)

이와 같은 규정 사항을 기반으로 시민문화공간은 다양한 예술, 교육, 휴게 등의 문화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등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부산광역시청사의 경우 전시장 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진흥을 돕고자 하였다. 다양한 예술작품의 전시 및 보다 많은 예술 단체(개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1회당 7일 이내 대관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 대상은 영리, 종교,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제1전시실(234㎡), 제2전시실(162㎡), 제3전시실(305㎡)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공간 배치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3-2] 부산광역시청사 전시장 안내도

출처: www.busan.go.kr/bhexhibition01

• 외부공간

공공청사의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을 진입과 방문하기 이전의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공간으로서 접근 용이성과 개방성을 고루 갖춘 공간이다. 또한 내부공간의 연결로서의 전제공간뿐만 아니라 복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집회,⁸³⁾ 야외 공간 제공뿐만 아닌 야외공연장·어린이 놀이터·파고라·벤치·기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오락 및 휴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잔디광장·소공원·산책길·조형물·지역 상징 식재 설치 및 기타 조경 등을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청사의 설계지침을 분석한 염철호, 임현성(2010)은 이와 관련하여 전체 녹지와 연계 및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로와 상호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단순 조성적 측면이 아닌 내·외부 공간과의 연계, 청사 진입 및 외부공간 이용에 대한 동선 체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부공간에서 나타나는 시민문화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시 혹은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상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산시청사의 외부공간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터는 [그림3-4]와 같이 기존 어린이 놀이터에 물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놀이장 개장 시 임시 여아 및 남아 탈의실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 민원공간과 로비 사이에 개방 화장실을 두어 비교적 안쪽에 있어 외부공간에서의 동선이 길게 나타난다.



[그림3-4] 오산시청사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하절기 모습

출처: 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569

83) 강은진, 최상현(2014). *ibid.*, p.176.

따라서 야외공간은 기본적으로 내부공간과의 접근 용이성과 개방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집회 및 오락, 휴식, 자연환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계획뿐만 아니라 연계 외부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야 하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배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개방 화장실과 같은 공용시설이 내부공간 동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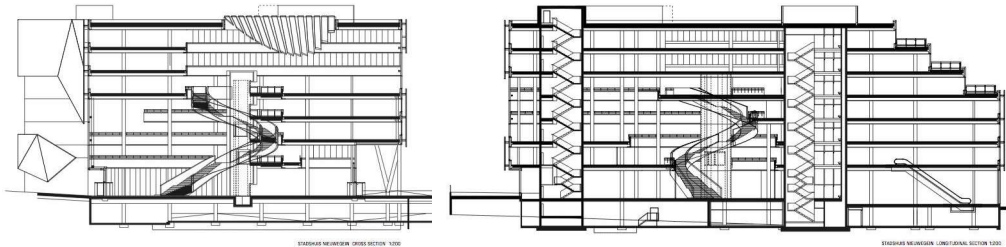
공공청사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전용 공간과 시민을 위한 대민 업무 공간 및 시민문화공간 이외에도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맡는 공간이다. 공용공간은 아트리움, 로비, 계단, 안내데스크, 중정 등으로 직원과 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통의 공간이자 건물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공공청사 이용에 편의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업무 및 관람, 체험 등의 목적 없이 방문한 시민들이나, 관광적 차원에서의 타지역들에 도시 이미지 혹은 청사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매개공간(媒介, intermediate space)’의 기능을 수반한다. 매개공간은 내·외부 혹은 공간 사이의 구분 짓는 행위에 반대 개념으로서,⁸⁴⁾ 형태, 특성, 기능이 다른 공간을 연결하거나 공간 사이에 위치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등의 주기능 공간에 이르기까지 전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계가 다른 공간 간에 각자의 위계성을 침범하지는 않지만 매개공간 자체에서 유연한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⁸⁵⁾ 공공청사의 큰 단위로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업무공간과 문화공간 간의 연결도 짓지만 작은 단위로서 문화공간 사이 간의 원활한 연결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현창용(2017)은 현대 공공청사의 탈권력적 공간구성과 열린 공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필수시설 이외의 아트리움 및 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Nieuwegein) 시청사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형성된 아트리움은 공간의 유연한 소통 수단을 제공하며, 업무공간과 시민공간의 경계 모호해지는 통합공간으로서 자율성이 보장된 열린 공간 경험을 부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84) 정현돈. 복합시설 기능간의 완충 및 활성화를 위한 매개공간에 관한 연구: 용인시 흥덕지구 구 아모레퍼 시픽 부지를 중심으로. 2012.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29-31.

85) 오동현. 매개를 통한 공간의 확장에 관한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4.



[그림3-5]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Nieuwegein) 시청사
출처: www.archdaily.com/220899



[그림3-5]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Nieuwegein) 시청사 단면도
출처: www.archdaily.com/220899

따라서 로비, 안내데스크 등의 공용공간은 시민이 처음 방문하여 마주하는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첫인상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 확대됨에 따라 청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청사 출입구 인근에 함께 배치해 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용공간을 통해 공공청사가 부여하고자 하는 이미지 혹은 지역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 안전과 관련된 필수시설 이외의 공용공간 및 시설은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 디자인 표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 선행자료 분석

3.3.1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도시디자인이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지표로 떠오르면서 여러 유형의 도시공간 환경의 질적인 측면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지닌 영역의 통합적인 디자인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등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공공청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주로 공공건축물에 포함되며 외부경관 개선과 공간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⁸⁶⁾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을 분석하기에 앞서 공공청사의 디자인 방향 및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행자료를 바탕으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선행자료는 공공청사와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한정하여 조사한다. 그중 일부 행정구역에 따라 공공청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수립 예정인 것은 제외하였다. 각 행정구역의 가이드라인 조사를 통해 퍼블릭 인티머시 관점에서 재정리하며, 종합적인 소결로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한다.

[표3-16]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구 분		년 도	담당과	제 목
특별시	서울	2017.02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ver 3.0
	부산	-	-	(색채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광역시	대구	2019.12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	2017.04	도시디자인단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광주	2019.12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대전	2017.04	건축경관과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울산	-	-	(색채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특별자치시	세종	-	-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수립)
도	경기	2020.01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강원	2019.01	건축과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계속)

86) 이규철 외(2016). op.cit., pp.59-60.

[표3-16] (계속)

구 분	년 도	담당과	제 목	
도	충북	2009.07	건축디자인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2020.07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전남	2014	건축개발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북	2009.09	건축지적과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경남	-	-	(일반 및 특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
특별자치도	제주	2017.12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 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08년 1차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울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맞는 비전, 목표, 원칙 등을 발전시켜왔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혹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그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시작은 크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야간경관 5가지로 구분하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으로 기존 야간 경관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세분화하였다. 최근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을 마련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중심의 대상 및 분야가 제외된 항목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였지만, 공공청사에 대한 내용은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 3.0」를 기준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표3-17]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원칙⁸⁷⁾

<p>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인 이미지를 지양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 권위적 담장을 허물고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 지향 -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쾌적한 서비스로 배려하는 공간 조성 - 기능·성장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지향 환경 조성 -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장려
<p>공공건축물 디자인 10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확보

(계속)

87)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서울특별시, 2017, p.55.

[표3-17] (계속)

-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춤
-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
-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
-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계획을 정립
- 건축대지 내 보행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
-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계획을 유도
-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

위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누구든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디자인과 함께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은 기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시민 누구나 공공의 영역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친근한 관계 형성이라는 독자적인 방향 설정으로 무작위적인 도시 공공영역 개발이 아닌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로운 관계까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공청사는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에 해당한다.

[표3-18] 서울시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세부 가이드라인⁸⁸⁾

구 분	내 용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건물 디자인 권장 - 열린 행정서비스와 함께 친근하고 열린 공공건축물의 이미지를 구현 - 대지 내 보행로 확보, 실내형 공개공간 확보,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보행권 강화 (이하 생략)
위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통로 확보, 접근성 보장, 창의적 건물디자인, 옹벽 제한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의 보행가로와 연결한 공공공간은 근린광장·경관광장·건축물부설광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중정형 외부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 가능하도록 설계 권장
대지 단위 외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보행가로 연결 전면 공지의 경사도 제한, 옥외주차장 위치 제한, 전면 외부공간의 주차장화 금지, 정차로 설치, 대지 내 공지와 조경 면적의 배치,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행녹지대 내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건물 저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진입부의 단차 지양 및 슬로프 설치 의무화,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저층부 용도 조절 - 민원실은 주 진입구에 가까운 곳에 배치 - 민원실의 공간 배치는 행정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를 위주로 계획 - 저층 근린상업시설 위치하는 경우, 광고물·게시판 등 입면계획 시 통합 디자인

(계속)

88)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17). *ibid.*, pp.74-75.

[표3-18] (계속)

구분	내용
건물 입면	- 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 - 건물 수명을 고려하여 쉽게 싫증나지 않는 디자인을 권장 - 공해에 강하고 더러움을 덜 타는 재료를 사용
기타 건물 부속물	- 개방형 공공화장실과 자전거보관대, 게시판 등은 건물 설계 시 통합하여 디자인하고,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대해서 156개 대상과 그에 따른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도입 효과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서의 공공디자인 대상 중 공공건축물(54항목), 공공공간(49항목), 공공시설물(42항목)을 적용 범위로 하여 사업의 사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고찰 및 국내외 평가지표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공성, 디자인, 효과의 3개의 대분류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발한 평가항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 운영 방안, 사전평가 지표와의 차이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지표의 운용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⁸⁹⁾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3-19] 서울시 공공건축물 사업 사후평가⁹⁰⁾

분류	평가항목	세부 내용
공공성	접근성	동선, 배치의 적절성 (6항목)
	사용성	활동의 기회 제공의 물리적 및 프로그램적 평가 (12항목)
	안전성	이용에 위험 및 사고 발생 정도 (5항목)
	지역성	정체성 및 고유성 (5항목)
디자인	경관성	주변과의 조화성 (10항목)
	지속가능성	유지관리의 내구성, 환경성, 경제성 (5항목)
	시공성	디자인 의도와 시공과의 정합성 (3항목)
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활성화 측면 (3항목)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복지적 측면 (4항목)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1항목)

89)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충청남도, 2015, p.28.

90)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2015). *ibid.*, p.29.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사후평가를 퍼블릭 인터머시에 대입해 살펴보면, 건축물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와 위압감 형성을 지양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열린 공공건축으로 접근하고자 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운영을 24시간 개방 등을 제시하였으며 불편함 없이 누구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민원실 배치 등을 고려해 개방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소성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외관 및 입면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성,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하였으며, 다양한 시민 휴게공간 조성 및 실내형 공개공간 확보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사후평가 항목의 공공성에 포함하여 중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인지성에 관련해서는 이용 편의를 위한 시각적 정보전달 측면보다는 주변 자연 지형 및 환경의 조화로운 측면을 강조하여 도시의 시각적 인지성으로 접근하였고 체험성과 관련해서도 사후평가 시 사용성과 연계하였지만,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 개략적으로만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특별시의 가이드라인은 도시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건물의 외적인 형태 및 외부공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후평가에는 더 나아가 공간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서적 측면의 효과까지 고려하였다.

(2) 광역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019년 2월에 들어 각 세부 영역에 따라 분산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통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는 공공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개방적인, 혁신적이고 새로운, 환경을 생각하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표3-20] 대구광역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원칙⁹¹⁾

-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및 외관	- 자연지형 존중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 녹지체계 고려
- 가로의 연속성 고려	-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 조성
- 주변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권 확보	- 생태적 지속성 및 안전성 확보

9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대구광역시, 2019, 보고서번호: 56-6300000-00028 8-13, p.57.

정리하면 대구광역시에는 주변 환경을 비롯한 공공청사와 연결된 다양한 조건과 조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원칙을 기초로 하며, 공공청사는 공공건축물 중 행정 및 공공기반 관련 건축물로 분류하고 다음 [표3-21]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3-21] 대구광역시 공공청사 권장 가이드라인⁹²⁾

분류	내용
대지 및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는 주민과 밀접한 공간, 친밀한 개방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 - 공공청사의 입지조건은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장소를 권장 - 인접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 공공시설물은 공개공지 내 편입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 어린이 수송 차량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의 안전한 보행구역을 확보 - 아동 관련 시설 주 출입구가 도로와 연결할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계획
형태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공공청사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으로 계획(단,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배타적인 이미지는 지양)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권장하여, 태양광 집열판 등은 일체형으로 설치 -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현수막 또는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을 위한 일정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는 공익목적 이외 사용은 지양 - 건축물 입면의 일부 면은 자연채광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 구조를 사용하되,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 - 보행을 방해하는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지양 -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권장 (단, 명칭 등 사인 시스템은 통일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
기능 및 동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과 자동차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진출입은 주접근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은 이면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 - 시민의 상시 접근을 고려한 광장형 외부공간계획으로 개방감을 확보 - 내·외부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 - 교통통제를 위하여 경광등과 신호등을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동선을 제어
각부 상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설비시설은 건물 계획 시 건물 입면과 연계하여 디자인 - 미유해한 대기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식재를 통해 쾌적함을 더 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유희실 등은 옥외공간 연결배치를 권장 - 안전 또는 보안상 경우 제외하고 공공건축물 주변 담장이나 펜스 설치의 지양 - 계단 등은 바닥사인을 통해 인지성을 높임 - 안내표지판과 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를 것 - 규모가 작은 경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을 적극 고려
재료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차분한 저채도의 색 사용을 권장하며, 포인트 색으로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색을 사용 - 건축물 저층부에 내·외부 간의 시각적 경계성을 약화시키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재료 등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조명의 활용을 검토 - 공간을 구분 지어야 하는 구조일 경우 유리 파티션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

92) 대구광역시(2019). *ibid.*, pp.61-62.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형태 및 구조를 바탕으로 상징성, 대표성을 구축하여 장소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나친 옥외광고물 혹은 창의성 추구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이용 편의성에 대한 사인 시스템을 계획하여 인지성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대지 및 배치 계획을 중점으로 친밀한 개방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접근에 있어 안정성까지 고려함에 따라 다방면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희실 등과 같은 문화적 기능 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하고 옥외공간과도 높은 연계성을 두어 체험성을 높였다. 하지만 개방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 측면은 부족하지만 외관 및 마감적 측면을 중점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하였다. 즉, 대구광역시의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계획 시 물리적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기존 수립하였던 2009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2017년 4월 도시디자인 기본 방향을 구축하고 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발전시켰다. 공공건축은 2009년 대분류 6항목 및 소분류 19항목을 발전시켜 6분류 31항목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그중 공공청사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공간 중 시청 및 군·구 시청사로 포함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계획, 인지성을 고려한 특화계획, 모두에게 열린 공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표3-22] 인천광역시 시청 및 군구 시청사 가이드라인 변천⁹³⁾

분류	2009년	2017년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및 보행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확보 - 보행자와 차량의 접근 경로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 외부공간에 휴게공간 및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주차장 계획시 방문객 전용 주차장을 주출입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 - 시민, 공무원을 위한 옥외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며 보행접근로와의 연계될 수 있는 24시간 개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

(계속)

93) 인천광역시. “200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2009, p.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2017, pp.59-60. 재구성.

[표3-22] (계속)

분 류	2009년	2017년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활동을 지원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지원 - 옥외주차장을 조경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및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 야간 시에도 주차장과 통로의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 - 대비 경계부는 높은 담장이나 과도한 식재를 지양하고 키낮은 조경식재 등을 활용하여 개방된 시야확보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 - 관리 용이, 효율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 -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전 시설·체험관 등의 설치를 권장 -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를 지양 -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피하고, 계단식 진입인 경우 반드시 보행약자를 배려한 진입로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를 우선시하여 민원업무시설의 위치 및 내부동선 등을 계획 - 권위적인 느낌의 대칭적 디자인 및 딱딱한 외장재료 사용은 지양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건물 디자인을 권장 - 탄소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축형태(패시브건축)를 고려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비계획 적용을 권장 - 무장애(Barrier Free)설계를 도입하여, 청사 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보행약자의 이동성을 보장 - 관리 용이, 효율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 -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를 지양 -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가급적 지양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 - 주차안내 부스 및 관련 시설물을 건축과 통일감 있게 설치 - 사인시스템 통합디자인을 도입하여 시청 및 군·구청까지 적용하여 사인 체계의 명료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보관대, 주차부스, 안내표지판 등은 건물 디자인과 융화되도록 통합하여 디자인 -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 - 접근로, 휴게공간 등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인천광역시 2009년 발표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항목을 발전 및 추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에 관한 관점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편의적 부분과 공공청사의 열린 개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또한 도시 브랜딩과 함께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는 2009년 수립한 내용을 현재까지도 다음 [표3-23]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3-23] 2009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⁹⁴⁾

분 류	항 목
대지	1. 외부에서의 대중적 접근이 유리한 곳에 입지하였는가? 2. 대지 내 보행접근성 및 편의성이 고려되었는가? 3. 옥외공간을 시민 휴게 및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4. 외부공간은 야간 및 휴일에도 개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가? 5. 대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담장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는가? 6. 보행가로에 면하여 위치하는 옥외주차장 경계에 차폐용 식재를 하였는가?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독립적으로 계획되었는가? 8. 주변 공간과의 연계 및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9. 공공건축물의 복합과 및 시설의 집중화를 도모하였는가?
건물	1. 건물 디자인의 창의성 및 심미성이 고려되었는가? 2.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하였는가? 3. 공간의 확장과 변화의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가? 4. 공공성 획득을 위한 저층부 개방이 적극적이인가? 5. 주변 지형과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치 및 높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 건물 진입부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시설물	1.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건물의 입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2. 대지 내 공지에 편의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3.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를 하였는가? 4. 외부공간의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조명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5. 종합안내게시판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디자인을 도입하였는가?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의 24시간 개방 권장뿐만 아니라 야간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시간 범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지역 랜드마크 가치 구축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안내 사인시스템 규정까지로 명료성을 중요시했으며, 심미적 차원까지 확장하여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통·동선·저층부 진입 등의 가이드라인 내 대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즉, 인천광역시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기존 2009년과 2015년에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2019년

94) 인천광역시(2009). *ibid.*, p.28. 인천광역시(2017). *ibid.*, p.40.

2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의 실행을 위한 통합 관리 전략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중 공공청사는 공공건축에 하부 항목으로 포함하여 통합적, 안전한, 조화로운, 편리한 공공건축으로 개선하고 기본원칙과 일반원칙을 구성하였다.

[표3-24]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추진전략⁹⁵⁾

분 류		내 용
기본 원칙	기능적인 디자인	-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기능에 맞는 형태로 계획 - 모든사람이 편하게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주변 경관과 연계되는 디자인	- 주변 경관과 연계성이 있도록 통합하여 계획 - 과도한 조형적 형태를 배제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디자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모든이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디자인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	-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동선을 우선으로 계획
일반 원칙	형태 및 구조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 보행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 응급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차량의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
	설치 및 배치	-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레버형 손잡이 설치 - 단차의 턱 낮추기를 할 경우, 기울기는 1/12이하로 설치 -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각각 설치 - 주요 진입로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재질 및 색채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미려하게 마감 -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권장

이를 기반으로 공공청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고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하고, 대지 내 보행로 확보하는 등 도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보행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열린 행정 서비스와 함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⁹⁶⁾ 이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다.

9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광주광역시, 2019, 보고서번호: 55-6290000-000502-13, p.145.

96) 광주광역시(2019). *ibid.*, p.146.

[표3-25] 광주광역시 공공청사 가이드라인⁹⁷⁾

분 류	내 용
형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의 민원공간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하고, 내부가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와 재료를 이용 - 청사의 로비, 민원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바닥면의 단차이 없게 설계 - 보행로의 조명계획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20lux 이상을 유지하도록 계획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통로의 폭과 참은 1.2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 - 주요 시각 정보 매체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하며, 주 출입구 및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설치 -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은 1층에 배치
재질·색채·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돌 등 원재료가 가진 고유의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 - 건축물 전면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 중·저명도로 하고, 인접보도의 바닥, 패턴, 재료, 색채 등의 포장형식은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통유리 구조의 계획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고 채광률을 높임

[표3-26]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체크리스트⁹⁸⁾

분 류	내 용
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 산세 및 주변 건물을 고려한 조화로운 배치, 높이 계획이 이루어 졌는가? 2. 인접 건축선을 맞추고 조경, 광장 면적을 통합 또는 연계 계획하였는가? 3. 민원공간은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하였는가? 4. 램프와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5.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였는가? 6. 전면공지는 차량공간의 이용을 억제하고 이용자와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썬시공원 등 고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가? 7. 건축물 주변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였는가?
형태 재질 색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약자를 배려한 진입부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비상벨 설치 등) 2.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3. 담장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식물울타리나 목재담장을 사용하였는가?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재료사용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였는가? (옥상녹화, 벽면녹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2. 야간활동의 안전성을 고려한 조명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3. 에어컨 실외기, 분전함 등 기계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4. 루버 등 차양막의 적용을 계획하였는가? 5.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는가?

97) 광주광역시(2019). op.cit., p.147.

98) 광주광역시(2019). op.cit., p.166.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제한 없는 이용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조하였으며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 설치, 공간의 개방감 있는 재질 등을 계획하면서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위해 세부적인 공간 구조 및 설비, 시각 정보 매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인지성까지 고려하였다. 즉, 광주광역시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시설 규정과 표준 디자인 제시를 현실화하여 제시하고자 물리적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과 연관된 다양한 관계로서의 접근성, 장소성, 체험성에 관한 내용은 연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가이드라인은 2010년 수립한 「대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2025 대전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 도시디자인 사례와 국내 도시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2017년 4월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중 공공청사는 공공건축의 공공건축물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및 공통 적용 사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은 다음 [표3-27]과 같다.

[표3-27]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개요 및 기본방향⁹⁹⁾

분 류		내 용
기본 방향		- 외부공간은 가로공간과 연속성 -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열린공간으로 조성 - 건축물 외관은 주변 맥락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공통 적용	형태·구조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외관디자인을 권장 - 지형, 도시경관을 고려한 형태구성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
	설치·배치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배치계획을 권장
	재질	- 주변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
	색채	-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를 계획하되, 물성에 의한 재료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
	조명	- 산책로 주변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

99) 대전광역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대전광역시, 2017, 보고서번호: 56-6300000-000288-13, p.251.

[표3-28]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¹⁰⁰⁾

분 류	내 용
형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외관디자인을 권장 - 지형, 도시경관을 고려한 형태구성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 - 과도하게 돌출되거나 획일적인 입면은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을 형성 - 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이 아닌 친근하고 열린 공공건축물의 이미지를 구현 - 콘크리트 웅벽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을 적용 - 에너지절약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나 태양광시스템을 도입
설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면에 면한 경우 건축선은 되도록 주변 건축선과 일치하도록 권장 - 주변 경관요소와 시각 및 보행동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으로 배치 -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가급적 피하고 계단식 진입인 경우 경사로와 핸드레일을 동시에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배려 - 주요 출입동선 및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쉬운 장소나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배치계획을 권장 - 주요경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나 공개공간을 확보 - 공개공지나 공공공간이 주변에 인접할 경우, 연계·통합이 가능한 배치를 권장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조형물은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 가로시설물은 공공공간 내 통합설치를 권장 - 시설물에는 지열,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 편의시설 설치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통로와 차량 통로를 분리, 통로와 차로가 접하는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 -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 주차장은 가급적 건물의 후면 또는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를 녹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외부공간은 주변 오픈스페이스(하천, 공원 등)와 보행로를 연계 - 보행가랑과 접한 외부공간은 풍부한 수목이 식재되고 상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 - 가로와 건물 전면 공지 경계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을 권장 -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적용 또는 옥상면적의 30%이상 녹화할 것을 권장 - 옥상정원은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색벨트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을 권장 - 부지내 외부공간에 투수성 포장, 우수 재활용 등 친환경계획기법 적용을 권장 - 주변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 - 내구성 있고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의 공공건축물의 지나친 색채사용 및 형태적 상징성은 지양 -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를 계획하되, 물성에 의한 재료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 - 건축물 전면부의 바닥패턴과 색채는 저채도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되 인접 보도의 포장형식과 연속성을 유지 - 건축물의 색채계획은 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

(계속)

100) 대전광역시(2017). *ibid.*, p.252.

[표3-28] (계속)

분 류	내 용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개방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동선을 중심으로 가로등을 설치 - 야간에도 운전자의 방향 인지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연출 형식, 배치 계획을 권장 - 옥외주차장의 조명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은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재정비 계획」 준용

[표3-29] 대전광역시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¹⁰¹⁾

1. 지형, 도시경관을 고려한 형태구성 및 입면디자인이 계획되었는가?
2. 주변건축물에 비하여 과도하게 돌출되거나 획일적인 입면은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을 형성하였는가?
3. 에너지절약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나 태양광시스템이 도입되었는가?
4. 가로면에 면한 경우 건축선은 되도록 주변 건축선과 일치되었는가?
5.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가급적 피하고 계단식 진입인 경우 경사로와 핸드레일을 동시에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배려하였는가?
6. 주요 출입동선 및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쉬운 장소나 사각지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7.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배치계획이 되었는가?
8. 과도한 디자인의 상징조형물을 지양하고 가로시설물은 공공공간 내 통합설치 되었는가?
9.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이 되었는가?
10. 가로와 건물 전면 공지 경계부는 장애 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11. 부지 내 외부공간에 투수성 포장, 우수 재활용 등 친환경계획기법이 적용되었는가?
12. 주변건물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되, 재료색을 왜곡,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되었는가?
13. 건축물의 색채계획은 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는가?
14. 야간 개방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동선을 중심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었는가?
15.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은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는가?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하고 친근하고 열린 공공건축물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개방성을 고려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환경친화적인 상징성을 대입하기 위해 형태 및 구조 구체화, 친환경 관련 공간 및 시설물 마련, 재질의 지속가능성 고려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장소성과 깊게 연결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부공간 녹지와도 연계한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을 권장하여 체험성과도 연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한 접근 용이를 위해 안정성과 관련한 계획을 통해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즉, 대전광역시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각 퍼블릭 인터머시 특성들을 연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물리적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 및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101) 대전광역시(2017). op.cit., p.258.

(3) 도

•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을 통해 경기도 31시·군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각 공공디자인 방향을 상세하게 구축하였으며, 이 중 공공건축물¹⁰²⁾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지정한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성을 지니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협의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위치한 공공업무와 관련된 용도의 건축물로서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법원, 국가연구소, 공사건물, 도청, 시청, 구청 등이 해당한다.¹⁰³⁾

[표3-30] 경기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¹⁰⁴⁾

-
-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과 각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디자인
 - 권위적인 이미지를 지양,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
 - 장식적이고 과다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 주변 자연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디자인
 -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 구조와 이미지의 디자인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디자인
 -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한 디자인
 -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공간 환경을 구축하는 디자인
-

위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을 지닌 공간은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공공청사는 기존에는 도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 도시민에게 친근하고 열려있는 디자인을 추구하여 도시민에게 더욱 녹아들고자 하였다. 이는 염철호, 임현성(2010)의 기존 공공청사의 설계지침 분석에서 논의된 도시민 퍼블릭 인터머시적 공간에 대한 개방성과 독립성에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복되고 과도한 직원전용 복지시설 유도, 청사 내 동선을 지나친 세분화 등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 부재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¹⁰⁵⁾ 따라서 경기도 공공청사의 가이드라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02)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공공공간은 도시 공간에 속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 즉, 공원, 광장, 가로 등의 범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을 공공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 속 공공성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공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공간 범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에 속한다.

103) 경기도.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20, 보고서번호: 71-6410000-000895-01, p.76.

104) 경기도(2020). *ibid.*, p.76.

[표3-31] 경기도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방향¹⁰⁶⁾

항 목	내 용
개방성	내국인이나 외국인, 사회적 약자, 노약자 등이 언제나 편안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환경으로 조성
상징성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주목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접근용이성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환경으로 조성
조화성	차별성보다는 주변의 도시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우선하여 도시 공간 속의 일부분이 되도록 디자인
범용성	고령자, 다문화 시대를 고려하여 서비스 시설과 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진단지표는 크게 기반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사업부문 진단지표는 신규 개발사업(9항목), 위원회 심의 및 자문(16항목), 사업결과(12항목)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진단지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참고용으로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⁷⁾

[표3-32]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평가지표¹⁰⁸⁾

항 목	내 용
적합성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선·후행 계획 또는 사업, 관련 법·제도
조화성, 통일성	인접 공간 또는 시설물과의 통합디자인, 주변 자연·건물·시설물과의 조화성
심미성, 창의성	형태·색채·재료계획, 조명계획, 사인계획, 조경계획
효율성	제작·설치·시공,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그린디자인
공공성	개방성·접근성·안전성·국제성,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따라서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에 나타난 특성과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누구나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을 위해 범용성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접근성으로 확대하여 공공성 평가지표를 통해 그 효과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공공청사가 지역의 주목성과 상징성 역할을 하기 위해 창의적 계획을 평가하여 장소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주변

105) 염철호, 임현성(2010). op.cit., p.78.
 106) 경기도(2020). op.cit., p.76.
 107)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2015). op.cit., p.30.
 108)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2015). op.cit., p.31.

지역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심미성, 통일성을 통해 시설물 등과 같은 물리적 범위의 인지성까지 세분화하였다. 즉,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는 퍼블릭 인터머시 특성과 연계하여 정서적, 물리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 강원도

강원도는 2008년 「디자인강원 기본계획」을 통해 강원도의 현황과 총체적인 디자인 조사를 통해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켰다. 강원도의 통합적이면서도 각 소속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공공청은 공공건축물에 포함하여 5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3-33] 강원도 공공건축물 개발 5원칙¹⁰⁹⁾

항 목	내 용
공공성	공간 환경의 안전과 배려 있는 디자인으로 창조적이며 열린 공간 조성
상징성	강원도 고유 문화 정체성을 예술적 요소로 활용한 개성있는 입면계획
조화성	주변의 건축물 및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우선시하여 조성
다양성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구현
쾌적성	쾌적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기능성과 심미성 강화

[표3-34] 강원도 공공청사 세부 가이드라인¹¹⁰⁾

-	저층에 상업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광고물과 게시판 등은 입면계획 시 통합적으로 디자인
-	민원실은 건물 주 진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주로 공간을 계획
-	권위적이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보행가랑과 연결한 공공공간은 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따라서 강원도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다양성을 바탕으로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 등의 개방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징성과 조화성을 바탕으로 장소성까지 고려하였다. 또한 이용에 있어 쾌적성, 기능성, 심미성을 강화하여 인지성 효과를 계획하였고, 안전과 관련된 공공성 일부를 기초로 외부공간 광장 마련 및 그에 따른 보행동선 계획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109) 광주광역시(2019). op.cit., p.147.

110) 광주광역시(2019). op.cit., p.147.

강원도의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개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공공청사의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 각 긴밀하게 연계된 특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09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로 세분화하였다. 공공청사는 상위 분류인 공공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주변환경, 주변건축물, 공공공간, 건물 파사드, 주변시설 및 부속물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다. 하부 항목으로는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친근하고 개방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보행가도와 연계된 보행로 및 실내형 공개 공간 조성, 담장, 펜스 등의 물리적 장벽 제거 등을 통해 접근성 및 보행권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¹¹¹⁾

[표3-35]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¹¹²⁾

분 류	내 용
주변환경	- 소방서, 경찰서 등 차량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차량 접근이 쉽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주변 건축물	- 지역에 거대 규모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건물 규모와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입면 계획하는 것을 권장
공공공간	- 건축물 전면이 보행가도와 연결한 경우 개방적인 형태의 소공원이나 건축물 부설 광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 - 소방서의 경우 차고지 전면 외부 공간의 장애물 설치를 금지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 방문이 용이하도록 보도로부터 주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건물 파사드	- 권위적인 디자인에서 탈피,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디자인 - 내구성, 내오염성이 강하고 쉽게 질리지 않는 재질 및 색상을 적용 -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디자인은 지양
부속 시설물	- 쉽게 인지 가능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안내표지를 설치 - 공공기관의 홍보물·게시물 등의 무분별한 외벽 부착을 금지 - 민원접수 등의 기능을 갖는 경우 외부 진입부로부터 민원 업무 등을 수용하는 건물까지 이어지는 안내 사인시스템 및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계획 - 건축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들 간에 기능 및 디자인 연계성을 고려 - 특산물, 캐릭터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군 조형물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게시대, 조경시설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건축물 부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공시설물가이드라인>중 해당 항목을 따를 것

111)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종합보고서”. 충청북도, 2009, p.103.

112) 충청북도(2009). *ibid.*, p.103.

더 나아가 세부적인 예시와 자연형, 혼합형, 인공형의 유형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공공청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36]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¹¹³⁾

-
1. 건축물 전면이 보행가도로와 연결한 경우 개방적인 형태의 소공원 또는 건축물 부설광장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2. 보행가도로로부터 주건축물까지 보행동선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는가?
 3. 권위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4. 외부 진입부로부터 주건축물까지 안내 사인시설 및 동선체계가 고려되었는가?
 5. 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들 간 기능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계획되었는가?
-

따라서 충청북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유지관리에 용이한 건물 파사드 재질 계획과 친근한 이미지 구성 및 외부공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공공간을 통해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공간 사용에 있어서의 부속 시설물 사인시스템 구축과 지나친 직설적 디자인은 지양하지만, 랜드마크적인 기능 유도를 통해 인지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연계성을 높여 접근성을 나타냈다. 즉, 충청북도의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구체화하고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서적 측면으로서 효과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수립 예정에 있어 이전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5)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분석해 기준으로 삼고자 하며, 공공청사와 관련한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 충청남도가 개발한 사후진단지표는 2014년 수행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를 기초로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진단지표를 개발해 체계적인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중 공공청사는 공공건축물의 하위분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표는 다음 [표3-37]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13) 충청북도(2009). op.cit., p.189.

[표3-3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사후 진단지표¹¹⁴⁾

분 류	평가항목	세부 항목
I. 가치 및 목표 달성	1. 공공성	- 개방성 확보 여부 (공개공간) - 접근의 용이성 (위치,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 - 지역의 중요한 거점 역할 여부
	2. 디자인	-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형태, 규모) -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재료, 색채) - 부속시설물 및 편의시설 간 조화성 (저전거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 벤치, 의자, 파고라 등) - 부속시설물 및 편의시설과 건축물과의 조화성 - 기계설비시설물의 건축물과의 디자인 통합 여부
II. 이용 및 활용	1. 안전성	- 차폐된 공간 없는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 구성 여부 - 미끄럼 방지 재료 사용 여부 (진입부, 경사로, 엘리베이터 바닥 등) - 가로등 설치 간격의 적정성 - CCTV 설치장소의 적정성 - 일조, 통풍 고려 여부
	2. 사용성	- 동선 및 배치의 적정성 - 지원 시설 배치의 적정성 (안내소, 편의시설 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 - 규모 및 면적의 적정성
III. 유지관리	1. 공동체성	-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 지역 주민 이용공간을 위한 외부공간 확보 여부
	2. 지속가능성	-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여부 - 에너지 절감 계획 적용 여부 - 재료의 관리 및 보수 용이성 - 자재와 맞는 공법 설계, 시공 여부 - 마감 및 도장 등 마무리 상태

따라서 충청남도의 사후 진단지표를 정리하면, 공개공간의 확보 및 지역 주요 거점 역할로서의 공공성과 이용 및 활용적 측면에서의 사용성을 통해 개방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을 통해 포괄적인 장소성을 언급했다. 디자인 부분에서의 인지성을 위한 시설 설치와 각각의 조화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보행 및 교통적 측면에서의 접근 용이성과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여 접근성 또한 고려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있어 단순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닌 이용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공간 마련 지표를 마련하여 체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충청남도의 사후 진단지표는 비교적 주관적일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세분화된 물리적 측면의 세부 항목을 두어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114) 충청북도(2009). op.cit., p.189.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2011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과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바탕으로 기본 목적을 강화하고 세부 유형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7월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하였다. 이에 공공청사는 공공건축물에 포함하여 기본원칙 및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38]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기본원칙 및 체크리스트¹¹⁵⁾

항 목	기본원칙	체크리스트
심미성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의 경관이 돋보이도록 전라북도 5개 권역의 특징적 요소 및 색채를 통일하여 조성 - 주변 경관과 자연 및 건축물이나 도시간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하고 획일적인 공공건축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는가? 2. 고풍택 재료나 고채도색상의 사용을 금지하였는가?
지속가능성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파괴를 차단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형태를 조성 - 건축물의 보수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최우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쾌적한 조망권을 확보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는가? 4.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나 고효율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는가?
안전성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 된 건축물의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 - 전라북도 5개 권역별 공공건축물의 의미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여 공공건축물의 필요성을 추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을 적용하여 누구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지역성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설치 - 전라북도만의 5개 권역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색채와 설치물 및 시설물을 통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옥외공간을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7. 전라북도만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창조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지향하였는가?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9. 실행을 하기 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도입하였는가?

115)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최종보고서”. 전라북도, 2020, 보고서번호: 77-6450000-000 403-01, pp.33-34.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청사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라북도의 특성 및 시설의 성격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행정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를 위주로 디자인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청사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청사 경계부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함으로써 공공건축물로서의 공간적,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¹¹⁶⁾ 세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표3-39] 전라북도 공공청사 가이드라인¹¹⁷⁾

항 목	내 용
계획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의 기능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 - 바닥면의 단 바닥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 계단식 진입인 경우 경사로 및 난간 설치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 약자를 배려 - 1층부에 민원이용 공간과 편의 공간을 배치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 - 장애인 화장실 경우 출입이 편리한곳에 우선적으로 배치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가로에 인접한 옥외공간 및 경계부는 시민 휴게 공간으로 개방 조성 - 공간적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
재질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고유한 재질감을 강조하여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
야간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광색 또는 전구색 등 은은한 컬러를 권장 - 야간에도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방법을 사용 - 문화·안전·축제·관광 등을 홍보할 수 있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야간 그림자 조명 기법 사용 등을 권장

따라서 전라북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티머시로서 정리하면, 공간 계획에서 지역 사회 의견 반영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 추구 및 유지관리 차원을 통해 언제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건축물에 표현하는 역사성을 담고 타 지역민에게 관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장소성을 연결하였으며, 심미성과 조화성을 재질 및 색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전라북도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한 체크리스트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위해 물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116) 전라북도(2020). *ibid.*, p.35.
 117) 전라북도(2020). *op.cit.*, p.35.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2014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권역 및 지역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분류 체계를 일원화, 제도적 및 행정적, 법령적 측면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중 공공청사는 공공건축에 포함하여 기본원칙 8개 중 다음과 같이 쾌적성, 친근성, 보편성, 안전성, 국제성을 중심으로 기본 방향을 구성하고 있다.

[표3-40] 전라남도 공공건축 기본원칙¹¹⁸⁾

항 목	내 용
쾌적성	도시의 질을 높이는 개방적이고 정돈된 건축디자인
친근성	권위적 이미지를 지양하고 시민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건축디자인
보편성	다양한 사람의 이용을 배려한 유니버설 개념의 건축디자인
안전성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디자인
국제성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건축디자인

위 특성을 기본원칙 및 특성을 중심으로 공공청사는 하부 분류인 행정시설·안전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표3-41] 전라남도 행정시설·안전시설 가이드라인¹¹⁹⁾

분 류	내 용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계단과 웅벽, 거대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 지양 - 시민의 방문이 잦은 민원 등의 공간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 하고 내부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와 재료 계획 - 로비, 출입구 등은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밝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조명계획 - 노약자, 장애인 등 다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단이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진출입을 위한 점자블록, 슬로프 등 계획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 디자인을 지향 - 단열, 태양열, 채광확보, 환기, 벽면녹화 등 적극 도입 - 건축물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거나 실내에 설치되도록 계획 -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 규정 따를 것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벤치나 파고라 등은 가로등 주변 잘 보이는 장소 내 배치

(계속)

118)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라남도, 2014, pp.82-83.

119) 전라남도(2014). *ibid.*, pp.82-83.

[표3-41] (계속)

분 류	내 용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보행로와 건물 주출입구 사이 옥외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후면 주차장 설치 권장 - 안전시설은 비상시 출동에 대비하여 차량동선을 확보토록 배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부는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 (단, 경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나 키가 낮은 관목을 이용한 생울타리 설치)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외국민들의 이용을 배려한 국제겸용 공중전화나 정보 검색코너 등 설치 권장 - 공공시설물 설치시 장식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가로공간의 시설물 디자인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 권장
사인 및 그래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외벽에 고채도 색상의 도료를 이용한 슈퍼그래픽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이미지(돌, 유리, 알루미늄, 점토, 목재 등)를 이용한 디자인 권장 -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에는 다국어 정보표기를 병기하고, 다국어 표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 적용 - 건축 입면 계획 시 보건복지시설 사인물 계획(위치, 색상, 크기, 로고타입 등)을 확정하고 반영해 입면 결정 - 사인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도록 계획

[표3-42] 전라남도 행정시설·안전시설 체크리스트¹²⁰⁾

1.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디자인을 지향하였는가?
2. 건축 외부공간은 다층 경관식재와 쉼터공간을 조성하였는가?
3. 주보행로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는가?
4. 건축물 외부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마감하였는가?
5. 소방서, 경찰서 등은 비상시 출동에 대비한 차량동선을 확보하였는가?
6. 높은 계단, 옹벽, 거대 캐노피 등의 권위적, 폐쇄적 요소를 지양하였는가?
7. 건축 내 명쾌한 보행동선과 인지성 높은 안내표지를 계획하였는가?
8. 다계층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차, 슬로프, 무장애 시설 등을 계획하였는가?
9. 건축 외부공간 및 저층부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였는가?

따라서 전라남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대부분 기본원칙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친근성, 보편성, 국제성을 통해 개방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도시의 정돈된 이미지 부여를 위한 쾌적성과 시설물, 사인 및 그래픽 등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공간 접근 및 사용에 있어 안전한 상태를 위해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전라남도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0) 전라남도(2014). op.cit., pp.82-83.

•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09년 9월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성, 접근성, 환경성, 경관성, 기능성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그중 공공청사는 행정 및 공공기반시설에 포함하였으며, 소분류로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¹²¹⁾와 같이 시·군·구청의 내용은 다음 [표3-43]과 같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3-44]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실용적인 공간 디자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표3-43] 경상북도 시·군·구청 가이드라인¹²²⁾

분 류	내 용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 주민들이 다양한 접근수단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가능한 곳에 입지 - 건축물은 주변도로망, 향후 도로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공간에 상징성과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유도 - 권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친근한 형태 -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와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권장 - 건축물 증축 또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한 건축물 신축시 기존 건축물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맥락적 동질성을 유지
대지 내 공지	- 보행가로와 연결한 공지는 광장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24시간 개방하며,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개방
교통처리	- 건축물 전면 공간의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된 주차장은 녹지조성을 통해 시각적으로 차폐 -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도모
건물 저층부 및 진입부	- 민원실은 건물 주 진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 -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연결을 위해 설치되는 공중 연결통로의 경우, 하부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 어둡고 방치된 공간 제한 - 건축물 전면 필로티 하부의 주차장 설치를 지양
기타 부속 건축물	- 광고물과 게시판 등은 입면계획시 통합적으로 디자인 하고 민원실 등 주민의 방문이 빈번한 곳에 계획 -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
친환경 계획	- 공해에 강하고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친환경재료의 사용을 권장 - 벽면 및 옥상 등 건축물의 입체녹화를 권장 - 담장이나 펜스 대신에 녹지대를 설치하여 미관을 증진
경관	- 주변환경에 대한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디자인을 유도하여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일 것 - 야간경관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야간에 도시공간에 대한 식별성을 향상

121) 본 연구의 '3.1 국내 공공청사 현황 이해' 내용 참고.

122)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경상북도, 2009, pp.36-37.

[표3-44] 경상북도 시·군·구청 체크리스트¹²³⁾

분 류	내 용
건축물의 규모·배치	1. 입지는 주변도로망, 향후 도로계획 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건축물의 형태·색채	2. 지역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3. 친근한 형태의 건축물로 디자인 되었는가? 4. 기존 건축물과 맥락적 동질성을 유지한 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대지 내 공지	5. 공지는 개방형으로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6. 담장 또는 펜스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는가?
교통처리	7. 대지 내 주차장 위치는 적절한가? 8. 차량과 보행 동선이 적절히 분리되었는가?
저층부 및 진입부	9. 민원실은 적절한 곳에 배치되었는가? 10. 공중통로의 경우 하부공간계획이 이루어졌는가?
기타 부속 건축물	11. 광고물과 게시판은 입면계획과 통합되어 디자인 되었는가? 12. 광고물과 게시판은 주민의 방문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13.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는 적절한가?
친환경 계획	14.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였는가? 15. 벽면 및 옥상 등 건축물 입체녹화가 도입되었는가? 16. 담장 및 펜스 대신 녹지대가 설치되었는가?
경관	17. 가로에 면한 공간이 적절히 개방되어 접근성, 시각적 통로가 확보되었는가? 18. 담장 및 펜스 대신 녹지대가 설치되었는가?

따라서 경상북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티머시로서 정리하면, 24시간 시민에게 개방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도와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건물의 형태 및 색채, 친환경적 계획 및 주변 경관과의 맥락 등을 함께하여 경상북도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여 장소성을 고려하였으며, 사용에 있어서 기타 부속 건축물 및 시스템은 통합 디자인을 구축하여 인지성과 연결된다. 이하 대지 내 공지를 공원 및 광장화를 통해 정서적 경관성을 고려하고, 건물 규모와 배치, 접근 안전성과 관련된 교통처리, 건물 진입에 있어서 저층부 개방 및 진입부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경상북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물리적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중복설계를 지양하고, 모든 요소의 특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광도시의 특성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123) 경상북도(2009). *ibid.*, pp.36-37.

육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한 질서와 공공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공공청사는 공공공간의 분류로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표3-4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공간 기본원칙¹²⁴⁾

-
-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폭을 확보
 - 보행 연속 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
 - 휴게, 편의시설의 설치장소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기능 및 활용도 높임
 - 버스 정류장 구역 내 승차차 및 접근 버스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
 - 이용 편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높임
 -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환경을 조성
 -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지양
 - 도시 내 녹지 및 투수면적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높임
 -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조형물, 식재를 제한
 -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 옹벽 등 도시구조물을 제한하여 경관을 향상
-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청사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민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사 주변은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경관을 향상하는 디자인으로 조성하며, 제주도 전통 민가 형식을 반영한 소규모 공공시설 계획하고, 획일적, 직설적, 권위적 디자인을 금지하는 것을 권장했다. 또한 상징성 위주의 외관 계획은 지양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간계획을 유도하며, 공공청사의 보행가로와 연결한 공공공간은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정형 외부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¹²⁵⁾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4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청사 세부지침¹²⁶⁾

분 류	내 용
배치·입지	- 전면 진입부 옥외주차장 설치 금지(소방서 제외) - 진입부 공지는 지역 소공원으로 계획
저층부 권장용도	- 시설별 특수업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우선 확보 (단, 최소한의 주민쉼터를 두어 직설적인 업무중심의 외관을 완화)

(계속)

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7, p.73.

125) 제주특별자치도(2017). *ibid.*, p.78.

126) 제주특별자치도(2017). *op.cit.*, p.73.

[표3-46] (계속)

분 류	내 용
실내 공공공간	-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활용되는 1층 공간에 인접하여 보행자들에게 개방 되는 편의시설(공중화장실, 민원무인발급기 등)을 설치
외부 공공공간	- 인접 공개공지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 - 조경면적 극대화 (건축심의기준에 근거, 대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제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추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디자인의 심의 등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표3-4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공간 체크리스트¹²⁷⁾

분 류	새부 항목
공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적인 휴게시설 배치와 통행이 용이하게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2. 인접 보행가로와 단 차이, 펜스 등에 의해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 3. 적절한 일조량과 그늘이 확보되었는가? 4. 보호 및 감시가 용이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가? 5. 주변 자동차 도로 및 기타 위험시설과의 영역 구분이 확실한가? 6.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게 계획되었는가? 7.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주민건강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되었는가? 8. 건축물로의 접근동선과 광장, 그리고 통과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광장의 위치 및 규모, 형태, 동선 등이 계획되었는가? 9. 보행가로 및 인접 공공공간과 유기적인 연계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되었는가? 10.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로 안전성, 접근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계획되었는가? 11. 수변에 인접한 공공공간의 경우 조망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하여, 보행자 편의 제고하고 있는가? 2.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휴식, 여가, 놀이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3.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되었는가? 4. 간결한 바닥패턴 및 색채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5. 안전한 바닥재질, 바닥패턴 및 색채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6. 조경과 식재, 조형물 등을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7. 시설배치와 바닥 재질 등이 사용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치되었는가? 8.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하고 방문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되었는가? 9.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확보하였는가? 10. 과장된 색채와 시설 디자인은 지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색채와 시설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가?

(계속)

127) 제주특별자치도(2017). op.cit., p.73.

[표3-47] (계속)

분류	세부 항목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주요 공공공간과 녹지, 수변공간 등을 사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가? 2. 도심 보행 네트워크 개념으로 보행로가 계획되었는가? 3.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걷기 편한 보행로가 조성되었는가? 4. 도심지의 다양한 조경과 식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5.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점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6.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처리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주요 동선에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7. 단순히 열린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 기획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는가? 8. 간편한 주민휴식기능을 위주로 하며 과도한 소음유발 시설은 배제되었는가? 9. 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10. 어린이의 놀이 및 어린이 동반가족 휴식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높이와 위치에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11. 공공용지로 환원된 건축물 부설광장의 경우 사설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는가?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퍼블릭 인터머시로서 정리하면, 단순한 열린 공간을 넘어 가변적 프로그램 운용, 외부공간에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고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마감재 제시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개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지역민의 정체성 유지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간 동선 배치 계획과 위험시설과는 철저한 동선 제한 등으로 구체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연계해 휴식, 여가, 놀이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물 및 프로그램, 광장 등을 최대한 설치하고자 하여 체험성을 고려하였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기능과 프로그램 마련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3.3.2 소결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 따른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통해 방향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지정

수립 기간 이후 해당 지역 발전 상황 및 기존 기본계획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해 진흥계획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더욱 발전하고자 하였다.

공공청사는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 분야 중 ‘공공건축물’ 혹은 ‘공공건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공공건축물에서 더 세분화한 하위항목을 두어 ‘공공청사’를 비롯해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시청 및 구청사’, ‘행정시설·안전시설’ 등으로 구체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가가 공공청사 디자인 시 도움을 주고자 체크리스트를 보유한 행정구역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방향을 공공청사 디자인 시 계획하였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경우 체크리스트가 아닌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사후 평가지표, 심의 및 자문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표4-48] 국내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종합

구 분		분류체계		지침 여부		
		상위 분류	하위 분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평가
특별시	서울	공공건축물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		●
광역시	대구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		
	인천	공공건축	시청 및 군구 시청사	●	●	
	광주	공공건축	공공청사	●	●	
	대전	공공건축	공공건축물	●	●	
도	경기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		●
	강원	공공건축물	행정 및 공공 기반	●		
	충북	공공건축물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	●	
	충남	공공건축물	-			●
	전북	공공건축물	공공업무시설	●	●	
	전남	공공건축	행정시설·안전시설	●	●	
	경북	공공건축물	시군구청	●	●	
특별자치도	제주	공공공간	공공기관	●	●	

위와 같이 공공성의 의미가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현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 함에 따라, 공공건축물 혹은 공공건축에 포함되어 개괄적인 접근이 아닌 공공청사의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진흥계획 단계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 행정구역 경우 현

실적인 디자인 계획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공청사의 공간 평가에 대한 틀이나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관련한 공간 평가항목 도출을 통해 더욱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민에게 열린 태도를 보이고 친근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을 대입하여 공공청사 공간의 기초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

- 4.1 공간 평가항목 설정
- 4.2 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
- 4.3 평가 예비항목 검증

제4장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

4.1 공간 평가항목 설정

본 연구의 평가항목 개발로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구체적인 접근을 기초로 둔 평가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으로 분류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평가를 체계화한 선행연구 항목을 정리한다. 둘째,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 5개(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를 공간평가 항목으로 접근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공간평가 항목 연결 설문을 진행하고 빈도분석에 따라 구분한다. 셋째, 공공청사의 보다 실용적인 평가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 항목을 바탕으로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그 내용은 ‘3.3 선행자료 분석’에서 분석한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조사와 그에 따른 퍼블릭 인터머시 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한다. 넷째, 평가 예비항목은 검증 이전에 각 상위 및 하위 항목이 사용자에게 공공청사와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공공청사 사용자인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가설 검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예비항목을 설정하고 1차 중요도 조사, 2차 전문가 검증 과정을 실시해 최종 평가항목을 개발한다.

[표4-1] 평가항목 도출 흐름도

조사 및 분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평가를 체계화한 선행연구 항목 정리	
평가 예비항목 구성	상위 항목	기존 공간평가 항목과 연결한 빈도분석 실시
	하위 항목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항목 분류
	실증분석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후 회귀분석
평가 예비항목 검증	1차 중요도 조사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 조사
	2차 전문가 검증	FGI 전문가 검증 및 적합도 분석

이와 같은 도출의 공간평가 항목 도출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 및 선정 기준 범위 내용은 다음 [표4-1]을 바탕으로 하며, 공간 평가항목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도출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표4-2] 평가항목 선행연구 조사 및 선정 기준

항목	연구				선정기준
	연구자	제 목	표기	년도	
상 위 항 목	(2.2.2 퍼블릭 인터머시 구조 및 특성'의 공간 특성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함)				
	충남 연구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A	2015	공공건축 사후 진단지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사업 평가지표 보고서	B	2010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서울디자인위원회	서울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C	2008	서울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건축물 지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D	2007	세종시 좋은건축물 지정제도 평가
	CABE	Spaceshaper	E	2007	영국 공공디자인 점검 키트
		DQI	F	2002	영국 공공디자인 품질지표
		Design Review	G	1999	영국 공공디자인 평가 프로그램
	PPS	The Place Making	H	1975	미국 공공공간 평가 기준
	성가희	میم적 공공공간의 디자인 평가 방법	a	2021	공공디자인 평가 방법
	김지예	대학 뮤지엄의 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지표 개발	b	2020	공간 조성 지표 개발
	유병진	공공기관 지역문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c	2020	공공기관 지역문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봉혜윤	공공청사 공용공간의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d	2019	공간 구성 특성 분석
	권민영	공적공간으로서의 지방청사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e	2016	사용자 인식분석
	김성주	소방청사 공간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f	2015	공간 개선 평가 지표
	김재영	공공청사 문화공간의 공간계획 분석	g	2014	공간 계획 특성 분석
	김혜란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평가	h	2014	공공공간의 공공성 평가 지표
	문영학	공공청사의 대민업무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i	2012	업무공간 계획 특성
	한명흠	감성어휘를 통한 공간환경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j	2011	공간환경 평가지표 개발
	하 위 항 목	서울	서울시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ver 3.0	ㄱ	2017
대구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ㄴ	2019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ㄷ	2017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ㄹ	2019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ㅁ	2017	
경기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ㅂ	2020	
강원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ㅅ	2019	
충북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ㅇ	2009	
전북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ㅈ	2020	
전남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ㅊ	2014	
경북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ㅋ	200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ㅌ	2017	

4.1.1 상위 항목 설정

공간 평가의 상위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공간 평가를 체계화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항목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항목을 유사성, 의미 중첩 등을 정리하여 빈도수를 표기하면 다음 [표4-3]과 같다.

[표4-3] 상위 항목 추출을 위한 선행연구 항목정리

분 류	문헌조사								선행연구										빈도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i	j	
접근성								●			●	●	●						14
지속가능성				●		●						●	●			●			8
연계성			●		●		●	●			●								7
사용성			●				●		●										6
개방성	●	●		●		●					●								5
경관성	●		●					●											5
공공성							●	●	●								●		5
안전성	●		●		●		●				●							●	5
경제성							●	●	●										5
가변성						●							●		●		●		4
상징성			●			●								●					4
심미성							●								●	●			4
기능성							●							●		●		●	4
참여성	●		●				●				●			●					4
쾌적성							●	●	●		●				●	●	●		4
편리성		●				●	●							●					4
경제성							●												3
공동체성		●					●												3
다양성							●						●				●		3
사회성			●	●	●	●	●	●	●	●	●	●	●		●	●	●		3
시공성		●					●		●		●							●	3
식별성	●		●		●	●	●	●	●									●	3
전문성			●				●	●											3
지역성			●		●		●	●											3
친환경					●		●												3
특수성				●	●						●								3
형태							●			●					●		●		3
적합성		●					●		●										2
친근함							●							●	●	●			2
재미				●		●												●	1

위와 같이 30개의 공간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빈도수 중 4개 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16개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항목과 그 의미를 바탕으로 퍼

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연결하여 실용적인 평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상위 항목 연결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의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까지 총 4일간 진행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 총 30부를 모두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에게는 설문 목적과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에 대해 유선으로 설명한 후 추출된 공간 평가 항목의 각 공간 개념과 연결되는 특성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현황과 특성은 전체 30명으로, 남자는 14명(46.7%), 여자는 16명(53.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6명(20.0%), 30대 8명(26.7%), 40대 7명(23.3%), 50대 6명(20.0%), 60대 이상 3명(10.0%)으로 분포했다. 전공 분야는 공간디자인(40.0%), 공공디자인(33.3%), 산업디자인과 기타(10.0%), 시각디자인(6.7%) 순이며, 경력은 6~10년(26.7%), 3년 미만(23.3%), 11~20년(20.0%), 3~5년(16.7%), 21년 이상(13.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디자인전문 회사 디자이너(40.0%), 관련 분야 교육자 및 교수(23.3%), 디자인 전공학생(16.7%), 관련 분야 공무원(13.3%), 기타(6.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4-4]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분 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4	46.7
	여자	16	53.3
연령	20대	6	20.0
	30대	8	26.7
	40대	7	23.3
	50대	6	20.0
	60대 이상	3	10.0
	전공 분야	공간디자인	12
	공공디자인	10	33.3
	산업디자인	3	10.0
	시각디자인	2	6.7
	기타	3	10.0
경력	3년 미만	7	23.3
	3~5년	5	16.7
	6~10년	8	26.7
	11~20년	6	20.0
	21년 이상	4	13.3

(계속)

[표4-4] (계속)

분 류		빈도(명)	비율(%)
직업	디자인 전공학생	5	16.7
	관련 분야 교육자 및 교수	7	23.3
	디자인전문 회사 디자이너	12	40.0
	관련 분야 공무원	4	13.3
	기타	2	6.7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16개의 공간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연결하여 본 연구의 공간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 집단이 각 항목에 대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빈도(비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5] 상위 예비항목 빈도분석

분 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 빈도(비율)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
접근성	4(13.3)	2(6.7)	5(16.7)	14(46.7)	5(16.7)
지속가능성	1(3.3)	10(33.3)	4(13.3)	6(20.0)	9(30.0)
연계성	7(23.3)	5(16.7)	4(13.3)	4(13.3)	10(33.3)
사용성	7(23.3)	10(33.3)	0(0.0)	1(3.3)	12(40.0)
개방성	19(63.3)	0(0.0)	2(6.7)	5(16.7)	4(13.3)
경관성	6(20.0)	4(13.3)	11(36.7)	8(26.7)	1(3.3)
공공성	15(50.0)	3(10.0)	2(6.7)	10(33.3)	0(0.0)
안전성	4(13.3)	0(0.0)	7(23.3)	16(53.3)	3(10.0)
경제성	0(0.0)	18(60.0)	9(30.0)	0(0.0)	3(10.0)
가변성	22(73.3)	0(0.0)	0(0.0)	0(0.0)	8(26.7)
상징성	5(16.7)	11(36.7)	9(30.0)	3(10.0)	2(6.7)
심미성	3(10.0)	8(26.7)	11(36.7)	2(6.7)	6(20.0)
기능성	3(10.0)	0(0.0)	14(46.7)	9(30.0)	4(13.3)
참여성	3(10.0)	4(13.3)	0(0.0)	1(3.3)	22(73.3)
쾌적성	8(26.7)	3(10.0)	14(46.7)	5(16.7)	0(0.0)
편리성	2(6.7)	4(13.3)	9(30.0)	8(26.7)	7(23.3)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빈도 및 비율을 나타낸 공간 평가 항목을 분석했다. 첫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개방성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간이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 상태인 개방성, 공공의 가치를 공간이 지닌 공공성, 사용 목적에 맞춰 공간을 변화시키는 가변성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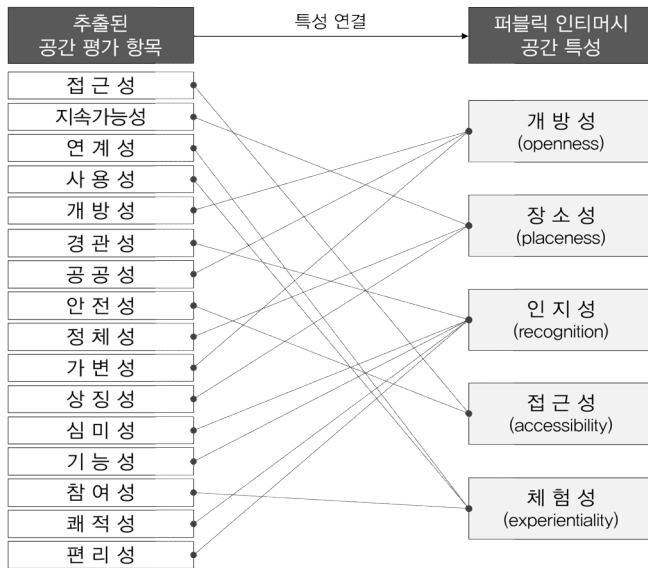
둘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장소성은 공간이 특정한 과정이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속가능성, 공간 존재의 본질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본연의 특성을 공유하는 정체성, 공간 및 건축이 지닌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상징성을 내포한다.

셋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인지성은 주변 자연환경이 결합하여 일체성 있는 외관을 나타내는 경관성, 공간 및 건축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심미성, 의도한 목적대로 공간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장소·건축·공간 등이 쾌적한 상태 혹은 성능을 유지하는 쾌적성, 공간을 이용하기 좋은 편리성을 포함한다.

넷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접근성은 공간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접근성, 공간의 이용에 위험 요소가 없고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안전성을 지닌다.

다섯째, 퍼블릭 인터머시의 체험성은 어떠한 공간이 다른 공간과 관계를 맺고 사용자 하여금 행위·이동을 유도하는 연계성, 공간의 기능이나 프로그램에 맞춰 공간 사용하기에 쉬운 사용성,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성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도출한 상위 항목 추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트릭스로 연결하여 다음 [그림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4-1] 상위 항목 도출

4.1.2 하위 항목 및 세부 내용 설정

공간 평가는 목적과 구성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¹²⁸⁾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인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을 토대로 각각 상위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접근으로 구체화한 공간적 평가 항목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위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앞서 분석한 공공청사와 관련한 국내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중복, 유사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4-6]과 같다.

[표4-6] 하위 항목 추출을 위한 선행연구 항목정리

분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	●	●				●		●	●		●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	●	●	●	●						●	●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	●	●	●	●	●		●	●	●	●	●	●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	●		●	●	●	●			●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	●	●	●	●			●			●	●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	●			●						●	●	●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	●											●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	●			●					●	●		●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	●		●	●	●	●	●		●	●		●
주 출입구 인근 민원실 배치	●			●			●		●	●		●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	●	●				●	●			●	
지속가능한 재료, 색채 사용	●		●		●		●	●				●
권위적 디자인 탈피와 친밀한 열린공간 이미지 강화	●	●	●		●		●	●	●	●	●	●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	●	●	●		●	●					●	●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		●										●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		●										
친환경 설비 및 구조 권장		●	●	●	●				●	●	●	
유리 등 연속성 있는 재료, 구조 사용	●	●		●	●					●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	●	●	●		●	●		●		●		●
공간별 이용자 동선, 편리성 고려로 기능 배분	●	●	●				●	●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		●	●	●						●		●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		●	●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		●										
실내 정원 및 식재 설치		●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포인트 색 사용		●										
지역적 특성 반영한 친근한 공감대 구축			●				●		●		●	●
위압적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 지양		●	●		●					●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	●		●	●	●				●	●		●
주변 지형 및 건물 고려한 배치, 스카이라인 계획			●	●	●				●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			●	●	●				●	●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			●	●								●
루버, 차양막 적용 등 일조량·그늘 계획			●									●

(계속)

128) 김성주. 소방청사 공간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2015.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학위. p.96.

[표4-6] (계속)

분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							●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 분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적인 디자인 계획				●	●	●	●	●	●		●	
보도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성 계획								●				●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		●	●	●		●			●	●		●
계단식 진입 시 경사로 및 난간 필수 설치	●								●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									●			
야간경관 도입으로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		●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				●						●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						●				●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내부공간 활용 계획											●	
자연환경과 연계해 주민건강함양 도움												●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												●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도출된 세부적인 항목을 본 연구의 내용 중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과 상위항목의 내용 및 특성을 바탕으로 재분류하여 구성된 평가 예비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4-7]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

항 목	세부 내용
개방성 (11개)	1. 야간 및 휴일 등 24시간 개방을 제공하고 야간을 위한 적절한 조명 설치를 하였는가?
	2. 대지 내 공지, 조정 면적 배치를 적절히 계획하여 개방감을 주었는가?
	3. 유리 등 연속성을 주는 재료, 구조 사용으로 내부공간의 개방감을 주었는가?
	4. 위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5. 옹벽, 담장 등을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6. 저층부 공간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원활한 공간이용을 도왔는가?
	7. 재료 고유한 재질감을 강조하여 편안한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8. 루버, 차양막을 적절히 설치하여 외부의 일조량 및 그늘을 계획하였는가?
	9. 내부 공간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10. 로비, 출입구 등에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11. 다문화, 외국인 방문자의 이용을 돕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하였는가?
장소성 (9개)	1.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2. 건축물의 권위적 디자인을 탈피하고 친밀한 열린공간 이미지를 강화하였는가?
	3. 친환경 건축물을 위해 설비 및 구조를 도입하였는가?
	4. 실내 정원 및 식재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의 친환경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5. 지역의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포인트 색을 사용하여 도시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가?
	6.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는가?
	7. 주변 지형 및 건물을 고려한 배치와 스카이라인 계획을 하였는가?
	8. 주변 환경과의 조화적인 디자인이 계획되었는가?
	9. 야간경관 및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강화하였는가?

(계속)

[표4-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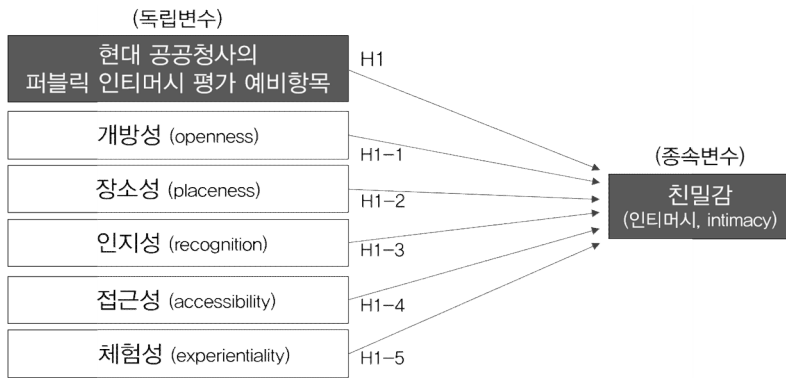
항 목	세부 내용
인지성 (7개)	1.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2. 과도한 광고 게시물을 배제하고 통합적 디자인을 통해 외관의 쾌적성을 계획하였는가?
	3.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 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간 식별성을 높였는가?
	4.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방해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지양하였는가?
	5. 이용자의 공간 이용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을 설치하였는가?
	6.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을 분리하여 공간 이용 시 편리성을 도모하였는가?
	7. 고광택 및 고채도 등 내부공간의 미관을 방해하는 색상, 재료를 지양하였는가?
접근성 (12개)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였는가?
	2. 건물 경관을 위해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를 제한하였는가?
	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등의 단차를 지양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4. 누구나 공간 접근에서 막힘없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5. 공간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출입구 인근에 민원실을 배치하였는가?
	6. 대중교통 및 도보의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를 계획하였는가?
	7. 공간 내 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돕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하였는가?
	8. 어린이 친화 공간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 보행보호구역을 확보하였는가?
	9. 내부 공간별 이용자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한 기능 배분을 하였는가?
	10. 공간 이용에 있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충분한 CCTV가 설치되었는가?
	11. 보도부터 주 건축물 공간까지 보행동선이 원활한 연속성을 계획하였는가?
	12. 건축물 형태의 계단식 진입 시 적절한 경사로 및 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였는가?
체험성 (7개)	1. 실외의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는가?
	2. 시민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 배치하여 실내외 공간 이용을 연계하였는가?
	3. 주변과 연계하여 해당 건축물의 조경 및 광장 배치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는가?
	4. 공중 연결도로 계획 시 발생한 하부공간의 활용성을 계획하였는가?
	5. 주민건강함양의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였는가?
	6. 방문자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였는가?
	7.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

4.2 평가 예비항목 실증분석

4.2.1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을, 종속변수로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경우 앞서 4장에서 도출한 상위 항목인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으로 총 5개 요인과 그에 따른 하위 항목을 하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친밀감의 경우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 요인화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4-2]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에 따라 요소별 평가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H1. 퍼블릭 인터머시의 평가 예비항목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H1-1.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개방성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H1-2.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장소성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H1-3.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인지성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H1-4.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접근성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H1-5.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체험성은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설계

연구 가설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은 공공청사의 방문 및 사용 경험을 지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설문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0

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취합된 총 1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에게 설문 목적과 내용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명한 뒤 자기 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측정은 응답자가 예비항목의 각 질문을 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한,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의 계산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리하였으며, 통계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4-8] 설문조사 개요

모집단	공공청사 방문 및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표본집단	120명
조사기간	2022년 9월 19일 ~ 9월 29일 (10일간)
조사방법	온라인설명 및 자기 기입법
통계분석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형과 가설의 개념은 다양한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들의 개념 정량화에 따른 측정으로 연구가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요구한다. 조작적 정의는 실증적 파악을 위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평가 예비항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표4-9] 변수 측정

설문 항목	변 수	문항 수	척 도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학력	5	명목척도, 순서척도
	방문 주기, 방문 목적, 만족도	3	
평가 예비항목	개방성 (openness)	11	리커트 5점 척도
	장소성 (placeness)	9	
	인지성 (recognition)	7	
	접근성 (accessibility)	12	
	체험성 (experientiality)	7	
친밀감 (인티머시, intimacy)	친밀감, 정서적 인티머시, 물리적 인티머시	3	
총 문항 수		57	

4.2.2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20명으로, 남자 68명(56.7%), 여자 52명(43.3%)이 응답했다. 연령대는 20대 48명(40.0%), 30대 33명(27.5%), 40대 14명(11.7%), 50대 20명(16.7%), 60대 이상 5명(4.2%)으로 분포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광역시 53명(44.2%), 특별시 35명(29.2%), 시 27명(22.5%), 군 5명(4.2%) 순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은 직장인 68명(56.7%), 자영업 22명(18.3%), 학생 20명(16.7%), 기업인 6명(5.0%), 기타 4명(3.3%) 순이며, 학력은 4년제 졸업 54명(45.0%), 대학원 이상 52명(43.3%), 대학 재학 9명(7.5%), 2년제 졸업 3명(2.5%), 고졸 이하 2명(1.7%) 순으로 파악되었다. 공공청사의 방문 및 이용 경험이 있는 표본은 120명(100%)이며, 6개월 1~2회(49.2%), 1년 1~2회(25.0%), 1달 1~2회(15.0%), 주 1~2회(8.3%), 거의 매일(2.5%) 순이며, 방문 목적은 행정 업무(33.3%), 문화공간 이용(25.8%), 민원 업무(23.3%)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며 이외엔 광장 및 공원(12.5%), 이벤트(5.0%) 순을 보이고 있다.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경험한 후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다(49.2%)가 가장 높으며 만족한다(25.0%)는 것과 매우 만족한다(8.3%)를 합한 비율 33.3%로 파악되며 이에 반해 만족하지 않는다(15.8%)는 것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7%)는 합계 17.5%의 의견을 내놓았다.

[표4-10]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 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8	56.7
	여자	52	43.3
연령	20대	48	40.0
	30대	33	27.5
	40대	14	11.7
	50대	20	16.7
	60대 이상	5	4.2
	거주 지역	특별시	35
	광역시	53	44.2
	시	27	22.5
	군	5	4.2

(계속)

[표4-10] (계속)

분 류		빈도(명)	비율(%)
직업	학생	20	16.7
	직장인	68	56.7
	기업인	6	5.0
	자영업	22	18.3
	기타	4	3.3
학력	고졸 이하	2	1.7
	대학 재학	9	7.5
	2년제 졸업	3	2.5
	4년제 졸업	54	45.0
	대학원 이상	52	43.3
이용 빈도	1년 1~2회	30	25.0
	6개월 1~2회	59	49.2
	1달 1~2회	18	15.0
	주 1~2회	10	8.3
	거의 매일	3	2.5
방문 목적	민원 업무	28	23.3
	행정 업무	40	33.3
	문화공간 이용	31	25.8
	광장 및 공원	15	12.5
	이벤트	6	5.0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1.7
	만족하지 않는다	19	15.8
	보통이다	59	49.2
	만족한다	30	25.0
	매우 만족한다	10	8.3

(2) 회귀분석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요소별 요인이 친밀감(인터머시, intimacy)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즉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의 5가지 상위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친밀감 항목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상대적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어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지나친 상관으로 인해 공선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공선성 통계량을 확인이 필요하다. 공선성 통계량은 ‘공차와 VIF’의 값으로 공차는 공차한계(tolerance)를 의미하고, VIF는 분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의미한다. VIF는 공차와 역수관계이고, VIF는 1부터 무한대 값을 가지는데, 보통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¹²⁹⁾ 이를 기준으로 통계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는지 VIF를 살펴본 결과, VIF 값은 2.048~2.892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상관은 없는지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4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Durbin-Watson 값은 0~4까지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우면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의 5가지 평가 예비항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4-11]과 같다. 먼저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value=18.798, p=.000). 회귀모형 설명력(R²)도 45.2%(0.452)로 5가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은 친밀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p<.05), 장소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 크기를 보면, 체험성(β =.457), 개방성(β =.216), 접근성(β =.086), 인지성(β =.077) 순으로 나타나, 체험성이 친밀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11]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S.E)				공차	VIF
종속변수 (친밀감)	(상수)	.285	.418		.682	.497		
	개방성	.249	.132	.216	1.891	.041	.369	2.707
	장소성	-.080	.148	-.064	-.543	.588	.346	2.892
	인지성	.085	.109	.077	.778	.038	.488	2.048
	접근성	.105	.129	.086	.815	.017	.430	2.328
	체험성	.594	.130	.457	4.555	.000	.478	2.091
R²=.452, Adj.R²=.428, F-value=18.798, p=.000***, Durbin-Watson=2.049								

주: p<.001(***), p<.01(**), p<.05(*)

129)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2014. p.169.

구체적으로 각 평가 예비항목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이 친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앞서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소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을 중심으로 모든 회귀모형에서 자기상관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개방성

[표4-12] 개방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S.E)				공차	VIF
중속 변수	(상수)	1.690	.390		4.337	.000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	.043	.075	.067	.576	.046	.414	2.413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	.176	.067	.282	2.637	.010	.486	2.058
	유리 등 연속성 있는 재료, 구조 사용	.017	.056	.026	.307	.760	.768	1.302
	위압적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 지양	-.009	.050	-.016	-.182	.856	.708	1.412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	.055	.056	.095	.978	.030	.589	1.698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	.175	.067	.242	2.612	.010	.650	1.538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	.204	.069	.275	2.941	.004	.635	1.574
	루버, 차양막 적용 등 일조량-그늘 계획	-.078	.076	-.097	-1.027	.307	.627	1.594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	.044	.069	.058	.630	.043	.652	1.534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	.079	.069	.099	1.148	.045	.748	1.337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	.013	.069	.019	.188	.045	.566	1.766

R²=.398, Adj.R²=.337, F-value=6.502, p=.000*, Durbin-Watson=2.014**

주: p<.001(***), p<.01(**), p<.05(*)

먼저 개방성 11개 하위 항목과 친밀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결정계수 R²값이 .398로 나타나 39.8%의 설명력을 보였다. F값은 6.502이며, F값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개방성 하위 항목의 β값은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0.275), ‘대

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282),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242),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099),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095),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067),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058),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0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리 등 연속성 있는 재료, 구조 사용’, ‘위압적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 지양’, ‘루버, 차양막 적용 등 일조량·그늘 계획’의 3개 하위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p < .05$)을 확보하지 못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지성

[표4-13] 인지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S.E)				공차	VIF
	(상수)	1.834	.368		4.986	.000		
종속 변수	지역 랜드마크로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	.110	.061	.167	1.807	.074	.680	1.471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	.148	.057	.209	2.608	.010	.898	1.114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	.297	.070	.388	4.261	.000	.698	1.432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	.132	.059	.199	2.236	.027	.730	1.371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	.026	.063	.034	.412	.041	.837	1.195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 분리	-.007	.061	-.011	-.120	.905	.665	1.503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	.120	.049	.220	2.443	.016	.714	1.400
	$R^2=.352$, $Adj.R^2=.311$, $F\text{-value}=8.679$, $p=.000***$, $Durbin-Watson=2.085$							

주: $p < .001$ (***), $p < .01$ (**), $p < .05$ (*)

인지성 7개 하위 항목과 친밀감의 인과관계는 R^2 값이 .352로 나타나 35.2%의 설명력을 보였다. F값은 8.679이며, F값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인지성 하위 항목 β 값은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388),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220),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0.209),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0.199),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0.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랜드마크로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과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 분리’ 하위 항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 접근성

[표4-14] 접근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S.E)				공차	VIF
종속 변수	(상수)	1.288	.430		2.997	.003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033	.066	.048	.505	.031	.617	1.620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	.015	.074	.022	.205	.043	.489	2.04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	.052	.065	.084	.800	.042	.507	1.973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	.173	.065	.247	2.647	.009	.640	1.563
	주 출입구 인근 민원실 배치	-.067	.064	-.099	-1.033	.304	.602	1.662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	.166	.086	.181	1.935	.046	.637	1.571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	.045	.082	.056	.545	.047	.521	1.918
	어린이 안전한 보행 보호구역 확보	.065	.072	.091	.902	.036	.543	1.841
	공간별 이용자 동선, 편리성 고려로 기능 배분	-.045	.082	-.056	-.545	.587	.521	1.918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060	.054	.097	1.097	.027	.721	1.387
	보도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성 계획	.112	.081	.135	1.384	.169	.586	1.708
	계단식 진입 시 경사로 및 난간 필수 설치	.104	.074	.152	1.403	.163	.479	2.089

R²=.402, Adj.R²=.335, F-value=6.006, p=.000*, Durbin-Watson=1.941**

주: p<.001(***), p<.01(**), p<.05(*)

접근성 12개 하위 항목과 친밀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표4-13), R²값이 .402로 나타나 40.2%의 설명력을 보였다. F값은 6.006이며, F값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접근성 하위 항목의 β 값은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247),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181),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097),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091),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084),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056),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048),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0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주 출입구 인근 민원실 배치’, ‘공간별 이용자 동선, 편리성 고려로 기능 배분’, ‘보도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성 계획’, ‘계단식 진입 시 경사로 및 난간 필수 설치’ 등의 4개 하위 항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 **체험성**

[표4-15] 체험성 하위 항목과 친밀감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S.E)				공차	VIF
종속 변수	(상수)	.567	.404		1.404	.016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	.030	.084	.033	.363	.031	.597	1.674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	.242	.080	.273	3.023	.003	.616	1.623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	.225	.069	.271	3.250	.002	.723	1.383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	.131	.065	.162	2.010	.047	.777	1.288
	자연환경과 연계해 주민건강함양 도움	.032	.053	.049	.590	.556	.732	1.367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	.107	.065	.151	1.649	.022	.599	1.668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085	.067	.120	1.260	.038	.559	1.790
$R^2=.436$, $Adj.R^2=.401$, $F\text{-value}=12.360$, $p=.000***$, $Durbin\text{-}Watson=2.143$								

주: $p < .001(***)$, $p < .01(**)$, $p < .05(*)$

체험성 7개 하위 항목과 친밀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R^2 값이 .436으로 나타나 43.6%의 설명력을 보였다. F 값은 12.360이며, F 값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체험성 하위 항목의 β 값은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273), ‘주변 건축물

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271),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162),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151),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120),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0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자연환경과 연계해 주민건강함양 도움’ 하위 항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3) 가설검증 결과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이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4-16]과 같다.

[표4-16]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연구 가설	채택여부
H1.	퍼블릭 인티머시의 평가 예비항목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1.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개방성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장소성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3.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인지성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접근성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5.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 예비항목의 체험성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위와 같이 가설 H1, H1-1, H1-3, H1-4, H1-5는 채택되었고, H1-2는 기각되었다. 평가 예비항목은 전반적으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며, 채택된 가설의 영향력 크기는 체험성, 개방성, 접근성, 인지성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채택된 평가 예비항목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개방성 하위 항목 중 3개, 인지성 하위 항목 중 2개, 접근성 하위 항목 중 4개, 체험성 하위 항목 중 1개, 총 10개의 하위 항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표4-17]와 같이 정리하였다. 따라서 관련 하위 항목은 제외하였다.

[표4-17]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위 항목

가 설	세부 내용	결 과
H1. 개방성	1.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	채택
	2. 대기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	채택
	3. 유리 등 연속성 있는 재료, 구조 사용	기각
	4. 위압적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 지양	기각
	5.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	채택
	6.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	채택
	7.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	채택
	8. 루버, 차양막 적용 등 일조량-그늘 계획	기각
	9.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	채택
	10.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	채택
	11.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	채택
장소성	1. 지속가능한 재료, 색채 사용	H1-2. 가설검증 기각
	2. 권위적 디자인 탈피와 친밀한 열린공간 이미지 강화	
	3. 친환경 설비 및 구조 권장	
	4. 실내 정원 및 식재 설치	
	5.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포인트 색 사용	
	6.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친근한 공감대 구축	
	7. 주변 지형 및 건물 고려한 배치, 스카이라인 계획	
	8. 주변 환경과의 조화적인 디자인 계획	
	9. 야간경관 도입으로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인지성	1. 지역 랜드마크로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	기각
	2.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	채택
	3.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	채택
	4.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	채택
	5.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	채택
	6.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 분리	기각
	7.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	채택
접근성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채택
	2.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	채택
	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	채택
	4.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	채택
	5. 주 출입구 인근 민원실 배치	기각
	6.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	채택
	7.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	채택
	8.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	채택
	9. 공간별 이용자 동선, 편리성 고려로 기능 배분	기각
	10.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채택
	11. 보도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성 계획	기각
	12. 계단식 진입 시 경사로 및 난간 필수 설치	기각
체험성	1.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	채택
	2.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	채택
	3.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	채택
	4. 공공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	채택
	5. 자연환경과 연계해 주민건강함양 도움	기각
	6.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	채택
	7.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채택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 항목 중 유일하게 ‘장소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다른 상위 항목과 같이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쉽게 그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장소성은 비교적 추상적인 성격이 짙은 특징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장소성을 중심으로 퍼블릭 인터머시를 형성하는데 공간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의하지 않은 영향으로 기각된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공간의 실용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칫 공간 디자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평가 예비항목은 상위 항목 4개(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와 하위 항목은 27개로 도출하였다.

4.3 평가 예비항목 검증

4.3.1 평가 예비항목 1차 선정 및 중요도 조사

(1) 조사 개요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를 위한 공간평가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항목 추출에 의한 예비항목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모집단은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 50명과 일반인은 공공청사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 100명으로 삼았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합된 표본 총 1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원거리 등의 이유로 비대면 설문을 원하는 설문자의 의견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협조한 조사 대상에게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중요도 설문 측정은 응답자가 해당 예비항목을 보고 어느 정도가 중요한가에 따라 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 높음)으로 구성(5점 척도)하였고 관련 계산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를 수행하였다.

[표4-18] 중요도 조사 개요

구 분	전문가 조사 (50명)	일반인 조사 (100명)
모집단	공간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공공청사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조사기간	2022년 10월 4일 ~ 10월 18일 (2주간)	
통계분석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뢰도(Reliability),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등을 수행	

응답자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는 전체 50명으로, 남자 25명(50.0%), 여자 25명(50.0%)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연령대는 30대가 23명(4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12명(24.0%), 20대 10명(20.0%), 50대 3명(6.0%), 60대 이상 2명(4.0%) 등의 순으로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전문가 전공분야는 공간디자인(64.0%), 산업디자인(16.0%), 시각디자인(14.0%), 공공디자인(6.0%) 순으로, 경력은 3~5년(28.0%), 3년 미만(24.0%), 11년~20년(22.0%), 6~10년(16.0%), 21년 이상(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학력은 석사(38.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사과정(18.0%), 박사재학(16.0%), 박사수료와 박사(각 14.0%)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인 응답자는 100명으로, 이중 남자는 53명(53.0%), 여자는 47명(47.0%)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54명(54.0%), 30대 36명(36.0%), 50대 5명(5.0%), 40대 4명(4.0%), 60대 이상 1명(1.0%)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광역시(51.0%), 특별시(28.0%), 시(17.0%), 군(4.0%) 순으로 분포하였고, 직업은 직장인(61.0%), 학생(18.0%), 자영업(13.0%), 기업인(1.0%) 등의 순이며, 학력은 4년제 졸업(65.0%)이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15.0%), 대학재학(14.0%), 2년제 졸업(5.0%), 고졸 이하(1.0%) 순으로 나타났다.

[표4-19]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분 류		전문가 빈도(비율)	분 류		일반인 빈도(비율)
성별	남자	25(50.0)	성별	남자	53(53.0)
	여자	25(50.0)		여자	47(47.0)
연령	20대	10(20.0)	연령	20대	54(54.0)
	30대	23(46.0)		30대	36(36.0)
	40대	12(24.0)		40대	4(4.0)
	50대	3(6.0)		50대	5(5.0)
	60대 이상	2(4.0)		60대 이상	1(1.0)

(계속)

[표4-19] (계속)

분 류		전문가		분 류		일반인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공 분야	공간디자인	32(64.0)		거주 지역	특별시	28(28.0)	
	공공디자인	3(6.0)			광역시	51(51.0)	
	산업디자인	8(16.0)			시	17(17.0)	
	시각디자인	7(14.0)			군	4(4.0)	
경력	3년 미만	12(24.0)		직업	학생	18(18.0)	
	3~5년	14(28.0)			직장인	61(61.0)	
	6~10년	8(16.0)			기업인	1(1.0)	
	11~20년	11(22.0)			자영업	13(13.0)	
	21년 이상	5(10.0)			기타	7(7.0)	
학력	석사과정	9(18.0)		학력	고졸 이하	1(1.0)	
	석사	19(38.0)			대학재학	14(14.0)	
	박사재학	8(16.0)			2년제 졸업	5(5.0)	
	박사수료	7(14.0)			4년제 졸업	65(65.0)	
	박사	7(14.0)			대학원 이상	15(15.0)	

공공청사 이용 빈도와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의 공공청사 이용 빈도는 1달 1~2회 이상 비율(주 1~2회, 거의 매일 포함)이 36.0% 이고, 일반인은 14%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전문가의 공공청사 이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응답자의 10명 중 4명(40.0%)이 행정 업무 목적으로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46.0%)는 행정업무, 일반인(38.0%)은 민원 업무로 인한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20] 공공청사 이용 빈도 및 방문목적

분 류		전문가(n=50)		일반인(n=100)		전체(n=150)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용 빈도	거의 없음	2	4.0	18	18.0	20	13.3
	1년 1~2회	8	16.0	45	45.0	53	35.3
	6개월 1~2회	22	44.0	23	23.0	45	30.0
	1달 1~2회	11	22.0	8	8.0	19	12.7
	주 1~2회	6	12.0	3	3.0	9	6.0
	거의 매일	1	2.0	3	3.0	4	2.7
방문 목적	민원 업무	12	24.0	38	38.0	50	33.3
	행정 업무	23	46.0	37	37.0	60	40.0
	문화공간 이용	5	10.0	17	17.0	22	14.7
	광장 및 공원	3	6.0	4	4.0	7	4.7
	이벤트	7	14.0	4	4.0	11	7.3

(2) 검증 및 분석

• 신뢰도 분석

중요도 조사 항목별 문항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답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reliability) 검사 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몇 개의 질문을 하나의 개념에 대한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이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크론바 알파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보통 0.6 이상이면 일관성 있는 응답으로 평가한다.

한 개념을 측정하는 N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X_1, X_2 \dots X_n$ 이라고 할 때, Cronbach's α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lpha = \frac{N}{N-1} \left\{ 1 - \frac{X_1 \text{의 분산} + X_2 \text{의 분산} + \dots + X_n \text{의 분산}}{(X_1 + X_2 + \dots + X_n) \text{의 분산}} \right\}$$

전문가, 일반인 대상 상위 항목 내 하위 항목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최소 0.771, 최대 0.926을 기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 값은 체험성 항목이 0.8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접근성(0.845), 개방성(0.823), 인지성(0.771) 항목 순으로 문항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신뢰할만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 얻은 분석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표4-21] 신뢰도 분석(전체)

항 목	하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전문가(n=50)	일반인(n=100)	전체(n=150)
개방성	8	.885	.776	.823
인지성	5	.814	.740	.771
접근성	8	.861	.831	.845
체험성	6	.926	.814	.874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의 Cronbach's α 계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체험성(0.926), 개방성(0.885), 접근성(0.861), 인지성(0.814) 항목의 항목 문

항 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접근성(0.831), 체험성(0.814), 개방성(0.776), 인지성(0.740)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상관계 분석

중요성 항목 내 하위 항목 간 상관계(correlation)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계 분석은 서로 관련 있다고 보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 얼마나 선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분석이다.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두 변수가 양의 상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반대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두 변수가 음의 상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상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상관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 분석을 의미한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¹³⁰⁾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등간척도, 비율척도)이어야 하고 두 변수 간에는 선형성(linearity)을 나타내는, 즉 X변수가 증가할 때, Y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형태를 만족해야 한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에 일정한 값을 규칙적으로 가감승제 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피어슨 상관계수 r은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1 \leq r \leq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음의 값은 두 변수 간 부(否)의 상관관계를, 양의 값은 두 변수 간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r이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0.4~0.7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0.2~0.4는 약한 상관관계를, 0.0~0.2는 상관계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 해석한다. 상관계수 r값은 두 변수 (X, Y) 사례 값이 $(x_1, y_1), (x_2, y_2), \dots (x_n, y_n)$ 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r &= \frac{S_{xy}}{S_x \cdot S_y}, \quad S_{xy} = X \text{와 } Y \text{의 공분산} = \frac{\sum(x_i - \bar{x})(y_i - \bar{y})}{n-1} \\
 S_x &= X \text{의 표준편차} = \sqrt{\frac{\sum(x_i - \bar{x})^2}{n-1}} \\
 S_y &= Y \text{의 표준편차} = \sqrt{\frac{\sum(y_i - \bar{y})^2}{n-1}}
 \end{aligned}$$

130) 송지준, “송지준 교수의 논문통계의 이해와 적용: SPSS와 AMOS를 활용”. 21세기사, 2019, p.201.

[표4-22] 개방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A1	A2	A3	A4	A5	A6	A7	A8
A1	1							
A2	.663**	1						
A3	.462**	.425**	1					
A4	.681**	.551**	.526**	1				
A5	.380**	.303*	.498**	.478**	1			
A6	.650**	.406**	.361*	.621**	.507**	1		
A7	.670**	.459**	.507**	.738**	.463**	.672**	1	
A8	.378**	.411**	.107	.425**	.296*	.503**	.579**	1

주: 상관계수는 $p < .01(**)$, $p < .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4-23] 개방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A1	A2	A3	A4	A5	A6	A7	A8
A1	1							
A2	.189	1						
A3	.128	.466**	1					
A4	.212*	.351**	.299**	1				
A5	.285**	.281**	.379**	.402**	1			
A6	.032	.369**	.346**	.376**	.456**	1		
A7	.160	.195	.296**	.392**	.323**	.552**	1	
A8	.222*	.193	.108	.378**	.399**	.248*	.378**	1

주1: A1.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 A2.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 A3.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 A4.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 A5.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 A6.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 A7.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 A8.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

주2: 상관계수는 $p < .01(**)$, $p < .05(*)$ 수준(양쪽)에서 유의

개방성 항목을 구성하는 8개 하위 항목 문항(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22], [표4-23]과 같다.

전문가는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와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r=0.738$) 항목 간 정적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와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r=0.681$),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와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r=0.672$),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와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r=0.670$),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와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r=0.663$),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와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r=0.650$),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와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r=0.621$) 등의 순으로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의확률 0.01 미만 수준에서 선형 관련성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가가 평가한 개방성 항목 상관분석 결과,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와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r=0.107$)의 항목 간에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 항목에 대한 일반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비해 하위 항목 간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와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r=0.552$) 간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와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r=0.466$),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와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r=0.456$),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와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r=0.402$) 등의 순으로 항목 간 상관성이 0.4 이상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24] 인지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B1	B2	B3	B4	B5
B1	1				
B2	.552**	1			
B3	.626**	.521**	1		
B4	.319*	.300*	.354*	1	
B5	.506**	.427**	.613**	.456**	1

주: 상관계수는 $p<.01$ (**), $p<.05$ (*)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4-25] 인지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B1	B2	B3	B4	B5
B1	1				
B2	.408**	1			
B3	.385**	.272**	1		
B4	.278**	.350**	.424**	1	
B5	.330**	.314**	.494**	.396**	1

주1: B1.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 B2.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 B3.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 B4.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 B5.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

주2: 상관계수는 $p<.01$ (**), $p<.05$ (*) 수준(양쪽)에서 유의

인지성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5개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항목 내 하위 항목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와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r=0.626) 항목 간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과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r=0.613)이 0.6 이상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어서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와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r=0.552),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과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r=0.521),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와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r=0.506)이 0.5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와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r=0.456),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과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r=0.427) 등이 0.4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다.

일반인 대상 인지성 항목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과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r=0.494)이 서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r=0.424),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와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r=0.408)이 0.4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다.

[표4-26] 접근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C1	C2	C3	C4	C5	C6	C7	C8
C1	1							
C2	.585**	1						
C3	.646**	.505**	1					
C4	.378**	.287*	.221	1				
C5	.392**	.309*	.392**	.559**	1			
C6	.566**	.276	.594**	.534**	.542**	1		
C7	.390**	.148	.549**	.310*	.643**	.656**	1	
C8	.432**	.268	.493**	.378**	.536**	.475**	.526**	1

주: 상관계수는 p<.01(**), p<.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4-27] 접근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C1	C2	C3	C4	C5	C6	C7	C8
C1	1							
C2	.296**	1						
C3	.424**	.389**	1					
C4	.242*	.394**	.503**	1				
C5	.333**	.124	.378**	.301**	1			
C6	.406**	.261**	.486**	.517**	.434**	1		
C7	.450**	.342**	.583**	.565**	.323**	.643**	1	
C8	.405**	.321**	.245*	.289**	.415**	.404**	.390**	1

주1: C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C2.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 C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 C4.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 C5.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 C6.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 C7.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 C8.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주2: 상관계수는 $p < .01$ (**), $p < .05$ (*) 수준(양쪽)에서 유의

접근성 항목을 구성하는 8개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조사 결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656$),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와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r=0.646$),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과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643$) 항목 간 상관성이 0.6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594$),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와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r=0.585$),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와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566$),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과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r=0.559$),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549$),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542$),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과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r=0.536$),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534$),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와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r=0.526$),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과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r=0.505$) 등이 전문가 조사에서 0.5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일반인 대상 접근성 항목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643) 변수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583),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과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565),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517),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r=0.503) 등이 항목 간 0.5 이상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과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r=0.148),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과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r=0.221),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과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r=0.268),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과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r=0.276), 일반인 조사에서는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과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r=0.124) 항목 간에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28] 체험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전문가)

	D1	D2	D3	D4	D5	D6
D1	1					
D2	.833**	1				
D3	.662**	.701**	1			
D4	.655**	.660**	.680**	1		
D5	.645**	.589**	.527**	.544**	1	
D6	.740**	.756**	.681**	.672**	.819**	1

주: 상관계수는 p<.01(**), p<.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4-29] 체험성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일반인)

	D1	D2	D3	D4	D5	D6
D1	1					
D2	.641**	1				
D3	.479**	.575**	1			
D4	.439**	.564**	.509**	1		
D5	.304**	.391**	.303**	.404**	1	
D6	.246*	.313**	.291**	.340**	.660**	1

주1: D1.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 D2.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 D3.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 D4.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 D5.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 D6.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주2: 상관계수는 p<.01(**), p<.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체험성 항목을 구성하는 6개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항목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과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r=0.833$),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과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r=0.819$) 항목 간 상관성이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파악됐다.

다음으로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와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r=0.756$),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과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r=0.740$),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와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r=0.701$) 등이 0.7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일반성 대상 체험성 하위 항목 간 상관관계 또한 전문가와 같이 모든 항목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과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r=0.660$),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과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r=0.641$) 순으로 항목 간 0.6 이상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와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r=0.575$),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와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r=0.564$),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와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r=0.509$)의 변수의 상관성이 0.5 이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 중요도 분석

공간평가 항목의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수치화하여 산술평균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가는 접근성(3.918), 인지성(3.776), 개방성(3.753), 체험성(3.660) 순으로, 일반인은 접근성(4.111), 인지성(3.915), 체험성(3.944), 개방성(3.915)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5 이상의 중요도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반인의 중요도 평가 점수가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항목 가운데, 접근성과 인지도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게 1, 2위로 높게 평가되었고, 3위 항목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개방성을, 일반인은 체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30] 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

분 류		항 목				평 균
		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	
전문가 (n=50)	M	3.753	3.776	3.918	3.660	3.718
	(SD)	(0.877)	(0.778)	(0.797)	(1.058)	(0.877)
	순위	3	2	1	4	-
일반인 (n=100)	M	3.915	3.986	4.111	3.944	3.989
	(SD)	(0.637)	(0.691)	(0.652)	(0.697)	(0.669)
	순위	4	2	1	3	-
전체 (n=150)	M	3.860	3.916	4.047	3.849	3.918
	(SD)	(0.728)	(0.725)	(0.707)	(0.843)	(0.751)
	순위	3	2	1	4	-

[표4-31] 하위 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

항 목	하위 항목	전문가		일반인		전체	
		M	SD	M	SD	M	SD
개방성	A1.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	3.84	1.201	3.71	1.192	3.75	1.192
	A2. 대지 내 공지, 조경 면적 배치	3.96	1.068	4.03	.979	4.01	1.007
	A3.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	3.78	1.148	3.72	1.040	3.74	1.074
	A4.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	4.20	1.088	4.37	.899	4.32	.966
	A5.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	3.34	1.239	3.91	.965	3.72	1.094
	A6.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	3.42	1.263	3.69	1.061	3.60	1.135
	A7.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	3.84	1.235	4.03	.948	3.97	1.052
	A8.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	3.64	1.174	3.92	1.134	3.83	1.151
인지성	B1.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 추구	3.88	.961	4.01	.948	3.97	.951
	B2.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 통합 디자인 도입	3.90	1.055	3.97	.915	3.95	.961
	B3.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지양	3.86	1.125	4.14	.910	4.05	.992
	B4.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	3.54	1.014	4.00	1.073	3.85	1.073
	B5. 고광택·채도 등 미관 해치는 색상 및 재료 사용 지양	3.70	.974	3.81	1.070	3.77	1.037
접근성	C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4.12	1.003	4.39	.920	4.30	.954
	C2.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	3.22	1.345	3.60	1.172	3.47	1.241
	C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	3.88	1.062	4.14	.921	4.05	.975
	C4.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	4.14	1.030	4.09	.975	4.11	.991
	C5.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	4.18	.983	4.30	.835	4.26	.886
	C6.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성 확보	3.96	1.124	4.12	.820	4.07	.932
	C7.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	3.72	1.341	3.93	1.166	3.86	1.226
	C8.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4.12	1.003	4.32	.827	4.25	.891
체험성	D1.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	3.92	1.175	4.21	.856	4.11	.980
	D2.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	3.54	1.358	3.95	.957	3.81	1.120
	D3.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	4.00	1.050	3.92	.929	3.95	.968
	D4.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	3.36	1.258	3.87	.960	3.70	1.091
	D5.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	3.66	1.255	3.80	1.059	3.75	1.126
	D6.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3.48	1.313	3.97	1.039	3.81	1.157

전체 하위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의 경우 개방성의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4.20), 접근성의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 위치 계획’(4.18),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4.14),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4.12),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4.12)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접근성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4.39), 개방성의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4.37), 접근성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4.32), 체험성의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4.21)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낮게 평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가의 경우 접근성의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3.22), 개방성의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 강조’(3.34), 체험성의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하부공간 활용 계획’(3.36), 개방성의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3.42), 체험성의 ‘다양한 이벤트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3.48) 등의 순을 보였다. 일반인의 경우 전문가와 동일하게 접근성의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 제한’(3.60)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어서 개방성의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3.69),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3.71),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3.72), 체험성의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3.80) 등의 순이다.

즉, 전문가는 현대 공공청사에 있어 퍼블릭 인터머시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배치, 동선, 시설물 등의 포괄적인 공간디자인 범위에서 계획적 측면의 접근을 중요시여기고 있다. 또한 접근성을 위주로 하여 해당 공공청사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인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치, 동선 등의 측면은 전문가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실질적인 청사의 방문, 공간 사용, 안전 등의 실사용적인 측면까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공공청사의 효과적인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부분을 우선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디자인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분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시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4.3.2 평가 예비항목 2차 선정 및 전문가 검증

1차 중요도 조사를 통해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항목을 제안하기 위해 2차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위 항목에 따른 하위 항목 검증을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면접법)를 채택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적합성 여부와 하위 항목 내용을 검토하고 면접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항목 도출을 위한 수정 및 보완사항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서 FGI 대상자는 공간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박사 수료 이상과 교수 및 관련 부서의 재직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 기간은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면접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개별 면접을 요구하는 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 관련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검증 설문조사의 부수는 모두 회수되었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표4-32] FGI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성 별	남	남	여	여	남
연 령	42	61	49	58	55
학 위	박사수료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직 업	교수	교수	공무원	공무원	교수
경 령	15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예비항목의 적합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하고 유의미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4개의 항목 중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성, 체험성, 개방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어 평가항목의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표4-33]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구 분	평균(표준편차)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개방성	4.15(0.289)	3.63	4.25	4.13	4.50	4.25
인지성	4.56(0.196)	4.20	4.60	4.80	4.60	4.60
접근성	4.66(0.114)	4.71	4.57	4.86	4.57	4.57
체험성	4.43(0.133)	4.33	4.33	4.50	4.67	4.33

FGI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통해 세부 내용의 평가 및 추가 의견을 정리하고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에 있어 각각의 자료 인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평가항목 중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의미가 중복된 항목을 정리할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접근성의 항목을 축소 및 조정하였다. 셋째, 항목의 단어 중 비교적 그 뜻이 어려워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연접’를 ‘인근’로 변환하는 등으로 수정하였다.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공청사 범위 이상의 군·구·면·읍 행정구역까지 확대하여 퍼블릭 인터머시 활성화에 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3.3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최종 평가항목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대입을 통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앞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위 항목 5개와 이에 따른 46개의 하위 항목을 평가 예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평가 예비항목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 접근성, 인지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장소성은 유의하지 않아 평가 예비항목에서 기각하였다. 이와 함께 하위 항목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10개 하위 항목을 제외하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 항목 및 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1차 중요도 조사에서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상위 항목 중요도 결과,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접근성, 인지성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이어서 전문가의 개방성을, 일반인은 체험성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하위 항목 중요도 분석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관점 차이가 나타난다. 전문가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공간 계획을 중요시 여겼으며, 일반인은 실사용적인 부분을 더욱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 및 개선하고, 지속적인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다양한 사용에 대한 공간의 수용적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차 전문가 검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 예비항목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서로 의미가 중복된 하위 항목을 1개를 축소 및 수정하였으며, 일부

항목의 용어를 더욱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4-34]와 같이 상위 항목 4개(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과 총 26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최종 평가항목을 개발했다.

[표4-34] 최종 평가항목 도출

항목	세부 내용	검증 후 수정 사항
개방성 (8)	A1. 야간 및 휴일 등 24시간 개방을 제공하고 야간을 위한 적절한 조명 설치를 하였는가?	
	A2. 대기 내 공기, 조경 면적 배치를 적절히 계획하여 개방감을 주었는가?	
	A3. 옹벽, 담장 등을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A4. 저층부 공간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원활한 공간이용을 도왔는가?	
	A5. 재료 고유한 재질감을 강조하여 편안한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였는가?	
	A6. 내부 공간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A7. 로비, 출입구 등에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A8. 다문화, 외국인 방문자의 이용을 돕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하였는가?	
인지성 (5)	B1. 과도한 광고 게시물을 배제하고 통합적 디자인을 통해 외관의 쾌적성을 계획하였는가?	
	B2.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 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간 식별성을 높였는가?	
	B3.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방해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배제하였는가?	용어 수정
	B4. 이용자의 공간 이용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을 설치하였는가?	
	B5. 고광택 및 고채도 등 내부공간의 미관을 방해하는 색상, 재료를 지양하였는가?	
접근성 (8)	C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였는가?	
	C2. 건물 경관을 위해 전면 외부공간 주차장화를 제한하였는가?	
	C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등의 단차를 배제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용어 수정
	C4. 누구나 막힘없는 공간 접근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용어 수정
	C5. 대중교통 및 도보와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를 계획하였는가?	
	C6. 공간 내 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돕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하였는가?	C4에 포함
	C7. 어린이 친화 공간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 보행·보호구역을 확보하였는가?	
	C8. 공간 이용에 있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충분한 CCTV가 설치되었는가?	
체험성 (6)	D1. 실외의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는가?	
	D2. 시민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인근에 배치하여 공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는가?	용어 수정
	D3. 주변과 연계하여 해당 건축물의 조경 및 광장 배치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는가?	
	D4.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발생한 하부공간의 활용성을 계획하였는가?	
	D5. 방문자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였는가?	
	D6.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	용어 수정

제5장

평가항목 적용 사례분석

5.1 사례 평가 개요

5.2 평가 내용 및 결과

제5장 평가항목 적용 사례분석

5.1 사례 평가 개요

5.1.1 사례 선정 및 기초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항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해 앞서 ‘3.1.2 현황 조사’의 사례 중 선정하였다. 앞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시청사의 공간을 분석하였지만, 이후 최종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공간 디자인하고 있으며 어떠한 항목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이다.

사례는 비교적 최근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시민문화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과의 친근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을 지닌 ‘부산광역시청’을 적용 사례로 삼았다. 또한 최근 개관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이외에도 부산광역시의 전국적 또는 국제적 행사, 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공간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시민과의 친화적인 공간 마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평가 가치가 있으므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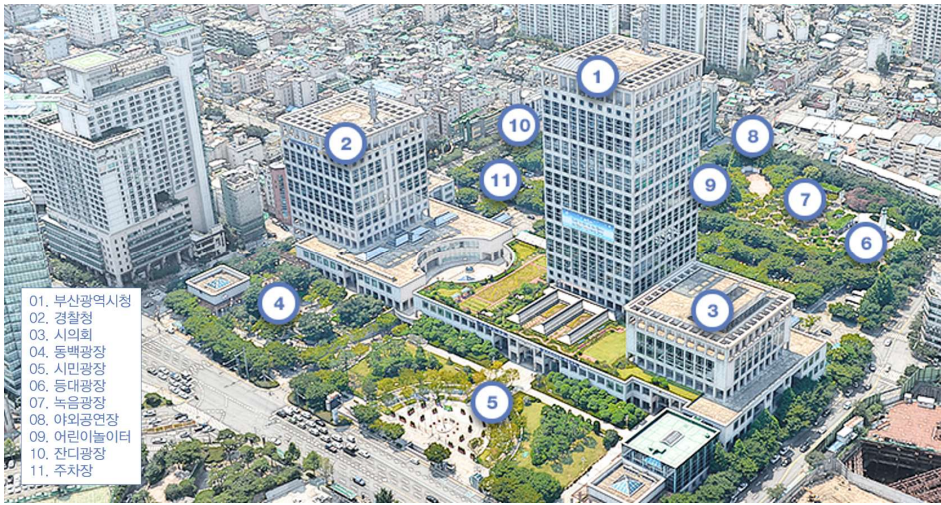
(1) 사례 개요

현재 부산광역시는 ‘시민행복도시·글로벌허브도시·창업금융도시·디지털혁신도시·저탄소그린도시·문화관광매력도시’와 같은 도시비전 및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생활권과 가까운 문화공간의 증설,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 계획,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교육 확대 등을 이루고자 도시의 많은 공공건축에 대한 발전 또한 중요함을 시사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청사의 공간은 도시비전 및 목표를 증진하고자 시민문화공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다.

(2) 사례 공간 분석

해당 사례는 크게 3가지로, 시청, 경찰청, 시의회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형 공공청사이다. 독립적으로 된 3개의 타워형 매스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매스를 포함하고 있는 저층부 판 형태에 의해 단일한 건축물로 인식된다. 또한 타워

형 매스의 비슷한 조형과 재질 마감은 더욱 통일감을 강조하고 있다. 시청사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야외 공원 및 광장은 자칫 거대한 높이의 타워형 매스로 인해 차가운 이미지 형성할 수 있는 점을 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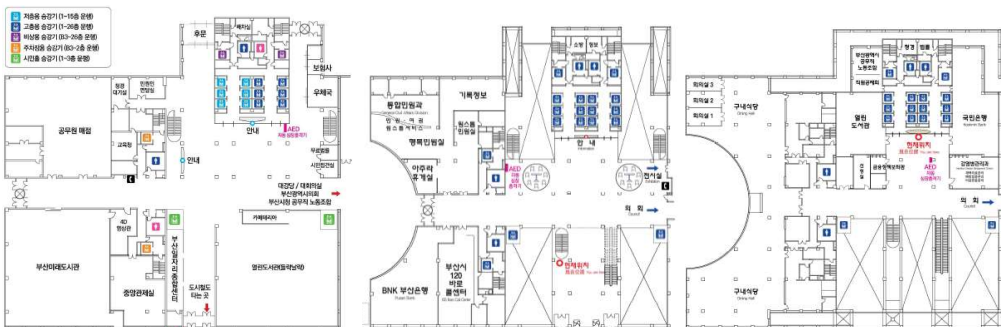


- 01. 부산광역시청
- 02. 경찰청
- 03. 시의회
- 04. 동백광장
- 05. 시민광장
- 06. 등대광장
- 07. 녹음광장
- 08. 야외공연장
- 09. 어린이놀이터
- 10. 잔디광장
- 11. 주차장

[그림5-1] 부산광역시청 전경

출처: www.busan.go.kr/bhintro01

부산광역시청사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6층의 규모이며,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시민문화공간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타 층수는 업무공간의 보호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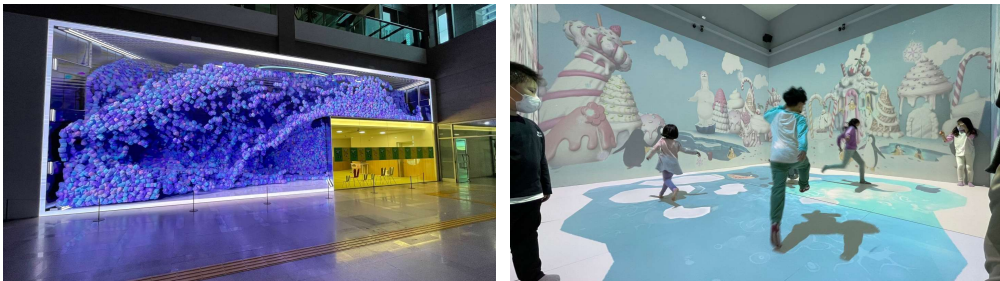
[그림5-2] 부산광역시청사 배치도 (좌측부터 1층~3층)

출처: www.busan.go.kr/bhintro04

시청사 내부 조성된 시민문화공간은 총 7개의 공간으로 1층에 4곳(부산미래도시관, 국제교류전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카페테리아), 2층에 2곳(전시실, 휴게실), 3층에 1곳(열린도서관)이다. 앞서 조사한 공간 이외에 시민문화공간의 중점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다음과 같다. ‘부산미래도시관’은 부산의 과거·현재·미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산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부산의 시대별 역사 및 현황·통계 등의 정보를 전시 패널(Panel), 영상자료, 도시모형 등을 설치하였으며, 4D 영상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부산 미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교류전시관’은 부산시가 27개국 37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력도시를 체결한 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받은 기념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중국관·일본관·동남아태평양관 등 10개 대륙관으로 구역을 나누어 관람 동선을 계획했다. 또한 나라별 전통의상 및 소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협력 도시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크로마키 존(Chromakey Zone)’을 두었다.

‘전시실’은 순수 예술인(개인) 혹은 비영리 단체에 대관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 사진, 서예, 공예 등 여러 분야의 전시하는 공간이다. 시청사 지상 2층 민원실 인근에 전시실을 두어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한 시민 등에게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의 접촉 기회를 함께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 공간과 연계해 시청사 복도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림5-3] 부산광역시청사의 미디어공간 및 아트

시청사 외부에 조성된 광장은 39,797㎡의 규모로 총 5개(시민광장, 동백광장, 녹음광장, 등대광장, 잔디광장)의 부산광역시의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야외 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길, 공원 등이 있다.

시민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청사 외부공간은 24시간 이용 가능함에 따라 실내공간 주말 이용 및 실외공간 24시간 이용 가능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5.1.2 사례 평가 표본 설정 및 조사

표본은 부산광역시청에 조성된 시민문화공간 관리관계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1차는 2022년 11월 10일에 사례 현장 방문하였으며, 총 5명의 참여 의사를 밝힌 관리관계자를 직접 대면 후 사례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2차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하였으며, 사례 평가에 관한 목적 및 세부적인 내용은 표본 대상의 요구에 따라 유선 및 e-mail로 설명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5-1] 사례 평가 표본 조사 개요

구분	기간	방법
1차	2022년 11월 10일	직접 대면 후 사전고지 및 대상 조사(5명)
2차	2022년 11월 14일~17일 (4일간)	평가 내용 유선 및 e-mail 설명 후 진행

사례 평가는 앞서 최종으로 도출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표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자 A, B, C, D, E로 표기하였다.

5.2 평가 내용 및 결과

[표5-2] 부산광역시청 공간평가 결과 종합

구분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균
개방성	3.75	3.63	4.00	4.13	4.63	4.0
인지성	4.20	4.20	3.60	4.80	5.00	4.36
접근성	4.43	4.43	4.29	4.29	4.71	4.43
체험성	4.83	4.33	3.83	4.83	4.83	4.53

사례의 평가 결과를 상위 평가항목에 따라 정리한 결과, 체험성(4.53)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부산광역시청이 적극적으로 시민문화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접근성(4.43)은 인근 대중교통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초로 다양한 방면에서 청사의 접근 동선을 계획함에 따라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인지성(4.36), 개방성(4.00)의 순으로 해당 사례는 전체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평가를 표기하고, 하위 평가항목별 평균을 산정하면 다음 [표5-3]과 같다.

[표5-3] 항목별 부산광역시청 공간평가 결과

항 목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개방성 (8)	A1			●						●					●									●	4.0	
	A2				●				●						●									●	4.0	
	A3				●					●						●								●	3.8	
	A4				●						●					●								●	4.8	
	A5			●							●					●								●	4.0	
	A6				●					●						●								●	4.0	
	A7				●					●						●								●	4.2	
	A8				●					●					●									●	3.4	
인지성 (5)	B1			●						●					●								●	4.2		
	B2			●						●					●								●	4.6		
	B3			●						●					●								●	4.6		
	B4			●						●					●								●	3.8		
	B5				●						●					●							●	4.6		
접근성 (7)	C1				●					●					●								●	5.0		
	C2			●							●					●							●	3.8		
	C3				●						●					●							●	5.0		
	C4				●						●					●							●	4.2		
	C5					●					●					●							●	5.0		
	C6				●						●						●						●	3.2		
	C7					●						●					●						●	4.8		
체험성 (6)	D1				●						●					●							●	5.0		
	D2				●						●					●							●	4.8		
	D3				●						●					●							●	4.4		
	D4				●						●					●							●	4.0		
	D5				●						●					●							●	4.8		
	D6				●						●					●							●	4.2		

우선 높게 평가된 하위 평가항목을 살펴본 결과, 접근성의 ‘C1.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5.0), ‘C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 지양’(5.0)과 체험성의 ‘D1.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 조성’(5.0)은 평가자 모두 5점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개방성의 ‘A4.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4.8), 접근성의 ‘C7.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4.8), 체험성의 ‘D2. 시민공간과 옥외공간 연결 배치’(4.8), ‘D5. 방문자 직접 체험 공간 마련’(4.8)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부산광역시청사가 시민들의 문화적, 편의적 부분을 강점으로 두며 이와 더불어 공간의 쉬운 접근성까지 고려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항목을 기초로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하위 항목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접근성의 ‘C6. 어린이 안전한 보행·보호구역 확보’(3.2)와 개방성의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3.4) 등의 일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청의 시민문화공간을 좀 더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퍼블릭 인터머시를 향상하도록 공간 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더욱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소극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공공청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고려와 함께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을 위한 보완 방법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을 지표로 삼아 공공청사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한다면 더욱 활발한 공공청사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한다.

제6장

결 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6.2 향후 연구 방향성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되던 ‘공공성(public)’과 더불어 공공청사 또한 도시의 발전을 함께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기존 국내 공공청사의 경우 도시의 권위적인 상징물로서 부각되었으나, 현재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으로 도시민들과 미래를 함께 생각하려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연구자는 주목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공공청사는 도시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연구자는 공공성 확장에 따라 나타난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을 대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따라서 현대 공공청사는 퍼블릭 인티머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이 그 속에서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공간의 기초적 기틀을 제안하고자 공간 평가항목을 개발했다.

연구의 시작은 공공청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방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퍼블릭 인티머시의 대입 필요성을 밝혔다. 퍼블릭 인티머시는 용어의 혼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을 기초로 둔 추상적인 개념임에 따라 기초적 개념 접근과 함께 건축·공간 측면에서 구체화 할 수 있는 특성을 5개(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을 도출했다. 자세한 공간 분석을 위해 국내 공공청사의 행정구역 및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행정구역의 대표성을 지니며 다양한 시민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한 국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시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범위와 과정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공공공간 혹은 공공건축물 평가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빈도수에 의해 항목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앞서 분석한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 특성 5개를 중심으로 공간 평가 특성을 연결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공간적 평가 항목을 위해 하위 항목은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 및 정리하고, 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총 5개의 상위 항목과 46개의

하위 항목으로 본 연구의 평가 예비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평가 예비항목이 실질적으로 공공청사의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 예비항목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하위 요인화하였으며, 친밀감은 단일 요인화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가설 설정을 하였다. 설문은 공공청사 방문 및 사용 경험을 지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평가 예비항목의 요소별 요인이 친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주요 결과는 상위 항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성($\beta = .457, p < .05$), 개방성($\beta = .216, p < .05$), 접근성($\beta = .086, p < .05$), 인지성($\beta = .077, p < .05$) 순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유일하게 장소성($\beta = -.064, p > .05$)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평가 예비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적 다른 유의한 영향을 미친 상위 항목에 비해 장소성은 물리적으로 표현 가능한 것보다는 추상적 개념의 성격이 짙고, 이에 따라 공공청사 방문자가 쉽게 장소적 특징을 통해 지역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퍼블릭 인티머시 장소성은 공공청사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임으로 추후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소성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항목 4개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위 항목 총 10개의 항목이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이후 평가 예비항목 조사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선정 및 중요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 선정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최종 평가항목을 구축하였다. 우선 1차 중요도 조사에서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와 공공청사 방문 및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했으며, 2차 전문가 검증은 평가 예비항목의 적합성 여부와 세부 항목의 내용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FGI 검증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FGI 대상자는 관련 분야(공간, 공공디자인) 중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지닌 교수 및 관련 부서 재직 중인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심층 면접 방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와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최종 공간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종 평가항목을 토대로 3장에서 현황 조사한 사례 중 비교적 가장 최근에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후의 지속적인 공간 조성 계획이 있는 부산광역시청사를 사례로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례 평가를 위한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청사에 재직 중인 관리관계자로 선정하였으며, 사례 평가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공간 평가항목의 진단과 활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중요도 조사에서 전문가, 일반인 대상 상위 항목 내 하위 항목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최소 0.771, 최대 0.926을 기록하여 연구의 데이터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및 일반인의 두 집단 동일하게 1위는 접근성, 2위는 인지성으로 나타났지만 3위로 전문가는 개방성을, 일반인은 체험성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위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전문가는 공공청사가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배치, 동선 등의 부분을 중요시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실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해당 공공청사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화되는 공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을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차 전문가 검증을 위한 FGI 면접 분석 결과, 모든 상위 항목이 평균 4점 이상으로 적합한 항목으로 검증되었으며 접근성(4.66), 인지성(4.56), 체험성(4.43), 개방성(4.15) 순으로 앞서 분석한 일반인 중요도 조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인터뷰 의견을 반영하여 의미 중복 항목에 대한 견해를 반영해 접근성의 하위 항목 1개를 축소 및 조정하였다. 또한 항목의 단어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여 항목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를 위한 상위 항목은 동일하게 4개와 하위 항목은 총 26개의 구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최종 평가항목의 진단과 활용을 위해 선정한 사례의 관리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사례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례는 체험성(4.53), 접근성(4.43), 인지성(4.36), 개방성(4.00) 순으로 전체 상위 항목에 대한 평가는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하위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부산광역시청사가 시민들의 문화적, 편의적 부분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 항목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에 비해 비교적 낮게 측정된 일부 항목은 부산광역시가 추구하는 도시 발전 방향

과 함께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가가는 현대 공공청사가 퍼블릭 인터머시를 통해 발전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공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이에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6.2 향후 연구 방향성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청사의 변화에 따라 도시민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목적으로 퍼블릭 인터머시를 설정하고, 체계화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형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관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간 마련에 관한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녔다. 또한 앞으로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의 구성에 있어 세부적인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퍼블릭 인터머시 개념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단어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소 이에 관한 개념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도 최대한 단어 혼용을 줄이고 퍼블릭 인터머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념 탐구와 공간적 접근의 연구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둘째, 국내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공간 분석에 대한 범위와 평가항목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공공청사에 대한 범위와 조건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소 부족하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공공청사 범위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시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앙자치청사와 군·구·면·읍 등의 하위 행정구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구역에 따른 조건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행정구역 마다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을 구축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장소성’에 관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평가 항목은 유의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장소성은 추상적 개념이 짙고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특성이 아니지만, 도시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서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필수적인 특성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추후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과 장소성에 관한 독립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 근거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 공공청사와 퍼블릭 인터머시를 대입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가톨릭대 고전라틴어연구소,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6.
- 권영결 외, “공공디자인 행정론”. 날마다, 2011.
-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2014.
- 송지준, “송지준 교수의 논문통계의 이해와 적용: SPSS와 AMOS를 활용”. 21세기사, 2019.
- 신동재, “공연장 건축의 인터머시”. 우리북, 2020.
- 실내디자인학회, “감성공간디자인”. 기문당, 2009.
- 이광자 외,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2003.
- Baba Masataka, Open A, 배현미, 이승규 역, “RePublic: 공공공간의 리노베이션”. 문운당, 2021.
- Derlega, Valerian J, “Self-Disclosure and Intimate Relationships Introduction”. Academic Press. Inc., 1984.
-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1968.
- Prager, Karen J, “The Psychology of Intimacy”. Guilford Press, 1995.
- Schulz, C. Norberg, 민경호 역, “장소의 혼”. 테림문화사, 1996.

학위논문

박사학위

- 김민주. 행태유형화를 통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공공성 분석: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2014.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성주. 소방청사 공간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2015.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학위.
- 김지예. 대학 뮤지엄의 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지표 개발. 2020.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혜란.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평가. 2014.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 박신자. 심미적 통합환경을 지향하는 도시 공공친화 공간 형성방안에 대한 연구.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 연구.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서수미.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2013.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성가희. 밀적 공공공간의 디자인 평가 방법. 202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성윤정. 공공디자인의 공공성(公共性) 개념 연구. 2010.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신동재. 공연장의 ‘인티머시’ 구현에 관한 연구.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유병진. 공공기관 지역문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2020.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효장. 복합용도건축물 내부 오픈스페이스의 공공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2009.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석.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한명흠. 감성여취를 통한 공간환경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11.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현창용. 공공청사시설을 통한 권력과 공공성의 구축. 2017.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Maria A. Turkson. Eriksonian Identity and Intimacy: Collective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2003.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

- 권민영. 공적공간으로서의 지방청사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청사 4곳을 통한 비교사례 분석. 2016.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김근아.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티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유중.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구역 계획안: 공공행정청사의 시민친화성을 중심으로.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은정. 체험을 통한 보행적 광장의 public intimacy 증진에 관한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재영. 공공청사 문화공간의 공간계획 분석. 201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진욱. 도시공간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03.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현태. 자치구 구청사의 시기에 따른 민원실 변화에 관한 연구. 2021.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문영학. 공공청사의 대민업무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정부 지방합동청사를 중심으로. 2012.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 봉혜윤. 공공청사 공용공간의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시청청사를 중심으로. 2019.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 석지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2011.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 오동현. 매개를 통한 공간의 확장에 관한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유종구. 공공청사 복합화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2020.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 윤수민. 도심지 업무용 건축물의 실내공개공지 공공성에 관한 연구. 2022.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원, 석사학위.
- 윤영주. 도시환경에 있어 가로공간의 슈퍼그래픽에 관한 연구: 보도블록을 중심으로. 1999.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건오. 공개공지의 친공공성을 위한 경험 중심적 공간 연구.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임상진. ‘건축적 공공성’의 구현에 관한 연구: H. Hertzberger와 F. Maki 건축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수연. 주거단지의 공공친화를 위한 자극유인동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13.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현돈. 복합시설 기능간의 완충 및 활성화를 위한 매개공간에 관한 연구: 용인시 흥덕지구 구 아모레퍼시픽 부지를 중심으로. 2012.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지연희. 공공성 관점에서 본 프라임 오피스의 저층부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 종로·중구를 중심으로. 2020.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최수지. 공간 친밀도와 정서 경험 증진을 위한 차량 IVI 시스템내 공감형 에어젠티 연구. 201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보고서

- 건설교통부. “시민친화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 한국 건설교통부, 2006, 보고서번호: 11-1500981-000007-01.
- 경기도.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20, 보고서번호: 71-6410000-000895-01.
-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경상북도, 2009.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광주광역시, 2019, 보고서번호: 55-6290000-000502-13.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대구광역시, 2019, 보고서번호: 56-6300000-000288-13.
- 대전광역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대전광역시, 2017, 보고서번호: 56-6300000-000288-1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0.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서울특별시, 2017.
- 염철호 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보고서번호: AURI-기본-2008-8.
- 염철호, 임현성.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보고서번호: AURI-기본-2010-2.
-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

- 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보고서번호: AURI-공공건축-2016-2.
- 인천광역시. “200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2009.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2017.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라남도, 2014.
 -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최종보고서”. 전라북도, 2020, 보고서번호: 77-64 50000-000403-0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7.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충청남도, 2015.
 -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종합보고서”. 충청북도, 2009.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2, 보고서번호: 1 1-1741000-000094-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보고서번호: 11-1670000-000035-01, 2007.
 - C.A.B.E. “Design Review: Birmingham Library”. Design Council, 2012.
 - C.A.B.E. “Spaceshaper: a user’s guide”. C.A.B.E, 2007.
 - D.Q.I. “DQI for education: Guidance”. DOI, 2018.
 - Milton, Hanna. “Design Review Insight Report-Built Environment”. Design Council, 2018.

학회논문

- 강은진, 최상헌. “문화행정의 관점에서 본 공공청사 시민문화공간 공간계획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3, no.2, 2014.
- 류혜지. “국내 광역시청사의 시민문화공간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집, vol.14, no.1, 2019.
- 류혜지. “국내 공공청사 공간디자인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시민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집, vol.14, no.7, 2019.
- 신재령, 이정교. “폐 산업시설 공간재생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공디자인 계획 특성 연구: 국내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5, 2020.
- 이건오, 이재규. “퍼블릭 인터미시를 위한 상호작용적 경험 공간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8, no.4, 2013.
- 이규목.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vol.24, no.94, 1980.
- Orlofsky, J. L. et al.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7, no.2, 1973.

웹사이트

-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www.kanazawa21.jp/kr.
- pmg 지식엔진연구소. “매슬로의 동기이론”. 박문각, 2022년 07월 14일 접속, www.pmg.co.kr.
- 국립국어원. “공공성”.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07월 13일 접속, 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친밀”.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07월 13일 접속, stdict.korean.go.kr.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한국 국토교통부, 2019년 7월 3일,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503.
- 국토교통부. “공공청사”. 토지이용 용어사전, 2022년 07월 07일 접속, luris.molit.go.kr.
- 권혁선.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개소식…시청사 710㎡에 독서쉼터·출판문화체험 공간 조성”. 대전인터넷신문, 2022년 03월 10일, daejeonpress.co.kr/m/view.php?id=48515.
- 김재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19.12.31.기준)”. 지방재정365, 2020년 08월 27일, 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1&bbsCd=FSL1004&userCd=0&subCd=FSL401&code=fsl&leftCd=1&currPage=1&ansTag=N&seq=654553&searchWd=.
- 대전광역시청, www.daejeon.go.kr.
- 두산백과. “깨진 유리창 이론”. 두피디아, 2022년 07월 14일 접속, www.doopedia.co.kr.
- 두산백과. “대전광역시청”. 두피디아, 2022년 07월 30일 접속, www.doopedia.co.kr.
- 두산백과. “부산광역시청”. 두피디아, 2022년 10월 15일 접속, www.doopedia.co.kr.
- 두산백과. “오산시청”. 두피디아, 2022년 07월 30일 접속, www.doopedia.co.kr.
- 박태문. “시청사 소개”. 부산시청, 2022년 09월 15일, www.busan.go.kr/bhintro01.
- 박태문. “부산시청 종합안내”. 부산시청, 2023년 01월 02일, www.busan.go.kr/bhintro04.
- 법제처. “공공청사”.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7월 07일 접속. www.law.go.kr.
- 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제1호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7월 29일 접속, www.law.go.kr.
- 법제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08월 02일 접속, www.law.go.kr.
-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 오산시.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오산시 공식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2020년 09월 29일, blog.naver.com/osan_si/222102835173.
- 위키백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위키백과, 2022년 12월 04일, ko.wikipedia.org/wiki.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www.childfriendlycities.kr.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오산시, 전국 8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017년 06월 01일, www.childfriendlycities.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

- &wr_id=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8%A4%EC%82%B0&sop=and.
- 이배윤. “오산시, ‘오산시청 어린이물놀이장’ 6월 22일 개장”. 이뉴스투데이, 2019년 06월 19일, www.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569.
 - 이지. “오산시청사,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단장”. 코리아포스트, 2021년 06월 09일, 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9.
 - 임수정. “시청 전시실(2층) 대관 안내”. 부산시청, 2022년 09월 30일, www.busan.go.kr/bhe/hibition01.
 - 정현이.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부산시청, 2022년 06월 27일, www.busan.go.kr/nbtnewsBU/1532130.
 - "Stadshuis Nieuwegein / 3XN" 29 Mar 2012. ArchDaily.www.archdaily.com/220899.

부 록

1. 설문지
2. 국문초록

설문지1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추출
연구명: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자 이유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공공청사 관련 공간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퍼블릭 인티머시 개념을 대입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해당 조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연구자: 이유나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 230-**** 메일주소 *****@gmail.com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 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 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전공분야	<input type="radio"/> 공간디자인	<input type="radio"/> 공공디자인	<input type="radio"/> 산업디자인	<input type="radio"/> 시각디자인	<input type="radio"/> 기타 ()
경 령	<input type="radio"/> 3년 미만	<input type="radio"/> 3~5년	<input type="radio"/> 6~10년	<input type="radio"/> 11년~20년	<input type="radio"/> 21년 이상
직 업	<input type="radio"/> 디자인 전공학생	<input type="radio"/> 관련 분야 교육자 및 교수	<input type="radio"/>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이너	<input type="radio"/> 관련 분야 공무원	<input type="radio"/> 기타 ()

*** 용어설명**

• 공공청사란?

: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행정업무 및 대민, 시민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공청사 범위는 국내 특별시·광역시·도·시를 한정하였다.

•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란?

: 퍼블릭 인티머시는 ‘공공성(public)’과 ‘친밀감(intimacy)’의 합성어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며 도시민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티머시(친밀감)이다.

* 다음은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를 평가하는 기존 항목 중 각 질문이 제시하는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과 연계되는 것을 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 특성	개 념
① 개방성	공간 이용 시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가변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성질.
② 장소성	공간과 사용자 사이의 공통된 정체성 공유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
③ 인지성	공간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인지적 역할까지 지닌 성질.
④ 접근성	공간 사용자의 경로가 물리적 막힘없이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이 가능한 성질.
⑤ 체험성	사용자의 관심, 흥미 등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속 적극적인 행위 유발을 할 수 있는 성질.

1. 접근성 (공간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2. 지속가능성 (공간이 특정한 과정이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3. 연계성 (어떠한 공간이 다른 공간과 관계를 맺고 사용자로 하여금 행위·이동을 유도하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4. 사용성 (공간의 기능이나 프로그램에 맞춰 공간 사용하기가 쉬운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5. 개방성 (다양한 방면에서 공간이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 상태 혹은 성질인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6. 경관성 (주변 자연환경이 결합되어 일체성있는 외관을 나타내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7. 공공성 (공공의 가치를 공간이 지니고 있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8. 안전성 (공간의 이용에 위험 요소가 없고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9. 정체성 (공간 존재의 본질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본연의 특성을 공유하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0. 가변성 (사용 목적에 맞춰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1. 상징성 (공간 및 건축이 지닌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었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2. 심미성 (공간 및 건축이 아름다운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3. 기능성 (의도한 목적대로 공간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4. 참여성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5. 쾌적성 (장소·건축·공간 등이 쾌적한 상태 혹은 성능을 유지하는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16. 편리성 (공간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가)

- ① 개방성 ② 장소성 ③ 인지성 ④ 접근성 ⑤ 체험성

*** 기타 의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일: 20 년 월 일 평가자: (인)

설문지2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실증분석
 연구명: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자 이유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을 추출하기 앞서 본 설문은 각 항목이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해당 조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연구자: 이유나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 230-**** 메일주소 *****@gmail.com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 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 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거주지역	<input type="radio"/> 특별시	<input type="radio"/> 광역시	<input type="radio"/> 시	<input type="radio"/> 군	
직 업	<input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직장인	<input type="radio"/> 기업인	<input type="radio"/> 자영업	<input type="radio"/> 기타()
학 령	<input type="radio"/> 고졸 이하	<input type="radio"/> 대학 재학	<input type="radio"/> 2년제 졸업	<input type="radio"/> 4년제 졸업	<input type="radio"/> 대학원 이상
• 공공청사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평상시 공공청사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radio"/> 1년 1~2회	<input type="radio"/> 6개월 1~2회	<input type="radio"/> 1달 1~2회	<input type="radio"/> 1주 1~2회	<input type="radio"/> 거의 매일	
공공청사의 방문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input type="radio"/> 민원업무	<input type="radio"/> 행정업무	<input type="radio"/> 문화공간 이용	<input type="radio"/> 광장 및 공원	<input type="radio"/> 이벤트	
귀하는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경험(이용) 후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input type="radio"/>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만족한다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한다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시시오.					

*** 용어설명**

•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란?
 : 퍼블릭 인티머시는 ‘공공성(public)’과 ‘친밀감(intimacy)’의 합성어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며 도시민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티머시(친밀감)이다.

1. 다음은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을 보시고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각 문항이 친밀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방성	1. 야간 및 휴일 24시간 개방과 적절한 조명 설치는 친밀감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지 내 공지, 조경의 충분한 면적 배치는 공간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3. 유리 등 연속성 있는 재료, 구조 사용은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4. 위압적 캐노피, 돌출형 등 폐쇄적 요소 지양은 공간 애착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옹벽, 담장 등 제한하고 필요시 차폐용 식재 설치는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저층부 공간 개방 및 편의시설 배치는 친근감 향상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편안한 느낌의 재료 고유한 재질감을 강조하는 것은 친근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루버, 차양막 적용 등 일조량-그늘 계획은 공간 친밀도를 향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편안한 느낌의 주광색 등 은은한 조명 설치는 친근한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공간의 개방적, 편안한 이미지로서 밝은 조도 유지는 친밀감을 향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문화, 외국인 배려한 시설물 설치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장소성	1. 지속 가능한 재료, 색채 사용은 공간 애착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권위적 디자인 탈피와 친밀한 열린공간 이미지 강화는 친밀감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친환경 설비 및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공간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4. 실내 경관 및 식재 설치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포인트 색 사용은 공간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친근한 공간대 구축은 애착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변 지형 및 건물 고려한 배치, 스카이라인은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 환경과의 조화적인 디자인은 친근한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야간경관 도입으로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는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인지성	1. 지역 랜드마크로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은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2. 과도한 광고 게시물 지양과 통합적 디자인은 공간 친밀감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편의 시설물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 디자인 도입은 공간 친밀도를 향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미관, 안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을 지양하는 것은 친밀감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바닥사인 설치는 공간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시설 분리는 공간 친근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친근성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는 것은 공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면 외부공간의 주차장화 제한하는 것은 공간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건물 진입부, 공지, 내부공간 단차를 지양하면 공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적용하는 것은 공간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주 출입구 인근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공간 친근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은 친밀감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공공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공간 친밀도를 향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린이를 위한 안전 보행-보호구역 확보는 공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이용자 동선, 편리성 고려한 공간별 기능 배분은 공간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안전 및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는 공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보도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 연속됨은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12. 계단식 진입 시 경사로 및 난간 필수 설치는 공간 애착심을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체험성	1. 실외 시민 휴게 및 문화 공간의 조성은 친밀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민을 위한 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 배치하는 것은 친밀감을 향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조경 및 광장 배치는 친근감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중 연결통로 계획 시 허부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애착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연환경과 연계해 주민건강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친근한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방문자의 직접적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간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은 친밀감의 형성에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친밀감(인티머시, intimacy)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밀감	1. 공공청사에 구현된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은 전반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을 통해 심리적 가까움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공간을 통해 공간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일: 20 년 월 일 평가자: (인)

설문지3_type A

1차 중요도 조사(전문가용)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연구명: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자 이유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청사의 발전과 지역민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위해 퍼블릭 인티머시로서 평가항목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해당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연구자: 이유나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 230-**** 메일주소 *****@gmail.com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 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 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전공분야	<input type="radio"/> 공간디자인	<input type="radio"/> 공공디자인	<input type="radio"/> 산업디자인	<input type="radio"/> 시각디자인	
경 령	<input type="radio"/> 3년 미만	<input type="radio"/> 3~5년	<input type="radio"/> 6~10년	<input type="radio"/> 11년~20년	<input type="radio"/> 21년 이상
학 령	<input type="radio"/> 석사 과정	<input type="radio"/> 석사	<input type="radio"/> 박사 과정	<input type="radio"/> 박사 수료	<input type="radio"/> 박사
* 공공청사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평상시 공공청사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radio"/> 거의 없음	<input type="radio"/> 1년 1~2회	<input type="radio"/> 6개월 1~2회	<input type="radio"/> 1달 1~2회	<input type="radio"/> 1주 1~2회	<input type="radio"/> 거의 매일
공공청사의 방문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input type="radio"/> 민원업무	<input type="radio"/> 행정업무	<input type="radio"/> 문화공간이용	<input type="radio"/> 광장 및 공원	<input type="radio"/> 이벤트	<input type="radio"/> 기타()
귀하는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경험(이용) 후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input type="radio"/>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만족한다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한다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 용어설명

•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란?

: 퍼블릭 인티머시는 ‘공공성(public)’과 ‘친밀감(intimacy)’의 합성어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며 도시민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티머시(친밀감)이다.

설문지3_type B

1차 중요도 조사(일반인용)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연구명: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자 이유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청사의 발전과 지역민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위해 퍼블릭 인티머시로서 평가항목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해당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연구자: 이유나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 230-**** 메일주소 *****@gmail.com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 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 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거주지역	<input type="radio"/> 특별시	<input type="radio"/> 광역시	<input type="radio"/> 시	<input type="radio"/> 군	
직 업	<input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직장인	<input type="radio"/> 기업인	<input type="radio"/> 자영업	<input type="radio"/> 기타()
학 령	<input type="radio"/> 고졸 이하	<input type="radio"/> 대학 재학	<input type="radio"/> 2년제 졸업	<input type="radio"/> 4년제 졸업	<input type="radio"/> 대학원 이상
* 공공청사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평상시 공공청사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radio"/> 거의 없음	<input type="radio"/> 1년 1~2회	<input type="radio"/> 6개월 1~2회	<input type="radio"/> 1달 1~2회	<input type="radio"/> 1주 1~2회	<input type="radio"/> 거의 매일
공공청사의 방문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input type="radio"/> 민원업무	<input type="radio"/> 행정업무	<input type="radio"/> 문화공간 이용	<input type="radio"/> 광장 및 공원	<input type="radio"/> 이벤트	<input type="radio"/> 기타()
귀하는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경험(이용) 후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input type="radio"/>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만족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만족한다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한다	
공공청사의 시민문화공간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시시오.					

* 용어설명

•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란?

: 퍼블릭 인티머시는 ‘공공성(public)’과 ‘친밀감(intimacy)’의 합성어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며 도시민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인티머시(친밀감)이다.

국문초록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티머시 평가항목 개발

이유나

지도교수: 윤갑근

디자인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공건축은 다각도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공성(public)을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공공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공공청사 또한 시대적 흐름을 표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공공청사의 역사 또한 오래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공공청사의 건축과 공간은 그 도시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 수단으로만 여겼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시민과 공공청사는 친근하고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다소 위압적인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점차 국내에서도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과 함께 도시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 공공청사는 건축·공간적 측면에서 도시민과 ‘친밀한(intimacy)’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공공성을 기반으로 도시민과 ‘친구(the intimacy bond)’와 같은 가까운 상태 의미로서 ‘퍼블릭 인티머시(public intimacy)’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연구자는 주목하였다. 퍼블릭 인티머시란 사회·심리학을 시작으로 건축·공간 측면으로 확장된 개념이자 사회적 가까움을 느끼고 이로써 도시민과 공공공간 혹은 공공건축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청사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퍼블릭 인티머시 대입을 통한 체계화된 공간의 기초적 기틀을 제안하는 공간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시민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한 국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시의 공공청

사를 대상으로 삼아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공간평가 항목은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개(개방성, 장소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더욱 실용적인 측면에서 공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상위 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 예비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공간 평가를 체계화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릭 인터머시 공간 특성과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출했다. 하위 항목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공공청사 관련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두고 상위 항목에 따라 재분류하여 평가 예비항목을 구성했다. 더 나아가 공간의 기초적 기틀을 마련하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임에 따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효과를 입증하여 최종 평가 예비항목을 추출했다.

실증분석은 공공청사 방문 및 사용 경험을 지닌 일반인 120명 대상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5개의 상위 항목 중 유일하게 장소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위 항목 10개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중요도 조사는 전문가 50명과 공공청사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상관관계, 중요도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1위 접근성, 2위 인지성을 나타냈으며, 3위에 대해 전문가는 개방성을, 일반인은 체험성을 더욱 중요시 여겼다. 더불어 하위 항목까지 중요도 분석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청사의 개선 사항을 먼저 검증하고, 더욱 다양화되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2차 전문가 검증은 FGI 방식을 채택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위 항목은 평균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면접과 인터뷰에서 제안된 의견에 따라 해당 항목을 축소 및 보완하고, 일부 항목의 경우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4개 상위 항목(개방성, 인지성, 접근성, 체험성)과 26개의 하위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 평가항목의 진단과 활용을 위해 선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해당 사례는 체험성, 접근성, 인지성, 개방성 순으로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사례의 특징에 따른 점수 차를 보이는 세부 항목 분석을 통해 사례의 긍정적인 평가 부분은

더욱 활성화하고 부정적인 평가 부분은 개선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공공청사의 퍼블릭 인터머시 대입을 통해 도시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공간적 측면에서 기초적 기틀을 평가항목 개발로써 제안하였으며, 일련의 분석과 검증 과정을 통해 그 효과와 가치가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본 연구는 퍼블릭 인터머시의 단어 혼용과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용어 정리와 개념, 공간적 접근 등 개념 구체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내 공공청사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남에 따라, 공공청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적용 필요 조건에 접근해 행정구역마다 퍼블릭 인터머시 평가항목을 구축하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공공성, 공공청사, 퍼블릭 인터머시, 시민문화공간, 평가항목